

시민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역사특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KM000000310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KM0000003103

시민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역사특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目 次

- ▶ 동학농민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이이화 1
- ▶ 동학! 농민혁명과 만나다 신영우 12
- ▶ 동학농민혁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신순철 22
- ▶ 전봉준과 대원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배항섭 32
- ▶ 1894년 갑오개혁은 왜 농민혁명을 진압했는가 왕현중 60
- ▶ 1894년 농민전쟁의 의의와 영향 박준성 68
- ▶ 호남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이상식 83
- ▶ 선운사 미륵비결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송기숙 92
- ▶ 경남 서부지역 동학농민운동 김준형 95

동학농민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이 이 화 (서원대 석좌교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전쟁은 한국사에서 나타난 가장 규모가 큰 농민항쟁이었다. 그러면 동학과 농민전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농민군들은 목숨을 걸고 왜 싸웠는지, 그 진행 과정은 어떠한지, 그 혁명적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동학의 전파와 민중의 호응

19세기를 “민란의 시대”라 말한다. 몇몇 문벌가들이 이른바 세도정치를 통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온갖 부정과 불법을 자행했다. 그래서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관서농민전쟁,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삼남농민봉기가 일어났다. 혼돈의 시대상황 속에서 1860년대 “사람이 한울이다”는 기치를 내걸고 동학이 창도되었다. 동학은 차츰 정부의 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번져 나갔다. 동학은 내세보다 현실 인간세계의 개조를 내걸었다.

동학은 처음부터 압제받는 민중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좌도난정(左道亂正)이라 하여 탄압을 받아 충청북도와 강원도의 지하로 들어갔다. 최시형은 어린이 사랑하기, 여성의 처지 개선하기, 양반 상놈 차별 없애기 등 평등사상을 가르치고 실천하였다. 그 자신은 쉼 새 없이 노동을 하며 실천적 삶을 살았다.

1890년대에 들어 동학조직은 강원도 산악지대를 벗어나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동학의 인간중심 사상은 당시 핍박받던 민중에게 커다란 위안이었고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런 평등사상을 전통적 유학자와 기득권 세력의 부호들은 외면하였다. 이때 반불입(班不入) 사불입(士不入) 부불입(富不入)이라는 말이 돌았다. 이런 현실조건에서 동학은 천주교마저 공인을 받아 선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현실에서도 공인 받지 못한 탓으로 계속 관리들의 탄압을 받았다.

따라서 역사적 현실적 조건으로 보아 동학은 농민전쟁 전개 과정에서 “단순한 종교의 외피로서”만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 여러 모순이 얽힌 시대배경

홍선대원군이 한창 보수적 개혁정치를 펼 때에 강화도에서 신미양요(1871년)가 벌어졌다. 미국의 시꺼먼 군함이 대포를 장진하고 서해안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는 대포를 쏘면서 강화도 광성진에 상륙

하였고 이곳을 수비하던 우리 군대가 결사 항전을 벌였다. 미국 해군들은 통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물러갔다.

홍선대원군은 이 신미양요를 계기로 하여 일대 서양배척운동을 벌였다. 홍선대원군은, 신미양요를 프랑스함대의 강화도 침입사건(1866년)과 하나로 묶어 서양인들이 연달아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한다고,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서양인들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주장을 배척하여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主和賣國)” 라고 선언하였다. 이어 철저한 항전을 독려하는 구호를 적은 척화비(斥和碑)를 전국의 중요한 곳마다 세우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인민들에게는 서양배척의 의식이 더욱 고양되었고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천주교도를 탄압하는 빌미로 삼았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서양인은 눈이 파랗고 코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으며 윤리와 도덕이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알았다.

이 해에는 문경 새재에서 직업적 봉기꾼인 이필제가 잡히는 일도 일어났다. 이필제는 영해사건 등 여러 차례 변란을 일으키거나 음모를 꾸민 인물이다. 이필제는, 최계우의 원수를 갚자고 최시형과 동학교도들을 유인해 영해부 관아를 점령한 일이 있었다. 이때에 다시 동학교도와 불평객들과 손을 잡고 일대 변란을 꾸미려다가 잡혔다. 정부에서는 그를 오랫동안 추적해 왔었다. 이필제의 체포는 동학교도들이 더욱 탄압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개항이었다. 개항을 강요당한 시기는 1876년이었으니 홍선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난 뒤이며 전봉준이 스물두 살 때였다. 일본인들은 여러 척의 군함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에 나타나 정부를 위협하면서 개항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교섭에 응하여 부산, 인천, 원산 등 세 개의 항구를 열어 일본상인들이 거주하면서 무역을 하게하고 일본 영사를 두게 하였다. 또 일본이 조선의 연해와 섬들을 측량할 수 있게 허락하였다. 이것을 강화도조약이라 부른다.

이 개항으로 말미암아, 조선은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도 무역을 허락하게 되었고 외교관계도 맺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항은 아무런 내부의 준비도 없이 일본과 서양 세력들의 활동무대를 제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인과 서양인들은 금광개발권, 삼림벌채권, 철도부설권 등의 이권을 앗아가고 쌀, 콩 등 식량과 자원을 수출하는 대신 양복지, 옥양목, 사치품 등의 물품을 수입하는 소비시장이 되었다.

이른바 개항이 이루어진 뒤 온 나라가 들끓었다. 민씨 정권은 외세와 결탁하여 이권을 하나씩 거머쥐었으며 척사파들은 개항을 반대하는 운동을 열렬히 벌였다. 인민들은 더욱 식량이 모자라는 현실에 부딪쳤으며 높은 벼슬아치와 부호들은 수입 물품으로 사치스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나의 보기를 들어보자. 일본과 청국의 상인들은 영국에서 기계로 짠 옷감을 대량으로 들여와 조선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래서 외국 상인들은 중계무역으로 톡톡히 이익을 남겼지만 국내 목화생산과 포목산업은 마비되어 농촌경제를 파탄으로 내몰았다. 이들 서양 옷감을 “질이 좋은 서양의 포목” 이라 하여 옥양목(玉洋木)이라 불렀다. 옥양목이 우리 시장을 휩쓸었던 것이다. 이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무역이 이

루어지지 않아 나라의 자원이 유출되었고 전통의 시장경제는 마비되었던 것이다.

한편 개항으로 말미암아 개방을 주장해왔던 개화파들은 기세를 올렸고 민씨들은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들을 이용하였다. 그런 속에서 국가는 동등한 조건의 국교를 수립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등 조약에 시달렸다. 게다가 척화파, 개화파, 수구파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대결을 벌여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이런 시기인 1882년 구식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를 임오군란이라 부른다. 민씨 정권은 무리하게 개화정책을 밀고 나갔다. 정부에서는 신식군인을 양성하면서 구식 군인들에게는 봉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구식 군인들은 이에 항의하여 집권세력인 민씨들의 타도에 나섰다. 구식군인들은 경복궁으로 밀려들어가 고종을 압박하였고 민씨의 배후인물인 민비를 잡아 죽이려 하였다. 구식군인들은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흥선대원군을 받들어서 정권을 맡게 하였다.

민씨들과 민비는 도망을 쳤다. 서울에 주둔해 있던 청국군인들은 민씨들의 요구에 따라 구식군인들을 타도하였고 흥선대원군을 잡아 중국에 유폐시키는 불법적 행동을 멋대로 저질렀다. 그리하여 군인폭동은 일단 수습되었으나 국가 주권은 청나라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되었다.

1884년에는 개화파들이 민씨 정권을 타도하려는 일대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를 갑신정변이라 부른다. 개화파들은 민씨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개화정책을 반대하자 일본의 힘을 빌어서 민씨 정권을 타도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김옥균, 홍영식 등은 일본군의 지원을 믿고 우정국 건물 낙성식을 빌어 민씨들을 압박하고 경복궁을 습격하였다.

그러나 다시 청국 군대가 이들을 축출하였고 일본군인들은 처음 약속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김옥균, 박영효 등 주동자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 사건은 사흘 만에 실패로 끝나 “삼일천하”라 불렸다. 지금까지 보는 바와 같이 나라는 청국과 일본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

이 두 사건으로 국가의 주권이 크게 훼손되었다. 외세는 더욱 기승을 부려 이권을 앗아갔으며 식량과 자원이 야금야금 유출되었다. 민씨 정권은 더욱 부패하여 외국 상인들에 이권을 팔아먹었고 뇌물을 챙기고 벼슬을 파는 따위, 불법과 부정행위를 거듭하였다. 또 개화정책을 무리하게 펴기도 하였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의 수탈이 가중되었다. 토지에 매기는 세미(歲米)는 규정보다 턱없이 많게 거두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흉년에 세미를 면세해 주는 토지에도 조세를 매겨 착복하였다. 군사 경비를 위해 호구마다 매기는 군포를 어린아이, 노인, 심지어 군적에도 없는 배냇아이에게도 받아냈다. 환곡은 춘궁기에 빌려주고 추수기에 회수하는 구휼제도인데 빌려줄 적에는 나쁜 쌀이나 돌이 섞인 쌀을 나누어주고 회수할 적에는 말을 턱없이 고봉(高捧, 말질을 할 때 위로 수북하게 담음)으로 대서 받아냈다.

지주들은 소출의 8할을 소작료로 받았으며 부호들은 1년에 배의 이자를 받는 장리쌀을 풀었다. 끝내 도조와 장리의 대가로 남은 논을 빼앗긴 소작인들은 먹고살 길이 없어 고향을 떠나 떠돌며 밥을 빌어먹기 일쑤였고 중간 지주들은 온갖 명목의 잡세를 내느라 농사를 지어도 손에 떨어지는 것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중간 지주들도 불평불만에 차 있었다. 도시의 떠돌이상인들에게도 난전세(亂塵稅, 가게가

없는 떠돌이 장사꾼에게 매기는 세)를 조금도 빠짐없이 받아갔으며 영세 어민들에게는 하찮은 고기잡이도 무거운 어업세를 물렸다.

민중은 “에이 이놈의 세상 빨리 망해야지” 라고 수군거렸으며 중간층들도 “민가 놈들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불평을 토해내기 일쑤였다. 최하층민인 노비와 백정들은 세상이 뒤집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살폈다. 그런데도 민씨들과 일부 벼슬아치들은 집안 벽장에 금송아지를 숨겨두고 부엌에는 고량진미가 널려 있었으며 공간에서는 고기가 썩어 냄새를 풍겼다. 또 사랑채에는 항상 맑은 술과 청정한 과일이 담긴 주안상이 놓여져 있었다.

대대로 벼슬을 누려온 문벌들은 척사파, 개화파, 수구파 따위로 갈라져 한시도 쉴 틈 없이 정권쟁탈로 날을 지새웠다. 한편으로는 친일파, 친청파, 친미파, 친러파 따위로 갈라져서 아웅다웅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켰다. 옛그제까지는 당파 싸움으로 날을 지새웠는데 오늘에는 일본파, 러시아파 따위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3. 동학교도와 농민군의 연이은 집회

동학교도들은 큰 세력을 기반으로 대규모의 집회를 공개적으로 가졌다. 1892년 처음 공주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 무렵 동학은 충청도와 전라도에 급속도로 번졌고 충청감사 조병식과 전라감사 이경직은 “동학의 금령”을 내걸고 동학교도를 잡아 고문하였으며 무고한 농민들도 연루되어 재산을 갈취 당하였다. 이해 11월 초순, 삼례에서 수천 명의 동학교도와 농민들은 집회를 갖고 1) 교조의 명예회복 2) 탐관오리의 제거 3) 교당의 설치 허가 등 요구조건을 이경직에게 전달하였다.

이경직은 그들의 기세에 놀라 이 요구를 조정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일단 해산하였다. 이 삼례집회에 충청도, 전라도 교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동학이 창도된 뒤 처음으로 연 대규모 집회였다.

1893년에는 보은집회와 원평집회가 열렸다. 보은집회에서는 수만 명의 교도들이 모여들어 서양세력과 일본세력을 배척한다는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를 내걸었다. 조정을 향해 크게 네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교조 최제우의 원통함을 풀어 달라는 것, 둘째 교도의 탄압을 중지하라는 것, 셋째 외국의 세력은 물러가라는 것, 넷째 외국 상품을 배격하고 목면을 입으며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것 등이다.

근래 음성 감곡면 사곡리에 살던 김영상의 『울산일기』에 따르면, 일본과 서양세력을 배척할 것을 앞에 내걸고 민씨 세도를 쫓아낼 것, 집 단위로 거두는 군포세를 없앨 것, 악화인 당오전을 없앨 것, 각 고을의 세미를 바르게 매길 것, 무명웃을 입고 외국의 물품을 팔지 못하게 할 것 등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그 개선을 요구하였다 한다.

또 한 사례를 들어보자. 일본인 복부철(服部徹)이, 동학을 주제로 한 『소설 동학당』(1894년 대판 발행)을 썼는데 저자는 “비록 소설의 형식을 빌렸으나 조선의 지리, 풍속 등은 사실에 맞추어 썼다”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 조선에 다녀왔다고 하였다. 이 사람은 본격적 농민전쟁이 일어나기에 앞서 그 실상을 알렸던 것이다. 이

소설에서 장내리는 삼년성 주변 마을이라 밝히고 그 정경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나무에 “천주 윤족 각대신(天誅尹族各大神)” 이라고 쓴 큰 깃발을 달아놓고 30 명이 한 조가 되어 조마다 작은 깃발을 걸었는데 오늘은 1만명, 내일은 10만명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중략) 죽창, 활과 화살, 대포 등을 모아 놓았다. 그 본거지처럼 삼년성에도 깃발이 펄럭였다. 무장한 당원들이 네 개의 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윤족”은 민씨 족당을 가리키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 묘사대로 보은집회는 단순한 교조신원을 위한 모임이 아니었다. 농민전쟁의 서막이었다. 비록 조정에서 어윤중이 파견되어 회유하고 최시형의 만류로 일단 해산하였으나 그 세력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보은집회의 역사적 의미를 새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한편 원평집회에서도 수만 명이 모여 보은집회의 귀추를 엿보고 있었다. 원평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보은집회의 해산 소식을 듣고 각기 자신이 맡은 접소로 가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정에서는 전라감사나 선유사인 어윤중을 통해 이런 요구조건을 보고 받았으나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전면적인 개혁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쪽의 농민군 세력은 1893년 겨울 고부에서 최초로 봉기하였다. 이들 농민군을 남접(南接)이라 부른다.

전봉준 주도의 고부봉기는 전라감영과 중앙정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부정의 원흉인 조병갑을 파면시키고 현지 조사관으로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했으나 오히려 민심을 더욱 들뜨게 만들었다. 고부봉기는 일시 중지되었으나 언제든 다시 타오를 불씨를 안고 있었다.

4. 1차 봉기는 반봉건 지향

1894년 3월에 전봉준 등 지도부는 무장에서 정식으로 선전포고하였다. 전라도 각지에서 모여든 농민군들은 백산에서 총집결하여 부서를 결정하고 항전을 다짐하였다. 여기에서 농민군들은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매양 대적할 때에 우리는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 이기는 것을 전공으로 삼으며 비록 부득이 싸우더라도 결코 목숨을 상하지 않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매번 행진하여 지날 적에는 결코 사람이나 가축을 해쳐서는 안되며 효제 충신스런 사람이 사는 마을에는 십리 안에는 머무르지 말라(『동비토록』).

동학농민군들은 규율을 엄히 하고 민심을 끌어 들이려 하였는데 실제로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농민군이 온다는 소문을 들으면 밥을 지어오고 양곡을 바쳤다. 전라감영에서는 감영군 700명과 향군 600명을 동원하여 농민군 토벌에 나섰

다. 그들은 양곡을 준비하지 않아 골골마다 들이닥쳐 곡식을 빼앗고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부녀자를 겁탈하였다. 그리하여 감영군이 온다는 소문을 들으면 모두 도망쳐서 마을이 텅텅 비었다.

농민봉기는 동학의 전파와는 달리 역순으로 일어났다. 처음에는 고부 관아를 다시 점령하고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쳐 부렸다. 그러자 중앙에서는 장위영군 800명을 파견하였는데 이들 군사들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고을을 휩쓸면서 횡포를 부렸다.

농민군들은 중앙군을 유인하여 장성에서 관군 선발대를 격파하였다. 이어 4월 27일 전라감영을 점령하였다.

요원의 불길은 4월 초순부터 먼저 남쪽 지방으로 번졌다. 김해에서 수천 명이 관아로 몰려가 부사 조준구를 명석말이하여 지경 밖으로 내몰았다. 경상도 일대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봉기하였다. 충청도 지방에서는 농민들이 때를 지어 양반들을 욕보이기도 하고 곳곳에서 재회(齋會)를 벌였다. 또 회덕과 노성에서는 관아를 습격하기도 하였다. 농민들은 진잠의 신일영 집에 들이닥쳐 신일영(재상 신응조의 손자)의 불알을 까면서 “도둑의 종자는 씨를 말려야 한다”고 외쳤다.

전라감영을 차지한 농민군들은 중앙군 사령관인 홍계훈과 협약을 맺었다. 홍계훈은 폐정을 중앙에 보고하여 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를 오지영의 『동학사』에서는 12개 폐정 개혁을 약속하였다고 하나 신분제도, 토지제도의 개혁과 여러 정황으로 보아 12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기보다 당시 농민들의 여러 요구조건을 뭉뚱그려 적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농민군은 일단 후퇴하여 각지에 집강소를 차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폐정의 개혁에 나섰다.

1차 봉기는 전라도 농민군들이 주도하였고 충청도와 경상도의 농민군들이 측면에서 호응하였다. 집강소기간에도 이런 구도와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전쟁의 중심권이 아니었던 충청도의 서쪽해안지대와 전라도와 경상도의 남쪽지대에서 새로 봉기하여 소규모의 집강소활동을 전개하였다.

집강소는 농민통치기구였고 집강소활동은 반봉건운동이었다. 세도가와 관리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양반 상놈을 가리는 신분차별을 없애고 농민에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주고 부채를 탕감하는 일을 벌였다. 그 한 가지 보기를 들면 이러하였다. 황현은 『오하기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적당이 모두 천인 노예여서 양반과 사족을 가장 미워하였다. (중략) 무릇 남의 노비로 적을 따르는 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록 적을 따르지 않는 자도 모두 적들에 묶여 상전을 겁주었다. 그래서 노비문서를 불태워 강제로 해방하여 양인으로 만들게 하였다. 혹은 그 주인을 결박해서 주리를 틀고 매질을 하였다. 노비를 둔 자들은 지레 겁을 먹고 노비문서를 태워 그 화(禍)를 풀었다. 순박한 노비들이 더러 태우지 말기를 원하였지만 기세가 원체 거세어 노비 상전들이 더욱 두려워하였다. 혹 사족이나 노비 상전들이 노비와 함께 적을 따르는 자들은 서로 집강이라 불러 그 법을 따랐다. 백정 재인들이 평민 사족과 맞절을 하자 사람들은 더욱 이를 갈았다.

이 대목은 노비들의 처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순수한 농민들도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여러 활동을 벌였던 것이다. 서로 접장이라 불러 평등을 구현하려 하였다. 이는 당시의 사회를 평등으로 만들려는 노력이었다.

5. 2차 봉기는 반침략 전쟁

늦이 나간 민씨 정권은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일본군도 군대를 파견하였다. 일본군은 6월 21일 불법으로 경복궁을 점령하여 주권을 유린한 뒤에 군사 지휘권을 거머쥐었다. 그래서 나라는 반식민지 상태로 접어들었다. 일본군은 청일전쟁을 유발하였다. 청일전쟁이 경기도, 평안도에서 전개될 때인 7월 무렵에 농민군의 봉기는 산발적이기는 하나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로 확산되었다.

이해 9월 전봉준 등은 전라도 농민군에게 동원령을 내려 삼례로 모이게 하였다. 전봉준은 곡식이 익기를 기다렸다가 이때에 일본과 정면 승부를 겨루려고 모든 농민군을 집결케 하였던 것이다. 전봉준은 삼례에 전라도 창의대중소(倡義大衆所)를 두었다.

삼례에 많은 농민군들이 모여들었다. 전봉준은 여기에서 머물면서 김개남 등 농민군 지도자들에게 호응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늦가을의 추위에 대비하여 짚신을 만들고 옷을 짓게 하였으며 양곡을 비축하고 대나무로 죽창을 만들었으며 위봉산의 무기를 거두어들였다. 한편 충청도에 전령을 띄워 양곡과 짚신, 연초 등을 준비해두라고 요청하였다. 대원군과 연계를 모색하였고 북점의 호응을 요구하는 밀사를 보내기도 하였다. 전봉준은 마침내 북점의 호응을 얻었다.

북점에서는 관군들이 계속 동학교도들을 탄압하고 일본군의 침략행위가 더욱 정도를 더해 가고 전국의 교도들이 봉기 명령을 내려달라는 빗발치는 재촉을 받았다. 그 동안 최시형은 신중하게 정세를 관망하며 때를 기다렸다. 이때 교단 지도부에서도 전면적 봉기를 주장하였다. 손병희 등 중견들이 앞장서 봉기를 서둘렀다. 최시형은 마침내 “앞아서 죽겠는가?” 라고 분연히 외치고 전국에 대동원령을 내렸다.

이 대동원령은 강원도, 경상도, 황해도 등지의 농민군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냈다. 그리고 농민전쟁을 전국적 규모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동안 이들 지역 동학교도들은 대접소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청산, 옥천 등지에 충청도 농민군을 주축으로 일부 경상도 농민군이 합세하였다. 이 때 모인 농민군이 10만 명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손병희 지휘아래 논산으로 집결하였다. 하지만 일본군은 다른 지역의 농민군이 논산, 공주로 합류하는 길을 완전 통제하였다. 그런 탓으로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 해안지대의 농민군은 오던 길로 뒤돌아 갔다.

전봉준은 북점의 연합전선 동의에 고무되어 직속부대 4천명을 이끌고 여산, 강경을 거쳐 은진, 논산으로 북상하였다. 충청북도와 전라도의 농민군이 주축이 된 두 세력은 논산에서 만나 굳게 손을 잡고 이윽상 등 현지 농민군들과 함께 노성, 공주로 진격하였다. 이 무렵에는 청산 논산-삼례 논산의 주력전선 이외의 지역에서 지역성을 띠고 곳곳에서 봉기하였다. 전국이 들끓었다. 농민군 세상이 완전히 이루어

진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서울사람들도 술렁거리면서 피난 보따리를 이고 가고 외곽도로를 메울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 이 무렵 목천 세성산에서는 관군과 농민군이 맞붙어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농민군 수백 명이 몰살되는 일도 벌어졌다. 공주전투의 전초전이었다.

아무튼 공주에서 농민군 연합부대와 관군-일본군 연합부대는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20일쯤 대치하거나 전투를 벌였는데 농민군들은 폭설이 내리고 추운 날씨인데도 솜옷을 입지 못하고 맨발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 정경을 이렇게 적었다.

아아, 저 몇 만 명의 비류들이 4~5리에 뻗쳐 포위해 왔다. 길이 있으면 빼앗고 높은 봉우리를 다투어 차지하였다. 동쪽에서 소리치면 서쪽에서 달려가고 왼쪽에서 번쩍이다가 오른쪽에서 튀어나와 깃발을 휘두르고 북을 울리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먼저 올라 왔다. 저네들은 무슨 의리이며 저네들은 무슨 담력인가? 그들의 행동을 말하고 생각하니 뼈가 떨리고 마음이 서늘해진다(『공산초비기』).

농민군은 이렇게 용감하게 싸웠으나 11월 9일 우금재 전투에서 일본군의 기관총 따위 신무기 앞에 패배하고 말았다. 전봉준은 노성으로 후퇴하여 우리의 군사와 벼슬아치, 시민(장사꾼)에게 “나라를 위해 힘을 합하자”는 글을 피를 토하듯 띄웠다. 잔여 농민군들은 뿔뿔이 흩어져 갔다.

2차 봉기가 단행될 때에 김개남이 거느린 농민군 수만 명은 금산, 대전(당시는 한밭)을 거쳐 청주로 진격하여 청주병영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청주전투는 전라도와 충청도 농민군의 연합으로 수행되었다. 이어 공주에 합류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음 김인배 장군의 활동은 광양, 하동, 진주에서 화려하게 전개되었다. 이해 8월에 김인배는 농민군을 이끌고 하동, 진주일대로 진출하여 그곳 농민군과 합세하여 진주병영을 점령하였고 사천, 곤양, 산청 등지를 석권하였다. 전라도와 경상도 농민군의 연합전선이었다.

충청도의 외곽지대에도 전투가 크게 벌어졌다. 이해 10월 전라도 충청도 연합 농민군들이 한산, 서천의 관아를 점령하였으며 내포 평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다른 농민군들은 홍성, 덕산, 예산을 석권하면서 일본군 관군과 전투를 벌였다. 또 내륙의 황간, 청산, 영동, 무주, 금산지방에서도 수천 명씩 모여 민보군과 전투를 벌였다.

경상도 내륙지방도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였다. 상주, 김천, 예천, 안동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예천, 상주 등지의 농민군들은 6월부터 대규모로 세력을 늘려 부정한 벼슬아치와 양반을 징치하였다. 주변에서는 곳곳에서 농민군과 민보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황해도로도 번졌다. 10월 6일 김구 등 농민군들이 봉기하여 황해도감영을 차지하였다. 해주 아래 지역은 거의 농민군의 수중에 있었다. 강원도에는 충청도와 강원도의 연합 농민군이 영월, 평창, 양양 등지를 석권하고 강릉 관아를 차지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다. 강원도 내륙의 차기석 부대는 홍천에서 수백 명이 몰살하는 전투를 벌인 뒤에 설악산 아래 지역에서 유격전술로 맞섰다. 이렇게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의 농민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기도 하였고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와 강원도, 황해도와 평안도의 농민군이 연합하여 봉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평안도와 함경도의 농민군은 그 활동상이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평안도는 당시 청일전쟁의 중심지역이어서 처참할 정도로 집이 불타고 피난을 가는 사정이었다. 또 서북지방은 당시 동학조직이 거의 없었던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아무튼 전봉준 손병희가 이끄는 농민군은 남쪽으로 후퇴하면서 원평전투, 태인전투를 벌인 것을 끝으로 주력전선은 무너졌다. 또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 농민군은 임실에서 최시형을 만나 함께 북상하여 장수, 무주를 거쳐 호서지방으로 북상하였다. 이들은 영동 읍내와 영동의 용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보은 읍내를 거쳐 12월 17일 보은의 북실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인 뒤에 해산하였다.

충청도 지역의 전투는 공주 이외 세성산전투, 청주성전투, 홍성전투, 북실전투를 가장 격렬하였던 사례로 꼽으나 북실전투가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북실은 한자로는 종곡(鐘谷)으로 표기하는 분지의 마을이다. 농민군들은 장거리를 행보하면서 전투를 벌이고 추격을 당하고 추위에 떨며 굶은 상태에서 북실에서 잠시 휴식을 가지려 하였다. 일본군과 상주의 유격병은 이해 12월 17일부터 북실을 습격하였다.

농민군들은 전투를 벌이면서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도망치다가 잡혀 죽기도 하였다. 일본군에서는 사살자를 300여 명으로 보고하였으나 유격장인 김석중은 『토비대략』에서 이 일대에서 모두 2,600여 명을 사살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니 2일 동안 1만여 명이 넘는 농민군 중에 그 4분의 1이 죽은 셈이다. 잔인한 학살이었다. (신영우의 「동학농민군의 북실전투 전개과정」 참고)

한편 장흥, 강진에서 최후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해 11월 말경과 12월 초순, 동쪽으로는 여수, 순천, 광양의 농민군들과 서쪽으로는 해남, 무안, 함평의 농민군과 북쪽으로는 광주, 나주의 농민군들이 장흥, 강진방향으로 몰려왔다. 여수 좌수영과 순천부를 공격하다가 실패한 농민군들과 나주 고막원과 나주관아를 공격하다가 실패한 농민군들이 좌선봉장 이두황과 우선봉장 이규태 그리고 일본군의 압박에 밀려 장흥의 이방언 휘하에 몰려왔던 것이다.

12월 초순부터 이곳 농민군은 강진, 장흥을 석권하였으나 12월 15일 석대들(장흥읍)전투와 12월 17일 고읍(관산읍)전투를 끝으로 하여 해산하였다. 장흥전투에 참여한 농민군은 내부 연합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곧 공주, 논산전투에 참여한 농민군이 남쪽으로 후퇴하였고 이들이 나주공방전을 벌인 끝에 장흥, 강진으로 남하하였으며 경상 전라 연합군으로 편성된 김인배 휘하의 농민군은 여순지역에서 광양전투를 최후로 하여 패전하자 이들 잔여 농민군의 일부는 장흥으로 진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장흥에는 전라좌우도의 잔여 농민군이 총결집한 것이다.

다음해 1월 24일, 대둔산에 주둔해 있던 소규모 농민군(30여명)이 이두황이 이끄는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다. 이 항전은 토벌과정에서 이루어져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6. 농민군이 지향한 시대정신

농민전쟁의 참가층은 동학교도는 물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주체세력으로 사회신분에 따라 몰락양반, 퇴직관리, 일반 평민, 노비, 백정 등이 참여하였다. 주체세력을 경제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중소지주, 소작농, 소상인, 머슴 그리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뢰배들이 참여하였다.

더욱이 주도 계층은 농촌 지식인이었거나 전관의 벼슬아치와 중소지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광범위한 세력들이 참여한 것은 전통적 신분질서와 민씨 세도정치 독점, 그리고 일본 등 제국주의의 경제침탈에 불이익을 받는 현실조건 때문이었다.

이렇게 광범위한 세력과 여러 계층이 참여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봉기한 탓으로 그 규모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컸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맨주먹이나 쪽 해야 죽창을 쏘나들고 저 무지막지한 관군이나 일본군에게 목숨을 던지며 싸웠던가? 그들이 지향한 바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겠다.

첫째는 반봉건(反封建) 운동이었다. 사회신분으로는 양반과 상놈, 노비와 백정을 없애고 평등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경제수준으로는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개선하고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직업의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다. 또 족벌의 세도정치, 관리의 부정부패를 타도하려 하였다.

둘째는 반침략(反侵略) 운동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주권을 멋대로 쥐고 주물렀다. 개항 이후 나라꼴은 바로 반식민지상태였다. 농민군들은 유린되는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우월한 자본주의 국가의 상품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다. 특히 일본이 금은과 식량을 수입해 가고 옥양목, 사치품 등을 수출해서 농민이 파산하여 기아에 허덕이는 상태를 해결하려 하였다.

7. 오늘날의 역사적 의미

우리는 위에서 여러 가지 폐정개혁의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았다. 그 동안 연구자들은 민씨 정권의 타도는 분명히 제시했으나 고종의 퇴위 또는 군주제의 철폐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였다는 한계를 지적해 근대성의 결여를 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폐정개혁의 분석 등을 통해 근대지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연구가 기본 흐름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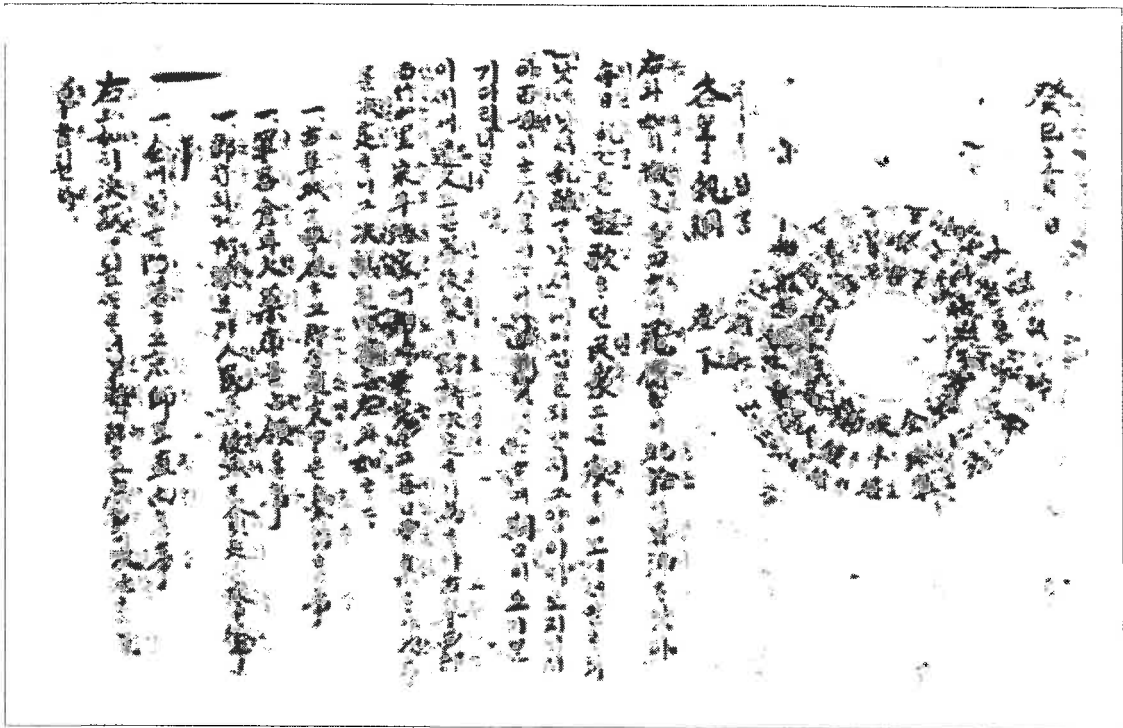
농민군의 정치체제 구상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전봉준은 민씨 정권을 타도한 뒤 “임금 곁을 깨끗이 한 뒤에 몇 사람 주석(柱石)의 선비를 내세워 정치를 하게하고 우리들은 농업에 종사할 것이라” 고 말하였다. 곧 전제 군주제가 아니라 합의법에 따른 대의제 또는 농민적 집단체제를 구상하였다 한다(우윤의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참고).

아무튼 농민군의 근대적 지향(혁명의 완수)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를 실패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혁명은 한 시대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세계사를 통해 존재하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이 그 좋은 보기가 될 것이다. 프

랑스 혁명의 이상인 자유·평등·박애는 1백여 년 이상 꾸준히 추구하여 왔다.

비록 실현되지 못한 역사였으나 그들이 추구하고 지향한 시대정신은 우리의 유산 일 것이다. 오늘날 양반 상놈이 있는가? 오늘날 소작료를 가혹하게 착취하는 지주가 있는가? 이 점으로 보면 농민군의 이상은 실현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갈등과 모순은 널려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실현되었으나 이기집단과 양극화 현상, 지역갈등, 남북모순, 강대국의 개입 등 여러 모순이 영켜 있다. 농민군의 시대정신의 실현은 바로 이를 하나씩 풀어가는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발통문]

호소문이나 격문 따위를 쓸 때에 누가 주모자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발 모양으로 둥글게 뺄 돌려 적은 통문.

동학! 농민혁명과 만나다

신 영 우 (충북대 사학과 교수)

신분제 부정과 반외세의 교리를 갖고 있는 동학은 1894년의 농민혁명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국근대사의 전기를 이루는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동학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과 농민운동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그 핵심을 이룬다. 동학이 농민운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는 농민층이 동학에 어떻게 다가가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1. 1894년 충청도 직산에서 활동한 한 동학농민군의 사례

박용석(朴用石)은 1869년 전라도 전주에서 양반가문의 서자(庶子)로 태어났다. 본관은 밀양 박씨였고, 독립자는 홀 규(圭)이다. 어린 시절 박용석의 삶은 고달팠다. 적자(嫡子)와 차별이 이만저만 아니었기 때문이다. 질시(嫉視)와 천대(賤待)를 받으며 자라나던 박용석에게 가장 한 맺힌 일은 제삿날에 벌어졌다. 제사상을 차리고 위패를 모신 대청에는 서족들이 오르지 못하였다. 적손들만 대청에서 참례하였고, 서족들은 마당에서 참례하였다.

성장한 이후에도 이런 적서(嫡庶) 차별이 계속되었다. 박용석은 격분해서 대청 위에 올라가 제사상을 뒤엎으며 격렬하게 항의를 하였다. 그리고 집을 나왔다. 스물한 살 되던 해였다.

무작정 집을 나온 박용석은 충청도 논산으로 갔다. 가다가 머문 곳이 노성면 효죽리였다. 빈손으로 나온 그가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것은 머슴살이 방법뿐이었다. 그리 넉넉지 않은 전주 이씨 농가에 들어가 머슴을 살게 되었다.

젊은 머슴은 성심성의껏 일을 했다. 주인이 머슴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다. 마침 혼기에 찬 딸과 혼인을 시켰다.

박용석은 두 살 아래 1871년생인 부인과 살림을 차려나가야 했다. 하지만 처가도 어려운 생활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스스로 일가를 꾸려나가기 위해 방도를 찾아야만 했다.

어떤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박용석은 직산 땅까지 찾아갔다. 직산에서는 금을 캐는 광산에서 광부를 모집하였는데 여기에 일자리를 찾은 것이다. 땅 한 피기 없는 가난한 젊은 부부는 연고가 없는 외지였던 직산현 이남면 천홍리의 광산 마을에 보급자리를 틀었다.

광산이 생기고 갑자기 지은 집들은 보잘 것이 없었다. 흙과 돌을 쌓은 터에 방 한 칸 부엌 한 칸을 만들어서 거주하였다. 이런 집들은 최근까지 남아 있었는데 천홍

리 광산마을에는 해방 이전까지 240세대나 지어졌다.

강화도조약 이후 열강과 국교가 확대되자 이권 획득에 눈독을 들인 외국인들이 직산 금광의 채굴권을 차지하려고 시도하였다. 먼저 채굴을 시작한 사람들이 서양인이었고, 1900년에는 일본인들이 정부에 강요해서 강제로 채굴권을 빼앗았다. 박용석이 직산 금광의 광부로 들어간 시기는 서양인이 채굴을 하면서 인부를 모집할 때였다.

논산 효죽리에서인지 아니면 직산 천흥리에서인지 박용석은 동학을 알게 되었다. 아마 동학은 대단한 흡인력을 가지고 이 젊은이의 마음을 파고들었을 것이었다. 동학은 신분과 남녀 그리고 노소의 차별을 부정하고 모두 평등하다고 가르쳤다. 또한 일본과 서양이 조약을 맺고 침범해오는 형세에 대해 위기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박용석은 젊은 나이에 이러한 내외의 문제에 직접 맞닥치는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894년이 오기까지 박용석은 패기만만한 젊은이로 살아왔다. 천흥리 윗마을과 송남리(송당리 남창리) 아랫마을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석전(石戰)이라고 해서 돌싸움 놀이를 했다. 정월 대보름에 두 편으로 가른 다음 상대방에게 돌을 던져서 승부를 가르는 민속놀이였다. 사상자가 나도 예사로 알았던 이 놀이는 경향 각처에서 벌어졌는데 일본사람들이 무예연습이라고 싫어해서 금지해서 사라지게 되었다.

박용석은 힘이 장사였다. 잠방이를 입고 대담 치고 자갈을 가득 괴타리 속에 넣고 돌팔매장으로 가서 쏟아놓으면 장정 짐으로 한 짐이 되었다. 석전에서 활약한 모습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동네노인들이 그의 손자에게 전해주던 단골 이야기였다. 키가 크고 용맹스러웠다는 말도 같이 하였다.

박용석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음력 1894년 7월 1일이었다. 하지만 희망이 넘치던 이 집안에 역사의 소용돌이가 몰아쳐 오는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박용석의 집에는 갑오년에 손님들이 자주 왔다. ‘두어 서넛’ 씩 왔는데 방이 한 칸밖에 없어서 자고 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혼자 남은 아기 엄마는 뒷날 손자에게 “네 아버지 낳아놓고 석 달 만에 동학에 들어간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다.” 고 전해 주었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는 세성산에서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다.” 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박용석에게 일어난 것이었을까?

직산을 비롯하여 인근 천안 목천은 동학 거두 김복용(金福用)의 영향 아래 있던 지역으로서 김형식(金滢植), 김용희(金鏞喜)가 이들 지역의 동학도들을 통할(統轄)하였는데 그 세력은 방대하였다. 음력 8월(양력 9월 26일) 일본 순사의 상신서¹⁾에는 “천안 군민 중 10중 8, 9명은 동학당에 가맹하고 있고 더욱더 성대(盛大)해가는 경향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의 경복궁 기습과 정치 간섭을 자행하는 국가의 위기에 맞서 재봉기한 이후 이 지역은 중요한 전략 거점으로 부각되었다. 동학농민군이 서울을 향해 북상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일대의 동학농민군은 천안과 평택 등지의 관아에 보관된 무기를 빼앗아서 세성산 근거지에 보관하였고, 수천의 동학농

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22쪽

민군을 맞기 위해 군량미도 확보해 놓았다.

경군(京軍) 장위영 병대가 깃발을 여럿 세워놓은 동학농민군의 세성산 근거지를 공격한 것은 10월 21일이었다. 이두황(李斗曠)의 진압군은 세성산을 동남쪽에서 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자 동학농민군은 희생자를 남긴 채 성을 버리고 서쪽으로 흩어졌다. 22일에는 기전소모관(畿甸召募官) 정기봉(鄭基鳳)이 목천으로 들어와 동학 좌우도도금찰(左右道都禁察) 이희인(李熙人)을 비롯하여 한철영(韓喆永) 등 60여명을 잡아서 이 두 사람과 주모급 12명을 포살하였다. 24일에는 갈전면(葛田面)에 모인 수백 명을 공격하여 총(銃)·창(槍)등 100여 자루를 빼앗았다.

세성산에서 진압군이 빼앗은 동학농민군의 무기와 군수물자는 매우 많았다. 장위영 병대가 노획품 중 주요한 것만 들면 다음과 같다.

조총 140자루, 창 288자루, 거마철(拒馬鐵) 32개, 정(釘) 5좌, 북 3좌, 나팔 2개, 장전(長箭) 3천3백 개, 편전(片箭) 2천개, 청국탄환 26개 반(2만 6천 5백 개), 철환(鐵丸) 35만 6천개, 화살촉 2천개, 대소 깃발 30면, 백미 266석, 정조(正租) 367석, 콩 12석, 소금 3석.

부인 전주 이씨는 집 나간 남편을 무려 7년 동안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친정에 가서 살기로 했다. 2킬로미터 되는 남산 방죽까지 가자 같이 가던 아이가 울며 뒹굴었다. 가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천홍리로 되돌아왔다.

금광에는 여자들도 일을 할 수 있었다. 광석과 폐석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여자들의 품팔이도 농사짓는 것보다 나왔다. 그러나 아무 가진 것 없이 그리고 남자가 없이 집안을 꾸려나가는 것은 힘에 겨웠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손에 호미를 잡고 일하는 것을 싫어했다. 동네에는 강씨라는 분이 있었다. 전주 이씨는 자식이 없는 강씨에게 아들을 양자로 보냈다. 이 강씨는 양딸을 또 키웠는데 둘이 장성하자 혼인을 시켰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직산 광산에 들어가서 평생 일을 했다. 평소 과묵해서 말이 없었지만 제삿날이면 “갑오년 동학란 때 행방불명이 된 아버지” 이야기를 하였다.

그 손자도 금광에서 광산노동자로 일을 했다. 직산은 행정구역이 바뀌어 천안 성거읍 천홍리가 되었고, 큰 광산회사인 중앙금광이 채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한 것이다. 그런데 6·25 사변 나고 정전이 되었을 때 사고가 났다. 미군부대에서 화약을 구해서 뇌관에 연결할 때 줄로 뇌관을 잘라내다가 터져서 손을 다쳤다. 손자는 광산 일을 더 하지 못하고 인천으로 가서 목수로 25년 동안 일했다. 거기서 4남매를 출가시키고 고향 천홍리로 돌아왔다.

손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되었는가 생각했다. 어렸을 때 한산 이씨와 언양 김씨네가 가을에 시향을 지내는 것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어른 손을 잡고 뒷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왜 우리는 3촌도 4촌도 없이 외톨이나?” 고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 때 할머니가 하신 말이 “네 아버지 낳아놓고 석 달 만에 동학에 들어간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다.” 는 말이었다.

동학이 무엇인가? 할머니와 부모 그리고 자신에 이르도록 3대에 걸쳐서 어렵게 살도록 만든 동학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했다.

손자가 생각한 동학농민군이 한 일은 엄청난 일이었고, 훌륭한 일이었다. “우리

생각에는 꿈같은 이야기죠. 이런 세상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담이 컸다고 보는 거. 아무 무기도 없던 군대가 그런 큰일을 하는 것을 보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여. 제사 때마다 애들한테 내가 이야기한 거여.”

인천에 있는 회사에서 숙직을 하던 증손자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동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2004년 6월 11일 밤 1시에 KBS에서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문영식 선생이 나온 화면이었다. 그래서 아침에 담당 PD에게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하게 되었다. 손자는 태안까지 찾아가 가입을 했다.

2. 동학은 1894년의 농민군의 활동과 어떤 관계인가?

동학농민혁명을 가리키는 역사용어는 다양하고 많다. 한국통사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의 사건을 이처럼 각기 다른 여러 개의 용어로 쓰는 예가 없다. 2004년 2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에서 공식 명칭을 동학농민혁명으로 사용하고 있고, 연구자들도 점차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는 몇 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이 글의 주제에 따라서 살펴보면, 첫째가 동학을 앞에 붙여서 만든 용어로서 동학란, 동학혁명, 동학운동,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봉기, 동학혁명운동, 동학농민혁명이 있다. 둘째는 동학을 앞에 붙이지 않은 용어로서 갑오농민전쟁, 갑오농민봉기, 1894년 농민전쟁 등이 있다. 셋째는 갑오동학농민운동과 같이 성격이 명확하지 않게 용어를 쓰는 것이 있다.

동학란은 1894년 당시 왕조정부와 양반지배층이 이 사건을 표현한 용어로서 이밖에도 동학당의 난, 동비(東匪)의 난 등으로 불렸다. 왕조에 대한 병란으로 보는 시각은 유학자들의 기록과 관찬문서에 동일하게 나온다. 이것은 동학이란 사교가 백성을 현혹시켜서 일으킨 변란이라는 의미였는데, 중국의 백련·홍건적의 난과 같은 구조로 보는 것이었다. 일본 공사관이나 일본군의 기록에서도 「동학당의 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중국도 동학당의 변란[變]으로 썼다.²⁾

유학자들의 유교사관에 의한 용어 선택을 논외로 한다고 해도 연구자들이 다양한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왜일까? 아니 왜 연구자들이 통일된 용어를 찾아내서 함께 쓰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역사용어가 갖는 가치평가 때문이다. 누가 특정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 용어가 갖는 가치평가를 인정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역사사건을 연구한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특정한 역사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연구에서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보는 다양한 시각차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동학농민혁명의 연구과정을 정리하는 연구사 관련 논문이 양산

2) 중국에서도 다음처럼 같은 의미의 용어를 사용했다. 『清史稿』[光緒二十年(1894)]四月, 朝鮮東學黨變作. 東學者, 創始崔福成, 刺取儒家·佛·老諸說, 轉相衍授, 起於慶尙道之慈仁縣, 蔓延忠清·全羅諸道

되는 한편 “동학혁명인가 농민전쟁인가”와 같은 개념논쟁이 한 동안 벌어졌는데 이는 한국사학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매우 드문 현상이었다. 이 논쟁은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논쟁의 추이를 살펴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역사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1894년 봄의 1차 봉기는 동학농민군이 사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일어나게 된다. 이에 관해 동학과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두 주장의 내용을 들어보고 절충론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견해에 관해 간략히 살펴본다.

1) 동학을 강조하는 주장

동학의 계승을 중시하는 천도교는 이 사건에서 동학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사를 서술할 때 일찍부터 동학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연구자들 중에서 동학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동학사상의 혁명성을 중시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농민전쟁의 지도원리가 된다고 보고 있다.

초기연구자로서 후대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김상기(金庠基)는 『동학과 동학란』에서 교조 최제우를 조선의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³⁾로 보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동학이 한 역할이 프랑스혁명에서 계몽주의가 기능한 것과 같다는 견해였다.

이 견해의 기본 구조는 동학의 사상과 동학의 교조신원운동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을 내적 연관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학사상이 갖는 변혁사상의 성격은 동학농민군 지도자인 하층간부가 실천적으로 해석해서 혁명의 원리가 되었으며, 분산 지역 한계가 있던 민란을 전국·통일성을 가진 동학농민혁명으로 끌어올렸다는 주장이다.

동학사상은 인간평등사상, 현실부정사상, 민족주의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 불평등을 타파하고 정치사회면에서 실천의 원리로 발전해서 혁명의 이념이 되었다는 이 주장은 동학이 없으면 이 거대한 변혁운동도 없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을 동학의 종교사회운동으로 보기까지 한다.⁴⁾

2) 농민전쟁론

동학의 역할보다 동학농민혁명에서 농민층의 역할을 주목하는 이 견해는 사회경제사학자들이 주장해 왔다. 기본 구조는 조선후기 사회경제상의 변화와 민란을 주목하고, 동학농민혁명을 그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즉, 철종대 임술민란의 발생 원인은 조세수취상의 문란과 지배층의 가혹한 착취가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농민층 분해와 신분재편성에 의한 사회변화가 농민층의 사회의식을 고양시

3) 루소는 프랑스혁명에서 현대의 쿠바혁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저술을 냈다. 『인간불평등 기원론』은 인간의 불평등을 존속기반으로 삼는 사회와 그 사회에서의 생활방식을 고발한 것이고,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어떻게 해서 창출해 내느냐를 논한 것이다.

4) 이 주장은 당시 정부와 일본 진압군이 변란과 참화의 원인을 동학에 책임 지우려고 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김으로서 양반층의 세력이 강했던 삼남의 여러 군현에서 민란이 대거 발생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변혁운동의 동력이 동학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1894년에 거의 전국에 걸쳐 농민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서 동학사상은 농민전쟁의 사상과 이질적이어서 동학은 농민전쟁의 지도이념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1893년의 복합상소문을 분석하면서 그것이 유교사회를 부정하는 암시조차 하지 않았고, 동학은 종교의 발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삼강오륜과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이념에 충실한 교리는 사회운동의 일정한 범주를 넘어설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농민전쟁은 어떠한 동력으로 수많은 농민군을 죽음을 무릅쓰고 봉기에 참여하게 하였을까? 그것은 혁명의 추진력은 동학교문이 아니라 전봉준 등 남접의 지도자들이 가진 변혁사상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개혁운동의 흐름을 보온 장내리집회를 주도한 교문의 지도부가 아닌 금구 원평집회를 이끈 뒷날 남접의 지도부가 되는 인물들을 중시하게 된다. 그리고 전봉준을 동학과는 별개인 개혁사상가라고 보고 있다.

이상의 두 주장과 다른 것이 절충론이다. 이 주장의 기본 구조는 동학의 교리가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이념은 아니었으나 현실부정의 개혁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동학의 조직이 전국에 걸쳐 봉기에 매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하였다는 주장이다. “동학은 갑오농민전쟁의 본질을 규정하는 요인은 아니어도, 봉건적 억압 하에서 농민이나, 천민, 일부 몰락 양반들이 일정한 계층적 이해 욕망 요구를 반영하는 종교적 외피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동학이 포교를 공인받으려는 교조신원운동을 통해서 농민군의 주체세력이 형성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동학 지도자들의 신분과 사회 상황이 동학을 종교로 그치지 않고 추진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사상과 종교 그리고 조직으로서의 동학이 일반농민과 결합을 강조하는 결합설이 있는데 이는 “사상 종교로서의 동학을 매우 독창적인 평등사상과 휴머니즘을 창도한 획기적인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동학이 농민전쟁에 상상 이념과 조직을 공급하여 동학과 농민전쟁이 결합” 했다는 해석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주체인 동학농민군에는 동학교도가 많았는가? 아니면 동학교도가 아닌 농민이 많았는가? 고부에서 처음 기포했을 때는 일반 농민이 많았다고 한다. 「전봉준공초」의 다음 구절은 그 내용을 보여준다.

問 古阜起包時 東學多乎 冤民多乎

(고부 기포시에는 동학이 많았는가? 원민이 많았는가?)

供 起包時冤民東學雖合 東學少 而冤民多

(기포시에는 원민과 동학이 비록 합하였으나 동학은 적고 원민이 많았다.)

동학혁명으로 용어를 쓰는 경우가 아니면 갑오농민전쟁이나 동학농민봉기나 모두 농민을 이 용어에 넣어서 쓰고 있다. 이 농민이란 용어는 주체를 표현하는 것인데

역할에 따라 지도부, 주도층, 참가층을 구분할 수 있다.

지도부에는 남접의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과 북접의 최시형, 손병희, 손천민 등이 포함된다. 주도층은 각지에서 활동하던 수접주 접주 등과 군사지도자의 직함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동학과 직접 연결되는 인물들이다.

참가층은 오래된 동학교인과 함께 ‘신입도인’이 들어가고, 또 동학과 거리가 있던 농민들도 포함된다. 바로 원민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고부기포 당시에도 원민이 동학교인보다 많았다면 2차 봉기 당시에는 원민이 더 많았을 것이다.

1894년에 대거 가세해온 신입도인들은 일정한 포덕 형식을 밟고 동학에 가입해서 활동하였다. 마당 포덕이라고 해서 마당에 신입교인들이 가득 모여서 입도 의식을 치루고 조직 활동을 벌였다.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에서 전개되었다. 지역별로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여 활동한 사람들의 수는 ‘수십만’이라고 하지만 통계를 낼만큼 확실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지역별로 보면 처음 일어난 지역인 전라도가 많다. 그러나 전라도에서 활동한 동학농민군도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전라도에서 온 사람보다 많았다.

「전봉준공초」의 다음 내용은 그 사실을 잘 보여준다.

問 入全州時 招募軍士 全羅一道人民都聚乎

(전주에 들어가 군사를 초모하였을 때 전라일도 인민이 도취하였는가?)

供 各道人民稍多

(각도 인민이 조금 많았다.)

問 向公州時 亦各道人民稍多乎

(공주로 향하였을 때 역시 각도 인민이 좀 많았는가?)

供 其時亦然

(그 때도 역시 그러하였다.)

전주에 들어가서 세력을 확대했을 때도 전라도에서 온 사람보다 각도에서 온 사람이 많았다면 충청도와 경상도 등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합할 경우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성이 어떤 의미인지 드러난다. 동학농민혁명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계층만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해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거의 전국에 걸쳐 다양한 사람들이 봉기해서 전개한 것이다. 따라서 전라도에 한정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성을 강조한다거나 혁명의 발상지와 첫 기포지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일부만 내세워서 전체를 덮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동학농민혁명이란 용어의 농민은 주체를 가리키는 의미인데 학술용어로 사용하는 경우 대개 농민을 포함하고 있다. 농민이 빠진 경우는 동학란, 동학혁명, 동학운동과 같은 것인데 동학이 주체라는 것이다.

당시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였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많은 농민들이 지주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였다. 농사를 짓고 수확한 곡식은 지주와 소작인이 병

작반수라고 해서 절반을 지대로 납부해야 했다. 가족노동을 통해 이뤄낸 수확은 제한되는데 반씩 나누면 농민들은 일 년 간 살아남는데 필요한 양식을 남기기 어려웠다.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였다.

그 위에 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을 왕조정부의 각 기관에 조세로 납부해야 했다. 이 조세 수취량이 적지 않은데 부정과 부패 그리고 조세 수취구조의 전근대성으로 인해 농민들은 생존에 위협을 느낄 만큼 많은 수확물을 바쳐야 했다.

이런 문제에 불만을 갖게 된 농민들이 사회개혁과 부패척결을 주장하면서 봉기를 시작한 것이 철종대의 임술민란이었고, 그러한 항쟁이 고종대에 계속 이어져서 최대의 항쟁으로 확대된 것이 동학농민혁명이었다.

따라서 동학농민군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이란 말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당연히 동학도 농민층의 지지를 받으며 교세를 확대할 수 있었다. 1894년에 동학에 대거 합류한 신입도인들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농민이란 말을 제외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동학교도보다 원민이 더 많았다는 전봉준의 공초 내용을 보더라도 동학만으로 이 대사건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반대로 동학을 용어에서 지우려고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동학의 조직이 동학농민군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아는 내용이다. 신입도인의 수가 많았던 것은 물론 동학과 관계가 없이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여 활동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에 편제된다는 것은 대체로 동학에 입도하는 절차를 밟은 것을 의미하였고, 동학 조직인 포접(包接)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상도 고성부사로 재임하다가 교체가 되어 서울로 가던 한 관료가 용인에서 숙박하며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이것은 1894년 9월의 사정을 잘 알려주고 있다.

“밤이 깊어 문밖 거리에서 남녀가 암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司果)가 말하기를 어찌 거리에서 글을 읽고 있습니까? 나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진정 별세계에서 왔군요. 나는 고성에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보아온 것은 짐을 진 사람이나 머리에 인 사람이나 발을 가는 사람이나 나무하는 사람들이 입을 열고 끊임없이 하는 말은 모두 저 소리이니 이른바 동학주문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의아했지만 들은 지 오래되니 지금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는 동학의 교세가 매우 컸던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동학농민군이 동학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하였던 분위기를 전해주는 것이다.

이때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 점거한 사실이 전국에 퍼져서 모두 외침의 위기감이 갖고 있던 시기였다. 일본세력을 내쫓기 위한 재봉기 준비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때 동학 세력이 이처럼 확대되었던 것은 가을의 재봉기에서 동학의 역할에 관한 이해의 시각을 보여준다.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동조한 지방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보고서를 주한일본공사관에 보내고 있었다. 일본군은 이들 지방관들에게 호동자(護東者)라는

협의를 두고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된 범위를 보면 동학과 이 대사건이 관련된 모습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동학농민군의 활동지역은 최시형 등 동학의 지도자들이 확대한 포교지역과 일치한다. 이것은 동학의 조직이 동학농민군의 기본 조직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합류해왔다. 그 구성원 중에는 양반과 향리가 있었고, 지주와 부농 출신도 있었다. 일부이긴 하지만 관료를 역임한 인물도 확인이 되며 학문을 인정받은 진사들도 있었다. 각 군현에 따라 일찍이 동학에 입도해서 「오래된 도인」이었거나 1894년에 돌아가는 추세에 따라 합류를 했거나 각기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동학농민군은 군사조직이었다. 상명하복의 질서를 따라야 조직이 함께 같은 목적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지도부의 성격이 중요해진다.

동학농민군의 지도부에는 일찍이 동학에 입도해서 접주 수접주 대접주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 중에는 군사 활동을 이끄는 면에 능력을 발휘한 사람도 있었고, 종교 활동에 그치고 군사 활동에 나서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지도부에는 뒤늦게 들어와서 동학 내에는 비중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군사 지도자로서 능력을 가지고 두드러진 활약을 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힘이 장사였거나 씨름꾼이었거나 비호같이 날랐던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참가층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농민층이었다. 지방의 양반유생들은 이들을 ‘市井童昏 平民 藏獲 雇傭 等輩’⁵⁾라고 했다. 그리고 사방에서 모이고 흩어지는 무뢰지류(無賴之類)라고 했다.

이 두 세력이 동학을 통해서 합류해서 사회개혁과 외세침략에 항쟁하는 대규모의 무장봉기를 전개한 사실은 한국근대사에서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접어드는 역동적인 역사발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세계사상 전근대에서 근대로 접어드는 시기에 근대사회 건설의 방향을 놓고 지배층과 농민층, 그리고 일제침략자들과 민족주의세력의 일대 결전을 치렀던 독특한 사건이기도 했다.

직산의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박용석의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사회개혁과 외세침략의 배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차에 걸쳐 대대적으로 봉기함으로써 전개되었는데 박용석의 사례는 동학농민군이 왜 이 문제에 항의하는 무장봉기에 나섰는지 잘 알려주고 있다.

조선의 신분제도 아래 압박 받던 하층민이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동학농민군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는 배경을 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강화도조약 이후 국교를 맺은 열강이 국내의 이권 획득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던 때에 금광노동자로서 그 문제점을 목격하였던 한 인물이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5) 『甲午斥邪錄』

박용석이 선택했던 방식은 동학에 입도하는 형식이었다. 동학 조직에서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과 힘을 합쳤던 그는 동학농민군으로서 분투하다가 생을 마치고 말았다. 동학의 교리와 종교의식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하지만 다른 증언을 들을 길 없는 우리는 이 사례에서 피압박 농민층과 동학이 공동으로 사회문제와 외세문제에 대처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직산금광(한국학중앙연구원)

동학농민혁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신 순 철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머리말

갑오년의 농민전쟁을 어떻게 명명하는가 하는 문제는 역사인식의 문제로 귀착된다. 사건의 명칭에는 사건을 보는 역사인식이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의 문제 역시 일정한 역사인식을 담고 있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은 고부봉기에서 비롯된 1차봉기와 가을 삼례봉기를 기점으로 하는 2차봉기로 구분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구분은 ‘왕조체제에 저항하는 두 차례의 농민반란’이라는 인식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봉기한 농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1차봉기 과정에서 고부봉기와 무장기포 사이에는 엄청난 의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 집강소 단계에서는 봉건적 압제와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은 희망을 경험하였다. 아울러 2차봉기 역시 우금치의 패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농민군들의 의지는 소멸되지 않고 이듬해인 1895년 3월 초순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차봉기는 왕조체제에 대한 반봉건운동이었고 2차봉기는 일본의 침략에 맞선 반외세의 항일운동으로 구분하는 것도 현재까지의 동학농민전쟁 연구 성과를 반영한 성격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을 5단계 ‘고부봉기단계, 전국적인 무장봉기단계, 집강소 개혁추진단계, 9월재봉기단계, 최후항전단계’로 세분하여 각 단계의 농민군 활동과 조정의 대응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 고부봉기 단계

고부군민들이 군수 조병갑을 축출하기 위하여 봉기한 1894년 1월 10일로부터 새로 부임한 군수 박원명의 설득과 회유에 의하여 봉기 지도부가 해산하는 3월 초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동학농민전쟁의 예비단계에 해당된다. 고부봉기는 1860년대 이후 70여 개 고을에서 있었던 고을단위의 농민봉기와 같은 맥락에 있었다. 봉기의 원인이나 진행과정은 다른 고을에서와 같이 고을단위의 국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고부군민들은 세금문제로 수령은 물론 균전사와 전운사로부터 불법적인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특히 군수 조병갑의 학정으로 원성이 높았다. 1893년 말경 고부군민들은 만석보의 수세문제를 군수와 감사에게 각각 진정한 바 있었으나 오히려

그 대표들이 처벌되자 이를 참다못한 농민들은 사발통문(자료1)을 돌려 봉기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를 알아차린 군수 조병갑은 익산군수로 이임하였다. 그로부터 약 40여일 후인 정월 초순, 고부군정이 잠잠해지자 조병갑은 고부에 제도 입하였고 도입 이튿날인 1월 10일 고부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고부봉기의 지도자는 전봉준, 김도삼, 정의서 등 이었다. 봉기한 농민들은 말목장터에 모여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수세 수탈의 상징이었던 만석보를 헐어버리고 1월 25일 백산(현 부안군 백산면)에 유진하였다. 농민들은 각지에 통문을 보내 봉기의 타당성을 알리고 전운영의 혁파와 관련된 봉기의 확대를 둘러싼 내부 이견을 보이다가 3월 초 군수의 설득으로 해산하였다.

한편, 고부농민들이 봉기하자 군수는 도망하고 전라감사 김문헌은 감영병과 군교를 동원하여 이를 평정코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감사의 장계를 받은 정부는 군수를 파직 유배하고 감사를 감봉 처분하고, 후임군수에 박원명(용안현감)을, 안핵사 이용태(장흥부사)를 임명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3월초, 박원명이 부임하여 농민들을 설득하고 회유하여 안정을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안핵사 이용태가 도입하여 봉기 가담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군수를 협박하고 동학도와 군민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자 진정국면을 맞았던 고부 민심은 다시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동학농민전쟁에 있어서 고부봉기 단계는 1860년대 이래의 통상적인 고을봉기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농민군 지도부 내에서는 국지적인 고을 봉기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었다.

3. 전국적인 무장봉기 단계

제2단계는 3월 20일 무장에서 봉기한 농민들이 호남의 각 고을을 돌아 4월 28일 전주성을 점령하고 초토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전주성에서 철수하기까지의 시기이다.

3월초, 고부농민들이 해산한 이후 고부에서 안핵사 이용태의 만행을 전해들은 농민군 지도부는 무장에서 재봉기를 결정하였다. 손화중과 연대하여 3월 16일부터 무장 동음치면 당산마을에는 수천명의 농민들이 모여 들었고 무기와 군량미를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3월 20일 ‘무장포고문’ (자료2)을 발표하고 백산(자료3)에서 호남 각 고을에서 모인 농민군 수천명이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하는 군사조직을 편성(총관령 손화중, 김개남, 총참모 김덕명·오시영, 영술장 최경선, 비서 송희옥, 정백현 등)하고 강령과 군율을 발표(자료4)함으로써 전라도 농민봉기는 이제 고을 단위의 국지성을 벗어나 전국적인 농민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봉건적 모순과 수탈의 질곡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전봉준의 증언처럼 ‘참다 참다못해 일어나’ 전국적인 반봉건 농민전쟁의 출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백산을 출발한 농민군은 부안, 태인, 원평을 차례로 점령하고 4월 7일 황토현에서

관군과의 첫 전투를 맞았다. 이 전투에서 감영병과 향병으로 구성된 관군을 대파한 농민군은 사기가 점점 높아져 정읍, 흥덕, 고창, 무장을 차례로 점령하고 영광, 함평을 거쳐 4월 21일에는 장성에 도착하였다.

한편 감사로부터 농민군의 재봉기 소식을 접한 정부는 4월 2일 홍계훈을 양호초토사로 임명하고 장위영병 8백명을 전주로 파견하였다. 홍계훈은 4월 7일 전주에 도착하였으나 황토현 전투에서 감영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에 초토사 진영은 크게 동요되었다.

4월 23일 농민군은 장성 황룡촌에서 이학승, 원세록, 오건영이 이끄는 300여명의 홍계훈 부대 선발대의 기습공격을 받았으나 농민군의 반격으로 관군을 대파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이학승이 전사하고 농민군은 쿠르프포와 회전기관총을 노획하였다. 4월 16일 정부는 총계영병 500명과 강화수군 300명을 추가로 파견하였으나 장성전투 이후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은 도망자가 속출하고 전의를 상실하여 농민군의 뒤를 따라오는 지경이 되었다.

장성전투 이후 농민군은 사기가 더욱 충천하여 정읍, 태인, 원평을 거쳐 4월 26일 전주 밖 삼천에 유진하고 이튿날 전주성을 무혈점령하였다. 전주성을 점령하자 뒤따라 온 관군은 성 밖에서 접전을 계속하는 한편으로 홍계훈은 농민군의 해산을 종용하고 전봉준은 폐정개혁안(자료5)을 임금에게 상주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5월 8일, 양측의 합의에 의하여 농민군은 일단 전주성에서 철수하였다. 이를 ‘전주화약’이라 지칭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바 없다. 그 내용을 추론해보면 ‘농민군이 먼저 전주성에서 철수하되 이들의 신변을 보장하며, 폐정개혁 요구는 왕에게 상주한다’는 약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주성 함락 소식을 접한 정부는 이원회를 양호순변사로 임명하여 1,400명의 증원군을 파견하고, 그동안 청군 원병을 주장해왔던 민영준의 건의를 받아들여 4월 29일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청나라 군대 2,500명이 5월 2일~7일까지 아산만에 상륙하였고, 청국의 파병과 함께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6,300명의 병력을 5월 6일~12일까지 인천에 상륙시켰다.

문헌상 이 시기에 전라도 53개 군현 가운데 33개 군현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무장봉기는 고을단위의 농민봉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반봉건 농민전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조건은 개항이후 상업의 발달로 인한 교통의 발달과 함께 동학 교단이 가진 전국적인 농민조직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4. 집강소를 통한 폐정개혁 단계

농민군이 전주성을 철수한 이후 9월 재봉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이다.

전주성 철군 이후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은 호남 일대를 순회하며 농민군을 독려하는 한편으로 순변사와 전라감사에 대하여 폐정개혁의 실현을 요구하면서 각 고을에서 농민군을 해산하지 않은 채로 정부를 압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군의 개혁 요구와 함께 청국과 일본의 파병, 양국에 의한 내정개혁 압박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정부는 6월 11일에 가서야 일본

의 개혁요구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교정청을 설치하고 12개조의 의정혁폐조건을 각지에 통보하였다. 이 개혁안에는 농민군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6월 21일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23일에는 친일내각을 수립하는 한편 청국군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발발하였다. 25일에는 교정청을 혁파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조선의 내정개혁에 착수하였다.

일본의 무력에 의한 경복궁 점령과 내정간섭, 그리고 청일전쟁의 발발 소식은 농민들을 다시 자극하였다. 함열, 무장, 강경, 옹포, 부안, 서천 등지에서 농민군이 수백명씩 무리를 지어 항일 기치를 내세운 봉기가 있었고 7~8월에는 전라도 지역보다 오히려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서 고을 단위의 항일 농민봉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국내 정세의 급변에 따라 전라감사 김학진은 7월 6일 전주에서 전봉준과 회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전라도 각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을 추진하며 치안유지에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전봉준은 전주성 안에 전라좌우도 대도소를 설치하고 송희옥을 도집강으로 임명하는 한편, 전라도 각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손화중은 광주 지역을, 김개남은 남원 지역을 관장하고 전봉준은 각지를 다니면서 개혁을 독려하였다.

집강소의 조직은 동학의 육임제를 근간으로 하여 교화기관, 규찰기관, 군사동원기관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집강소 개혁에 있어서 농민군과 수령과의 관계는 각 군현에 따라 서로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개혁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으나 대체로는 경제적인 수탈구조의 혁파(군전관, 전운사 등 삼정), 지대인하, 신분차별 철폐, 농민의 억울한 사정 처리, 고리대 문제 등의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집강소의 성격에 관해서도 농민자치기구인가 농민권력기구인가 하는 논란이 있으나 역시 군현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집강소시기에 우리 역사상 지배와 수탈의 대상이었던 농민들이 처음으로 권력에 참여했다는 점이며 이를 농민정권으로 볼 수 있는 군현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집강소 시기는 농민전쟁 기간 중 최대의 승전 기간이며 농민들이 꿈꾸던 세상을 실현해 가는 시기였다. 아울러 이 시기는 일본의 무력에 의한 내정간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색기간 즉, 9월 재봉기를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5. 9월 재봉기 단계

9월 중순의 삼례 재봉기로부터 11월 초순 공주에서의 우금치 패전까지의 시기이다.

농민군 지도부에서 재봉기를 서두른 인물은 김개남이었다. 그는 8월 19일경 교통산성의 병기고를 점령하여 무장을 강화하고 부호들의 전곡을 거두어 군량미 확보하는 한편 농민군 대오를 재편성하여 수만 명의 농민군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전봉준과 손화중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의 추이를 살피면서 기회를

보자는 온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개남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결국 이 문제는 전봉준과 김개남이 7일여의 격론을 거쳐 재봉기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봉기의 결정에는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각지의 항일 봉기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지만 대원군의 밀지도 일정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은 삼례에서 9월 8일경 재봉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였다. 전주를 비롯한 인근의 무기와 관곡을 모으기 시작했고 전라도와 충청도 각지에 재봉기의 취지를 알리고 전라도 각 군현의 무기고를 털어 무장을 강화하였다. 이 시기 김개남은 남원 인근에서 무기와 군량미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 때 삼례에 모인 농민군은 7~8만명, 남원에는 5~6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 무렵, 전라-충청도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고을단위의 농민봉기가 이어졌다. 경상도 서북부 지역인 김천 상주 예천 안동 일대와 남서부 지역인 하동 진주 고성 지역, 강원도 홍천 평창 영월 강릉 지역, 경기도 용인 이천 안성 지역, 황해도는 재령 평산 풍천 등지의 농민들이 봉기하여 해주성을 점령하고 송화 문화 웅진 연안 조니진 오우진 은울 백천 등지를 차례로 점령하였다.

9월봉기는 이와 같은 반일 농민봉기의 분위기 속에서 1개월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작되었다. 전봉준은 최시형으로부터 동학교단의 합류를 확인한 후, 농민군 4,000명을 이끌고 삼례를 출발하여 10월12일 논산에 도착하였다. 손병희가 이끄는 충청지역의 농민군은 15일에 논산에 합류하였다. 김개남은 14일 8천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전주에 도착하여 김개남은 전주를, 최경선은 손화중과 함께 광주 나주지역을 지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정부는 농민군 진압을 위하여 9월 9일 장위영(이두황)과 경리칭(성하영) 병력을 충청도로 파견하였다. 또한 10월에는 신정희를 도순무사로 하는 양호도순무영을 설치하고 이규태를 선봉장에 임명하여 통위영과 교도대 병정 3,400명을 배속하였다. 이들은 10월 24일 이미 공주에 도착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농민군 진압을 위한 1개 대대 병력을 10월 6일 인천에 상륙시키고 3개의 길로 나누어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관군의 지휘는 일본군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었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일본군율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10월 21일경 전봉준 손병희가 이끄는 농민군은 논산을 출발하여 공주를 향했다. 10월 23일 진영을 둘로 나누어 경천-판치-효포-웅치 방향(논산쪽)과 이인 방향(부여쪽)으로 공주 공격이 시도되었다. 23일 이인전투를 시작으로 24일 효포전투, 25일 웅치전투에서 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경천으로 퇴각하였다. 이 때 김개남은 전주를 출발하여 금산을 점령하고 청주로 향하고 있었다.

공주전투는 11월 8일 결전의 날을 맞았다. 농민군은 동쪽으로 판치 뒷 봉우리에서부터 남으로 우금치를 지나 서쪽으로는 봉황산 뒤편까지 30리에 걸치는 진을 치고 전면 공격을 시도하였다. 오후 1시부터 40~50여 차례의 접전이 계속되었으나 농민군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전투는 11일까지 4일간 계속되었으나 우세한 화력을 가진 정규군 2,700(관군 2500, 일군200)명의 전력을 극복할 수 없어 노성까지 후퇴하였다.

김개남 진영은 이때 금산에서 진잠, 회덕, 신탄진을 거쳐 13일 청주를 공격하였으나 역시 패전하고 말았다. 전봉준의 주력부대는 14일부터 관군의 추격을 받아 노성, 논산 황하대에서 접전하고 19일 전주에서 김개남과 만났으나 분산 퇴각하여 11월 25일 태인전투를 끝으로 전봉준과 손병희가 이끄는 농민군 주력은 해산하였으며 11월말부터 이듬해 정초에 이르기까지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의 지도부는 대부분 체포되었다.

6. 최후항전단계

농민군 주력부대가 전주에서 해산되고 손화중 휘하의 광주 농민군 세력도 11월 말경 해산됨으로써 농민군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고을이나 지역 단위의 농민군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11월 말에 시작된 일본군과 관군의 토벌 작전에 맞서 이듬해인 1895년 3월 초순까지 산발적으로 크고 작은 항전을 계속하였다. 이 시기 일본군과 관군의 농민군에 대한 불법적이고도 잔학한 살상행위는 동학농민전쟁 전 시기 가운데 최대의 피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일본군의 전술은 농민군을 한반도의 서남해안 지방으로 몰아붙이는 작전이었다. 일본군은 관군과 민보군을 앞세워 농민군 가담자를 철저히 색출하여 처형하고 농민군이 숨을 만한 마을을 불태우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일본군의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을 위반한 민간인 학살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전투는 전라남도 장흥강진 지역이었다. 이방언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은 광주, 보성, 능주, 화순 지역의 농민군까지 합세하여 1만 또는 3만여 명에 이르렀다고도 한다. 이들은 12월초에 장흥부와 강진병영을 점령하였으나 13~17일에 이르는 일군과의 석대들 전투에서 패하여 흩어졌으나 이들은 서남해안 지역과 섬으로 들어가 끝까지 소규모 전투로 항전하였다. 그 외에도 300여명이 희생된 보은의 북실전투, 이해 11월 중순 경부터 이듬해 2월 중순까지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대둔산 정상에서 항전하였던 대둔산 항전, 그 외에 전라도 남해안 순천 광양 낙안 홍양, 경상도 낙동 상주, 충청도 청산 문암 등지에서 이듬해 3월초까지 일본군에 의한 농민군의 색출과 살해, 민가에 대한 방화는 계속되었다.

7. 맺 음 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 가운데 그 중심 과제는 역시 동학교단과 농민전쟁의 상관성에 관한 부분이고 이는 또한 명칭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대중의 역사인식이나 이 사건의 평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농민전쟁의 전국성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동학농민전쟁은 1894년 초 고부농민 봉기에서 비롯되어 가을에 공주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패전하고 전봉준이 체포됨으로써 일단락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1893년까지의 최제우의 신원을 내건 동학교단의 종교자유운동과 우금치 패전 후 이

듬해 3월까지 계속된 각 지역의 산발적인 농민항쟁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소식과 일본군의 경북궁 점령 소식의 영향으로 6월말부터 9월초까지 봉기한 충청, 경상, 강원도 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 고을의 농민봉기도 가려져 있다. 현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을 수로 보아도 전국 120여개 고을에 이르는데, 전라도 50여개 고을과 충청도 35개 고을, 경상도 14개 고을, 강원도 12개 고을, 황해도 4개 고을과 경기, 평안, 함경도 지역에서도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이는 당시 전체 고을의 1/3에 해당되는 전국적인 농민전쟁이었던 것이다.

전봉준과 호남지역(남접) 중심의 농민전쟁 인식만이 아니라 6월~8월까지의 농민봉기나 10월의 황해도 지역 봉기와 해주성 점령, 그리고 이듬해까지 남해안 일대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일본군의 토벌에 맞섰던 농민군 잔여세력의 산발적인 항쟁과 일본군의 불법적인 만행 등은 자료의 부족 때문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일본측의 자료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군에 의한 토벌작전이 끝나고 부상당하거나 살아남은 농민군과 그 가족들의 비참한 삶도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일부는 민보군이나 수령과 아전들에 의하여 살해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가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성을 바꾸면서까지 숨어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건은 농민군의 잔여세력이 일부는 의병전쟁에 합류하고 활빈당 투쟁과 민족해방 운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도 하였다.

동학농민전쟁은 봉건체제의 모순이 심화되어 농민층이 가혹한 수탈과 억압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전국적인 농민전쟁이며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저항한 농민항쟁으로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인도의 세포이 난과 함께 동양의 3대 반외세 농민전쟁이었다.

|| 자료 1 || 사발통문

각리집강 좌하

위와 같이 격문을 사방에 비전하니 물론이 비등하였다. 매일 나라가 어지러워 망할 것이라고 노래처럼 부르던 민중들은 곳곳에 모여서 말하되 “났네 냈어 난리가 냈어”,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들이 어디 한 사람이나 남아 있겠나”하며 날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이때에 도인(동학교도)들은 선후책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고부군 서부면 죽산리(현 정읍군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의 송두호 집에 도소를 정하고 매일 운집하여 일의 순서를 결정하니, 그 때 결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
1.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1. 군수에게 아부하여 인민의 재산을 빼앗은 탐관오리를 격징할 것.
1. 전주 감영을 함락하고 경사(서울)로 직향할 것.

위와 같이 결정하고 따라서 군략에 능하고 매사에 민활한 영도자가...(이하누락)

|| 자료 2 || 무장포고문(茂長布告文)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인륜(人倫)이요 군신부자(君臣父子)의 관계는 인륜 가운데에서도 큰 것이라,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곧으며 아버지가 인자하고 자식이 효를 다해야 나라와 집안이 이루어져서 무궁한 복을 누리게 된다.

지금 우리 임금은 인효자애(仁孝慈愛)하시고 총명성예(總明聖睿)하시니 만일 현량정직(賢良正直)의 신하가 잘 보좌하면 요순문경(堯舜文景)의 시대를 바랄 수 있겠지마는 오늘의 조신(朝臣)들은 보국(報國)에는 뜻이 없고 국록(國祿)과 자리를 도적질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라고 아첨(阿諛)을 일삼아 충신의 말은 요언(妖言)이라 물리치고 정직한 사람은 비도(匪徒)라 트집을 잡아 안으로 나라를 지킬 인물이 없고 밖으로 학민(虐民)의 관리(官吏)만 늘어나니 인심은 갈수록 변하여 들어앉아도 일에 즐거움이 없고 나서도 몸을 지킬 방법이 없도다.

학정은 날로 심하여 원성이 잇따르고 군신(君臣)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구분은 무너져 남음이 없으니 관자(管子)가 이르기를 “예(禮)·의(義)·염(廉)·치(恥)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하였거니와 지금의 형세는 그 보다도 더한 지경이 되었다.

공경(公卿) 이하로 방백수령(方伯守令)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국가의 위태함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몹과 제집 살찌우기에만 급급하여 관리를 뽑는 문은 돈벌이의 길

이 되었고 과거(科擧)의 장은 시장바닥이 되었으며 허다한 재화(財貨)가 국고(國庫)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개인의 재산에 충당되고 나라에 묵은 빛이 있어도 갚을 생각이 없으며 사치와 향락에 두려운 줄 모르니 백성은 어육(魚肉)이 되고 만민은 도탄에 빠졌도다.

수령과 제신(帝臣)의 탐학이 이와 같으니 어느 세월에 백성이 곤궁함을 면하게 되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어늘 근본이 허약하면 나라가 쇠잔해지는 법, 저들이 보국안민(保國安民)의 방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향제(鄉弟)를 두어 오직 혼자 안전하기만을 도모하고 녹위(祿位)를 도적질하니 어찌 이럴수가 있으리오.

우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遺民)이나 나라의 땅으로 먹고 나라의 옷을 입고 사는지라 국가의 위망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온 나라가 마음을 함께하고 온 백성의 뜻을 거둬 모아 이제 의기(義旗)를 들고 보국안민을 죽기로써 맹서하노라, 오늘의 이 광경이 비록 놀라운 일이기는 하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저마다 하는 일에 편안하여 함께 좋은 날을 축하하며 다함께 성은(聖恩)을 입게 되면 천만 다행으로 아노라.

|| 자료 3 || 白山檄文(「東學史」)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르렀은 그 본의가 결단코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다 두고자 함이며, 안으로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버리고 밖으로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양반과 부호의 앞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하리라.

갑오 정월(?) 호남창의대장소 재백산

|| 자료 4 || 4대강령, 군기율(「大韓李年史」, 「續陰晴史」)

- 4대강령

1. 不殺人 不殺物
1. 忠孝雙全 濟世安民
1. 逐滅倭夷 登清聖道
1. 驅兵入京 盡滅權貴

- 군기율

- | | | |
|---------|---------|---------|
| 1. 降者受待 | 1. 困者救濟 | 1. 貧者逐之 |
| 1. 順者敬服 | 1. 走者勿追 | 1. 飢者饋之 |
| 1. 奸猾息之 | 1. 貧者賑恤 | 1. 不忠除之 |
| 1. 逆者曉諭 | 1. 病者給藥 | 1. 不孝殺之 |

|| 자료 5 || 폐정개혁안 (27개조)

폐정개혁안은 「전봉준공초」에 14개 항이 실려 있고 나머지 13개 조항은 판결문에 기록되지 않아 그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전에 농민군이 올린 각종 개혁안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추론되고 있다.

1. 전운소(轉運所)를 혁파할 것.
2. 국결(國結)을 더하지 말 것.
3. 보부상의 작폐를 금할 것.
4. 도내 환전(還錢)은 구(舊) 감사가 거두어 갔으니 민간에 다시 징수하지 말 것.
5. 대동미를 상납하는 기간에 각 포구 잠상(潛商)의 미곡 무역을 금할 것.
6. 동포전(洞布錢)은 매호(每戶) 봄 가을로 2냥씩 정할 것.
7. 탐관오리를 모두 파면시켜 내쫓을 것.
8. 위로 임금을 가리고 관직을 팔아 국권을 조롱하는 자들을 모두 축출할 것.
9. 수령은 자기의 관할지역 안에 입장(入狎)할 수 없으며 또 논을 거래하지 말 것.
10. 전세(田稅)는 전례를 따를 것.
11. 연호 잡역(烟戶 雜役)을 줄여 없앨 것.
12. 포구의 어염세(魚鹽稅)는 혁파할 것.
13. 보세(漕稅)와 궁답(宮畝)은 시행하지 말 것.
14. 각 고을에 수령이 내려와 백성의 산지(山地)에 녹표(勒標)하거나 투장(偷葬)하지 말 것.
15. 균전어사(均田御史)를 혁파할 것.
16. 각읍 시정(市井) 각 물건에 분전수세(分錢收稅)하는 것과 도고명색(都賈名色)을 혁파할 것.
17. 백지(白地)징세와 사전(私田) 진결(陳結)을 거두지 말 것.
18. 대원군을 국정에 간여토록 함으로써 민심을 바라는 바대로 할 것.
19. 진고(賑庫)를 혁파할 것.
20. 전보국(電報局)이 민간에 대해 폐해가 크니 혁파할 것.
21. 각읍 관아에서 필요한 물종(物種)은 시가(時價)에 따라 사서 쓰도록 할 것.
22. 각읍의 아전을 돈으로 임명하지 말고 쓸만한 사람을 택할 것.
23. 각읍 이속들이 천금(千金)을 축냈으면 그 자를 처형하고 친족에게 징수치 말 것.
24. 오래된 사체를 수령이 끼고 억지로 거두는 것을 모두 금단할 것.
25. 동학교도를 무고히 살육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동학과 관련되어 간힌 이는 모두 신원할 것.
26. 경저리(京邸吏)와 영저리(營邸吏)에게 주는 료미(料米)는 과거의 예에 따라 삭감할 것.
27. 각국 상인들이 포구에서 장사하고 있으니 도성(都城) 시장에는 출입을 금하고
28.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행상하는 일을 금하도록 할 것.

전봉준과 대원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배 항 섭 (성균관대 연구교수)

머리말	32쪽
1.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 시기	33쪽
1) 교조신원운동에서 척왜양운동으로	
(1) 1892년의 제1·2차 공주집회와 삼례집회	
(2) 1893년의 伏閣上疏	
(3) 제2차 삼례집회와 척왜양운동의 시작	
(4) 복합상소 직후 京鄕에서의 척왜양운동	
2) 척왜양운동 시기 동학교도와 대원군의 ‘반란’ 기도	
(1) 동학교도의 병란 기도	
(2) 복합상소 시기 대원군의 동향	
(3) 보은·금구집회 시기 대원군의 정변 기도	
2. 제1차 농민전쟁의 전개와 대원군	46쪽
3. 집강소 시기의 전봉준과 대원군	48쪽
4. 제2차 농민전쟁의 발발과 대원군	53쪽
맺음말	57쪽

머 리 말

동학농민전쟁(이하 농민전쟁) 100주년을 전후하여 농민전쟁 관련 자료가 대대적으로 수집 정리되고, 학계의 연구 성과도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농민전쟁의 실상이나 성격도 한층 분명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해명되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농민전쟁 혹은 전봉준과 대원군과의 연관문제이다. 양자의 관련설은 농민전쟁 당시부터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대원군이 실권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일제시대에는 물론 1960년대까지도 이 문제가 언급되어 왔으나, 그 이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연구가 거의 없고, 대체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전봉준과 대원군 간의 ‘밀약설’은 농민전쟁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농민전쟁의 성격이나 접근방법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양자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된 수편의 글이 발표되었다. 그 결과 전봉준과 대원군 사이에 모종의 연관이 있었음은 점차 자명해지고 있지만, 양자가 언제부터 관계를 가졌고,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연구자에 따라 서

로 다르다.

양자간에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연구자들도 대체로 양자의 연관 시점을 대원군의 농민군 동원기도가 본격화하는 8월 이후, 혹은 9월 초로 잡고 있다. 또 대부분의 연구는 대원군의 정변기도를 중심으로 양자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대원군 측에서 농민군을 동원하기 위해 전봉준과 접촉하였으나, 그것이 전봉준의 제2차 기포 결정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전봉준과 농민군은 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용한 대상이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며, 전봉준이 어떠한 구상 속에서 대원군과 접촉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양자의 관계를 교조신원운동 시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고, 농민전쟁에 임하는 전봉준의 구상과 행동에 시각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 양자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교조신원운동 시기, 제1차 농민전쟁 시기, 대원군 집정시기(집강소 시기), 제2차 농민전쟁 시기로 나누고, 전봉준과 농민군이 처해 있던 상황, 청·일군의 동태, 중앙정계의 동향 등을 고려하며 검토하기로 한다.

1.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 시기

1) 교조신원운동에서 척왜양운동으로

‘교조신원운동’은 1892년 말에서 1893년 초에 걸쳐 수차례 전개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892년 10월 공주집회, 11월 삼례집회, 12월 제2차 공주집회, 1893년 2월 제2차 삼례집회, 같은 달 광화문 복합상소, 3월 보은집회 및 금구집회 등이 있다.

‘교조신원운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동학교도들이 제시한 통문이나 방문의 내용, 요구사항, 그리고 동학교도들의 행동양태 등이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1892년의 교조신원운동에서 동학교도들이 제시한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교조 최제우의 신원과 포교의 자유, 관리들의 침탈금지 등이었다. 그러나 복합상소 직전인 1893년 2월 10일경의 제2차 삼례집회 시기부터는 교조의 신원이나 포교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완전히 사라지고 관리들의 침탈금지 요구도 크게 약화되었다. 반면에 척왜양 요구가 전면에 제기되었고 일본인과 서양인들을 직접 공격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천명되었으며, 京鄕 각지에서 척왜양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척왜양 구호는 이후 고부민란에서는 물론 <무장포고문> 이후 제1차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에서도 사실상 사라졌다가 제2차 농민전쟁 단계에 다시 등장한다. 따라서 ‘교조신원운동’ 시기에 척왜양이 전면에 제기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교조신원운동’부터 제2차 농민전쟁에 이르는 농민전쟁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교조신원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동학교도들의 행동양태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주목하고, 척왜양 구호의 전면화가 바로 그러한 행동양태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음을 밝혀 보려 한다.

제2차 삼례집회 이전까지만 하여도 동학교도들은 감영과 조정에 자신들의 요구를 서면으로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면 동학교도 가운데 일부는

왕조정부의 개혁을 목적으로 한 병란을 기도하였다. 또 ‘교조신원운동’ 시기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교도들의 병란기도는 대원군 측의 정변기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1892년의 제1·2차 공주집회와 삼례집회

교조신원운동은 1892년 10월 서인주와 서병학이 최시형의 허락 없이 교조의 신원과 관리들의 침탈금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공주에서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때 동학교도들은 충청감사 趙秉式에게 <各道東學儒生議送單子>를 제출하였다. 서학에 대한 반대와 日商의 상행위에 따른 폐해를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학이 유교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조의 신원과 교도에 대한 탄압 금지 등 종교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어 같은 해 11월 3일 삼례집회에 모인 수천 명의 동학교도들은 전라감영에 두 차례의 의송을 올렸다. 그 내용은 충청감영에 올린 것과 대동소이하며 요체는 “교조의 신원과 지방관들의 탐학 금지”였다.

기본적으로 포교의 자유에 목적이 있던 교단지도부는 집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교도들에게는 일단 해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교도 가운데 일부는 해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伏閣上疏를 주장하는 한편 재차 공주, 新都 등지에서 다시 집회를 가지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1892년 12월 1일 公州, 沃泉, 換江(황간? - 필자), 西營, 新都 등 충청지역의 교도들과 전라도 지역의 동학교도들은 공주에 다시 모여(이하 ‘제2차 公州집회’로 표기) 충청감사에게 동학포교의 자유와 관리들의 침탈 금지를 요구하였다. 여기서도 외세와 관련된 주장이 전혀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실제로 제1·2차 공주집회와 삼례집회에서 충청·전라감사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주장 이외에도 집회의 진행과정에서 동학교도들로부터 제기된 요구사항의 핵심은 관리들의 탐학과 침탈에 대한 반대에 있었다.

(2) 1893년의 伏閣上疏

공주·삼례집회 이후에도 동학금단에 따른 폐해를 중단시키겠다던 감영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교도들에 대한 침탈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심해졌다. 이에 따라 복합상소를 요청하는 교도들의 주장이 거듭되자 최시형은 12월 6일 복합상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보은에 都所를 차렸다.

도소에서는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1892년 12월에는 정부에 <朝家回通>이라는 상소문을 보냈다. <조가회통>에서 보이는 동학교도들의 요구조건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조의 신원 및 포교의 자유와 교도들에 대한 관리들의 침탈 금지였다. 제2차 공주집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외세에 대한 반대 요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1893년 1월 최시형은 드디어 복합상소를 결정하였다. 2월 11일 朴承浩를 疏頭로 한 교도대표 들은 광화문 앞으로 가서 상소문을 올렸다. 그 내용 역시 <조가회통>

과 마찬가지로 의세의 침탈이나 서학에 반대하는 내용은 전무하다. 반면 충청, 전라 감영에 올린 글에 비해 동학 교리에 대한 설명이 많고, 동학의 독자성과 유불선에 비해 오히려 동학의 교리가 뛰어난 점을 강조한 점에서 차이가 난다.

(3) 제2차 삼례집회와 척왜양운동의 시작

공주·삼례집회를 겪은 다음부터 교단지도부와 성향을 달리하는 변혁지향적인 세력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척왜양’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복합상소보다 한달 정도 앞선 1893년 1월 10일 무렵 전봉준의 주도로 전라도 각지에서 전개된 척왜양 방문운동과 복합상소 직전인 2월 10일 경에 개최된 제2차 삼례집회이다.

『南原郡東學史』에 따르면 복합상소가 결정되는 1893년 1월 10일 전봉준은 직접 ‘倡義文’을 작성하고 전라도 각지로 돌렸으며, 남원·운봉·곡성·구례 등지에는 같은 시각에 방문이 붙었다고 하였다. ‘창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창의’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斥倭洋이 그 주조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남원·운봉·곡성·구례 등 각지에서 호응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이때부터 전봉준과 전라도 각지의 인물들 사이에 일정한 조직적 연계가 확보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어 전라도 교도들로 추정되는 일군의 세력은 교단 대표들이 복합상소를 위해 상경한 직후인 2월 10일경 전라도 參禮에서 두 번째로 집회를 열었다. 이 때 모여든 교도 수천 명은 전주감사에게 또 다시 글을 보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릇 사람 노릇하기에는 어려움이 세 가지 있다. 절개를 세우고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신하 노릇하기의 어려움이다. 힘을 다하여 정성스리이 효도하고 부모를 섬기다가 죽는 것은 자식 노릇하기의 어려움이다. 정조를 굳게 지키다가 지아비를 따라 죽는 것은 지어미 노릇하기의 어려움이다. 생이 있으면 死가 있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이고 有事하고 無事함은 운명이 정해 놓은 바이다. 무사하고 안락한 때에 태어나 충효의 도리를 즐기는 것과 일이 있어 어려운 때에 태어나 충효에 죽는 것은 신하 노릇하고 자식 노릇하기의 어렵고도 쉬움이고 쉽고도 어려움이다. (중략) 금일 倭賊과 洋賊이 나라 한가운데로 들어와 큰 혼란이 극심하다. 실로 오늘날 나라의 수도를 보건대 마침내 오랑캐들의 소굴이 되었다. 가만히 생각건대 임진년의 원수와 병자년의 치욕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으며, 어찌 차마 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동방 삼천리 선조들이 물려준 땅이 모두 금수들의 발자국으로 가득하다. 오백 년 宗社가 장차 망하게 되었으니, 인의예지와 효제충신을 지금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물며 저 왜적은 오히려 悔恨의 마음을 가지고 화근을 품고서 그 독기를 마음대로 뿌리고 있어서 위태로움이 조석에 달렸다. (중략) 우리 수만 명은 힘을 합쳐 죽기를 맹세하고 왜적과 양적을 물리쳐 大報之義를 본받고자 한다. 엎드려 원하건대 각하도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여 忠義로운 선비들을 선발하여 함께 輔國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때 동학교도들은 척왜양 격문을 전라감사에게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전라도 각 읍에도 보냈다.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첫째, 그것이 보은집회가

열리는 3월 11일 보은 관아 문 밖에 걸린 궤서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이다. 둘째, 이전에 충청감사와 전라감사에게 보낸 글이나 복합상소문과 비교해 볼 때 교조의 신원이나 교도에 대한 탄압금지 등의 요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반면 거의 전적으로 斥倭洋을 통한 보輔國이 강조되면서 왜와 양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지가 처음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공주집회에서도 西學에 대한 반대, 倭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반대는 있었으나, 왜양 자체에 대한 반대와 동시에 그를 직접 쳐부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적은 없었다. 또 보은에 도소를 차린 직후인 1892년 12월 정부에 보낸 <朝家回通>이나 1893년 2월의 복합상소문에서도 동학을 서학으로 칭하여 탄압하는데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하였지만, 외세 그 자체에 대해 척왜양을 명시하며 반대한 경우는 없었다.

제2차 삼례집회와 척왜양 운동은 서장옥과 전봉준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복합상소문에 제시된 교단 대표 명단 가운데는 복합상소나 신원운동의 전개를 가장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던 서장옥의 이름이 빠져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서장옥은 상경하지 않고 삼례에 남아 집회를 주도하였거나, 상경하였더라도 서울에서 척왜양 방문운동을 주도하는 등 교단 측과는 별도의 움직임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봉준은 제1차 삼례집회 뒤 金開南, 金德明, 孫化中 등과 함께 전라도 일대의 교도들을 이끌고 무장 군수 등을 상대로 반탐학 운동을 벌였고, 1893년 1월 10일 경에는 전라도 일원에 ‘창의문’을 게시한 바 있다.

(4) 복합상소 직후 京鄕에서의 척왜양 운동

척왜양 운동은 삼례와 전라도 지방에서만 전개된 것이 아니었다. 복합상소를 전후한 시기 서울의 외국공관 등에도 척왜양 방문이 연속적으로 나붙었다. 우선 복합상소 직후인 2월 14일 밤 서울 Gifford 학당의 문에 서교를 배척하는 방문이 붙었다. 그 내용은 서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선의 서교 신자들에게 서교를 버리고 유학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말미에 제시한 “遂落兩頭(逐) 口橫一木(和) 日兮月兮(明) 先王去水(先王法)”이라는 파자는 곧 “逐和 明先王法”이라는 뜻으로 척사론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어 2월 18일에는 미국인 존스(H. J. Jones)의 집 교회당에도 “敎頭 等에게 曉諭하는” 방문이 붙었다. 내용의 요체는 역시 유학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가 패륜적이라는 점을 통박하는 것이며, 3월 7일까지 조선을 떠나지 않을 경우 무장하여 공격하겠다고 적시하였다. 그리고 보은집회가 열리기 10여 일 전인 3월 2일 오후 2시 경에는 일본공사관 벽에도 “日本商旅館展見”이라는 題下의 궤서가 붙었다. 일본공사관에 게시된 방문은 서양인들에게 통고한 내용과 달리 임진왜란 때의 참혹함을 상기하며 즉시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으며, 화이론적 세계관이 물씬 배어 있다.

또 2월 20일을 전후하여 프랑스공관에도 서교를 배척하는 방문이 게시되었다고 하며, 복합상소 직전인 2월 7일에도 동학교도들이 서학을 배척하는 격문을 서양 영사관 앞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또 『東京朝日新聞』에는 척왜양 방문이 학교나 선교사의 집, 외국 공관이외에도 동대문과 남대문 등의 중요한 지점에도 붙었다

고 하였다.

서울에 척왜양 폐서가 붙은 이후부터 보은집회 개최 이전까지 지방 곳곳에도 척왜양을 주장하는 폐서가 나붙었다. 앞의 용담 이외에 현재 확인되는 것은 3월 6일 밤 부산성문에 나붙은 통문이다. 그 내용은 전라감영에 보낸 글이나 용담 관아에 붙은 글과 완전히 동일하다. 부산의 격문도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삼례집회 세력이나 이들과 연계된 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서울 각처에 붙은 척왜양 격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 내용이 전라감영에 보낸 글이나 전라도 각지에 붙인 척왜양 방문과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우선 발신자의 명의를 그 이전에는 동학교도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던 것과 달리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다. 불란서, 미국 등 외국공관과 외국인 집에 나붙은 방문의 내용은 ‘禮義之國’에서 횡행하는 서학에 대한 반대에 거의 국한되어 있고, 척사론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또 기포드 학당에 게시된 방문에는 ‘遂落兩頭 口橫一木 日兮月兮 先王去水(遂和明先王法이라는 뜻)’ 등 破字로 된 메시지를 남겼고, 발신자는 ‘白雲山人 弓乙先生 不名書’로 되어 있으며,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계룡산 樂斯村으로 來訪하라고 쓰여 있다. 일본인 商旅館 앞으로 보낸 방문도 그 발신인이 ‘朝鮮國 三師員 羽草’로 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 무렵 宗親府 앞에도 방문이 붙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 볼 때 방문의 내용은 없으며, “巳(四) 走己(起) 言有反絲(變) 兎勿目(免) 力在幸丸(勢)” 등의 파자가 쓰여 있다. 파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대략 사방에서 변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이다. 또 일본 공사관 측에서는 이 무렵 동학교도들이 자주 쓰던 또 다른 파자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三角老人曰

登天數豆盡(癸) 龍本半是蛇(巳) 借問三合卜(玉) 陽坡白日比(階) 仁人在何處(二) 良明失其侶(月) 讀易日之暮(初) 須向南方言(許) 吉言不出處(土) 江草雨濛濛(滿) 聞道珍平客(寶) 壬癸申用金(劍)

계사년(1893) 2월 초에 士들이 온통 보검을 들고 일어나는 거사를 예고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일견 19세기 후반에 빈발하던 변란세력의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전개된 척왜양운동을 모두 동학교도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간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삼례에 회집한 세력 혹은 그와 연계된 일부의 교도들 혹은 이들과 연계된 집단이나 개인이 주도하여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3월 3, 4일경 좌포도청에 체포된 동학교도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巨魁가 전라도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들의 진술 내용을 통해 일본공사관 측에서는 그들의 수령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이 전라도에 3, 4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는 데서 엿볼 수 있다. 또 앞서 언급한 바 척왜양 방문 가운데 하나가 교단측 기록인 「東學道宗釋史」에 교단측의 핵심 인물인 손천민이 보낸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데서도 척왜양 방문 가운데 일부는 동학교도나 그들과 연계된 인물의 소행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척왜양운동 시기 동학교도와 대원군의 ‘반란’ 기도

(1) 동학교도의 병란 기도

2월 10일의 제2차 삼례집회 이후 경향 각지에서 척왜양운동은 단순히 방문을 붙이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척왜양을 명분으로 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정변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지적되어야 할 점은 복합상소 직전에 나타난 일부 교도들의 언행이다. 「天道教會史草稿」에는 상경한 교단 대표들이 남소동 최창한의 집에 奉疏都所를 정하고 절차를 논의하던 중 서병학이 “意를 變하여 隊兵과 協同하여 政府를 鑿打고저”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孫秉熙 金演局 孫天民 등이 반대하였으나 서병학은 듣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최시형도 1898년 3월 체포된 뒤 복합상소 당시의 정황에 대해 “그들의 청원에 대한 (국왕의-필자) 답변을 얻지 못하자, 그 중 한 사람이 ‘우리들이 군인으로 변장하고 먼저 閔泳駿의 집을 공격하자’ 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였던 대중은 모두 해산하여 귀가하였다” 라고 하였다. 최시형의 경우 병란을 기도하자는 주장이 복합상소 이전이 아니라 복합상소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또 정부간당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영준을 공격하자고 제안하였던 것으로 회고하였다. 양자가 서로 다른 사실인지 혹은 어느 한쪽의 착각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 무렵에 병란을 기도하자는 주장이 있었음을 한층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서병학은 복합상소 시에 다른 대표들이 상경한 2월 8일보다 7일 앞선 2월 1일(吉日)에 상경하였다. 그 동안 서병학이 서울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돈화의 「天道教創建史」에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都所에 모여 相議할세 때에 徐仁周 徐丙鶴은 上疏하여 陳情할 뜻이 없고 敎徒로 하여금 兵服을 換着케 하고 兵隊와 協同하여 政府奸黨을 掃蕩하고 크게 朝廷을 改革하기로 決定하였는지라(徐仁周先上京周旋) 이 秘密을 探知한 捕盜大將 申正熙가 警察을 道人旅宿에 派送하여 嚴密히 調查하거늘 神師가 이에 二人을 불러 그 不當함을 責하니 二人이 듣지 안는지라(「天道教創建史」).

여기서는 서병학 혼자가 아니라 서인주와 서병학이 함께 정부간당의 소탕을 주장하였다고 하였으며, 서병학이 아니라 서인주가 먼저 상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둘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두 사람이 모두 일찍 상경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문제는 이들이 먼저 상경한 뒤 병대와 협동하여 정부간당을 소탕하려는 계획을 주선하였다는 점이다.

이 두 사람 혹은 둘 중 하나가 미리 상경한 뒤에 모종의 계획을 추진하였음은 복합상소에 참여하였던 권병덕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병학이 홀연 뜻을 변하여 대궐에 봉소할 생각은 없고 수만 도인으로 하여금 군복을 입히고 병정과 협력하여 정부를 타파하고 간당을 축출하여 국가정치를 혁신하자는 의견을 제출하며 병대는 이미 교섭이 다 되었다 하거늘 손병희, 김연

국, 손천민 등이 이것을 거절하니 서병학이 위협으로 고발하겠다고 하거늘 손병희 등이 이것은 선생의 명의를 아니니 못하겠다고 하니 병학이 기어이 불청하더라(『계사년 복합과 보은장내대회』, 『天道教會月報』 268, 1934. 1).

또 천도교측 인사인 김재계도 이때 “서병학 등이 뜻을 변해야 그때에 경성에서 정부에게 불평을 가지고 있는 병정들과 같이 정부대관을 학살하고자 밀모가 있는 것을 알고 손병희, 김연국, 손천민, 박인호 등이 이를 만류하여 이때에 폭동은 절대 불가하다고 거절하였다” 고 하였다(『교회사』, 『天道教會月報』 274, 1935.2.). 『東京朝日新聞』에서도 “일(복합상소)이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수도 漢陽을 불태우는 大事를 일으키고, 지방의 黨員도 호응하여 대혁명을 단행하려 한다” 라는 기사를 통해 복합상소 이전에 모종의 거사계획이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동학교단에서 미리 올려 보낸 인물은 서병학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병학은 미리 상경하여 정부에 대해 불평을 가지고 있던 병대와 협력하여 정부 간담을 소탕하기로 사전에 밀모하여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에서도 서울에서 밀의한 병란 기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다.

서병학이 미리 상경하고 10일 정도 지난 2월 10일경 제2차 삼례집회에 모인 전라도 교도들 사이에서는 이때 서울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본 변리공사 大石正己는 4월 12일(음력 2월 26일) 외무대신 陸奧宗光에게 보낸 글에서 “동학교도 6만여 명이 서울로 가려하고 있다” 는 전라감사의 전보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물론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외국공관 등에 나붙은 방문에 들어 있는 “3월 7일 쳐들어가겠다” 는 내용으로 인하여 이 무렵 동학교도들이 서울에서 모인다는 소문이 무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에 주재하던 외국 공관들과 선교사들 사이에는 일대 동요가 일어났으며 그 대책에 부심하기도 했다.

김윤식은 이 무렵 동학교도들 간에 청주, 천안 등지에서 모이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며, 충청도에는 영동, 보은, 목천 등지에 동학교도들이 회집하여 있다고 하였다. 또 이들이 서울로 가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 3월 3, 4일경 좌포도청에 체포된 전라도 동학교도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左捕盜大將 申正熙도 “너희들 宗派 수만 명 혹은 수천 명이 京城에 齋會하여 疏願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고 하여 역시 전라도 동학교도들의 상경 소문이 있었음을 보여준다(『日本外交文書(韓國篇)』 5).

지방에서 전개된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주목되는 점은 일반민중에 대한 선전활동도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우선 전라감사에게 척왜양 통고문을 보내는 2월 10일 무렵 삼례에 회집한 교도들은 동학교도들에게도 통문을 보냈고, 일반 인민들에게도 효유하는 통문을 보냈다. 통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을 읽고 혹시라도 두려워 동요하지 말라. 우리는 왜양을 剿滅하려는 것일 따름이고 平民들에게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신중을 기하여 민간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 (민간에 폐를-필자) 범한 자는 처벌할 것이다(『續陰晴史』 上).

앞부분은 일반 민인들을, 뒷부분은 동학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보인다. 복합상소 직전 시기부터 삼례에 모인 교도들은 정부나 官側에 보낸 이전 시기의 글과는 전혀 달리 척왜양을 주조로 한 통문을 작성하여 감영에 보내고 각 읍 관아에 붙였다. 뿐만 아니라 동학교도들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고 일반 인민들에게까지 동요하지 말 것을 알리는 통문을 보냈다. 이는 이들의 움직임이 그만큼 주도면밀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마치 거사를 앞둔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사실이다.

또 하나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 무렵 서울에서 척왜양 방문운동을 주도한 동학교도들 혹은 그들과 연계된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도 왜양을 물리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방문과 4개 항목의 행동강령이 서울 거리에 게시되었다는 점이다. 그 요체는 “금수 같은 倭洋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는데 어찌 秉彝의 도리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임진년의 원한을 다시 겪지 않으려는 忠義之士가 있으면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부기된 4개조의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동방예의지국이 근래 바깥 오랑캐의 침략을 받아 위로는 종사가 위태롭고 아래로는 (오랑캐의) 財色이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비할 데 없이 통탄스럽다. 기필코 쓸어 없애버릴 따름일 것.
2. 하늘을 받들고 더러운 것들을 쓸어냄에 있어 장정을 가려 뽑지 않고 손에는 병기를 잡지 않음으로서 위로는 걱정을 끼치지 않고 아래로는 소란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니 인민들은 안심하고 樂業하라. 혹시 충성을 본받으려는 자가 있으면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할 것.
3. 불효하고 不忠한 자와 강함을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는 자는 도적임이 분명하니 우선 그 討罪할 것이니, 개과천선하여 후회하지 말 것.
4. 서화에 입도한 사람은 동방에서 태어나고 동방에서 자라 國君의 땅을 갈아 먹고 선왕의 법을 따랐으면서 그 이름을 오랑캐의 나라에 붙이고 그 마음을 오랑캐의 땅에 두어 오랑캐의 우두머리에게 복무하니 어떤 마음에서인가? 매우 안타깝고 한탄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본래대로 돌아와 후회하지 않도록 할 것.

척왜양의 거사를 일으키기에 앞서 ‘충의지사’의 동참을 선동함과 동시에 抑強扶弱의 생각이 담겨 있는 일종의 행동강령까지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 무렵 일부 교도들이 척왜양을 명분으로 한 “거사”를 일으키려는 계획을 실제로 추진하였음을 한층 선명하게 보여준다.

(2) 복합상소 시기 대원군의 동향

1893년 2월 복합상소를 전후한 무렵부터 동학교도들이 정부나 관변, 그리고 민간에 제시하는 글이 그 내용 면에서 종교적 요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대신 척왜양이 전면에서 등장한 점, 그리고 동학교도들이 병란을 기도한 점은 대원군과 일부 교도들 사이의 접촉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앞서 언급한 바 복합상소 직전에 병대와 연합하여 병란을 일으켜 정부간당을 소탕하고 정부를 개혁하자고 주장한 서인주와 서병학은 교단 내에서 일찍부터 복합상

소 등 교조신원운동의 전개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던 인물이었다. 이들이 미리 상경하여 “병대와 협력하여 정부간당을 소탕하자”는 밀모한 상대가 누구였는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주목된 것은 대원군의 동향이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1893년 2월 동학교도들의 광화문 복합상소가 일어났을 때 중앙정계와 서울에 주재하던 각 국의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동학교도의 배후에는 대원군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 鄭喬는 『大韓季年史』에서 1893년 2월 동학교도들의 광화문 복합상소 때에 “대원군은 몰래 동학당 수만 명을 서울로 와서 모이게 하고 不軌를 도모하여 그의 孫子 竣鎔을 추대하려 하였으나 마침내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은 대원군 측이 늦어도 교조신원운동 시기부터는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해 동학교도를 이용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전봉준 역시 실세한 대원군을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기 3년 전부터 대원군과 접촉하였다는 기록도 적지 않다. 대원군과 전봉준 사이에는 정부를 개혁하려는 생각과 抑強扶弱, 斥外라는 점에서도 뜻이 상통하였다. 이에 따라 양자 간에는 일찍부터 모종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조신원운동’ 시기의 대원군과 전봉준 등 일부 동학교도들 간의 관계를 석연히 밝혀주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東學史」나 「天道敎創建史」보다 10여 년 앞선 1922년에 전봉준에 관해 쓴 黃義敦은 “屢年間 京城에 留連하여 敵情의 정찰과 內應者(大院君)의 締結이 완성되매 1893년 봄에 표연히 고향에 還歸하였다”고 하였다. 전봉준과 대원군 간의 밀의가 1893년 봄에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양자 간의 관계가 1893년 봄 이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후술할 차상찬의 글은 물론 이 돈화의 『천도교창건사』 등 양자 간의 관계를 기술한 거의 대부분의 자료에서 발견된다. 오지영에 따르면 전봉준은 대원군을 찾아본 일이 있으며, 대원군은 전봉준 역시 자기를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科官을 원하거나 訴訟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것으로 짐작하고 그의 所懷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전봉준의 대답은 “나의 소회는 나라를 위하여 人民을 위하여 한 번 죽고저 하는 바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후로 대원군과 전봉준 사이에 무슨 밀약이 있었던 듯하다는 世評이 있었다고 한다(『동학사』).

반봉건의 과제뿐만 아니라 반외세의 과제를 동시에 포착하고 있었던 전봉준은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찍부터 다양한 세력과의 연합을 추진하고 있었다.

“주모자 전봉준은 이미 그의 동지인 동학당 수령 무장 손화중과 태인 김개남, 최경선과 금구 김덕명 등과 의논이 많았었고 고부인민 幾個人과도 약속이 있었으며, 기타 경향 각 방면으로도 志氣相合處에 만은 운동이 있었던 것이다. 국가를 바로잡고 세상을 혁신하기 위하여는 어느 당파거나 어느 계급이거나를 물론하고 구애가 없이 맞손을 잡고 일을 할 작정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해서 일찍 倡義文一通을 草하여 공공연하게 세상에다 전파하였던 것이다(『동학사(초고본)』).”

또 “儒林側(으로 奇字萬 등과-이 부분은 썼다가 지웠음 : 필자)과 裸負商 등이며 油鑪·宕糖商 等이며 술장사派까지라도 서로 서로 連絡을 지었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전봉준은 반봉건의 과제와 함께 반외세의 과제를 의식하면서 일찍부터 광

범위한 계층을 포괄하는 연합을 構想하고 있었으며, 서울로 가서 정국의 추이와 외세의 동태를 살피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전봉준이 정치적 성향 면에서 유사한 점이 적지 않았던 대원군과 접촉했을 개연성을 더욱 높여준다.

또 오지영도 「東學史」(간행본)에서는 전봉준과 대원군의 관계를 일관되게 부정하였지만, 「東學史」(초고본)에서는 양자간에 접촉이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하였다.

“侶義文을 世上에 傳布하고 (중략) 전봉준이 兪州 구미란(龜尾卵)으로부터 남으로 향하던 때에 同行된 사람은 徐璋玉 宋喜玉 等과 其外에도 몇 사람이 있었다. 一說에는 雲峴宮 집사람 羅星山과 召募使 李基榮 等도 同謀가 있었다”

한편 앞서 언급한 1893년 봄이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위의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늦어도 복합상소 직전 서병학 등이 병란을 기도하기 이전에는 양자간에 구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병란 기도가 서병학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혹은 일부 동학교도만의 준비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 같은 시기에 보여준 대원군의 동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대원군은 동학교도들의 복합상소가 일어난 직후로 여겨지는 무렵 가까이 지내던 일본인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복합상소 당시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대원군은 자신이 직접 농민군 지도자들을 불러 효유하고 싶으나, 자신도 일찍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주장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내통 혹은 그들을 교사한다는 의혹을 살까 두려워 방관만하고 간섭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이 역시 당시 대원군이 동학교도들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대원군이 조선 병대와 동학교도 간의 연합 가능성에 대해 피력하였다는 사실이다. 대원군은 조선의 병사들이 수개월 동안 봉급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동학당이 이들을 선동하게 되면 병사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는 의견을 밝힘과 동시에 노인과 부녀자 어린 아이 등을 하루라도 빨리 인천으로 피난시키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병대와 협력하여 정부간당을 물리치자고 주장한 서병학 등 일부 교도들의 언행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복합상소를 전후한 무렵부터 대대적으로 전개된 경향 각지의 척왜양 방문 운동도 대원군 측과의 연계 속에서 일어났을 개연성을 한층 강하게 시사해준다. 서울 지역에 나붙은, 발신자의 의미가 불명확한 일련의 척왜양 방문도 이러한 사정 속에서 나온 것으로 그 가운데 일부는 대원군 측의 소행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전봉준이 1893년 1월 10일경부터 전라도 일원에 창의문을 작성하여 보낸 사실, 전봉준 서장옥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제2차 삼례집회를 계기로 동학교도들의 주장이 종교적인 것에서 척왜양으로 일변한 점, 같은 무렵 서병학 등이 서울에서 병란을 기도하였다는 점, 서울에서는 거사를 앞둔 듯한 행동강령과 ‘충의지사’의 동참을 선동하는 글이 나붙은 점, 삼례 등지에서는 동학교도들이 상경할 움

직임과 함께 민인들에게까지 동요하지 말 것을 알리는 통문을 내보낼 정도로 교도들의 행동이 한층 주도면밀해지고 있었다는 점 등은 동학교도 가운데 변혁지향적인 세력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행동 양태들은 모종의 계획을 목적으로 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는 움직임이었다고 생각되며, 이는 정변을 기도하던 대원군 측과도 어떤 관련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빠르면 1893년 1월 전봉준이 전라도 각지에 창의문을 날리기 이전, 늦어도 복합상소 직전 서병학 등이 병란을 주장하고 제2차 삼례집회에서 척왜양 주장이 처음으로 전면화하는 시기 이전에는 전봉준 혹은 서장옥이나 서병학 등 일부의 동학교도들과 대원군 간에는 모종의 밀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경향에서 척왜양 방문운동을 전개한 교도들은 교조의 신원이 아니라 그와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병란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는 대원군 측과도 연계되어 있었다. 이들은 척왜양을 전면에 제기하였지만, 실제적인 목표는 兵隊와 協同하여 政府奸黨을 掃蕩하고 크게 朝廷을 改革 “ 하는 데 있었다. 정부에 제시하는 격문의 내용에 교조의 신원이나 동학교리의 강조보다 척왜양 의지를 전면에 제기한 것은 병란을 위한 명분용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2월 18일 미국인 존스의 집에 붙은 방문에서 3월 7일을 기하여 병대를 이끌고 공격하겠다고 한 내용도 복합상소 시점에서 병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하자 두 번째로 병란을 시도하려는 잠정적인 날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합상소 전후와 3월 7일 전후의 두 차례에 걸친 병란기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교단 지도부의 반대와 교단 내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위상이 취약하였기 때문이지만, 대중들의 의식 수준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단 측 지도부나 대부분의 교도들로서는 교조신원과 포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집회가 느닷없이 척왜양 운동으로 바뀌는 것도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명분으로 내건 척왜양 구호는 누구나 긍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병대와 협력하여 정부의 간당을 소탕하고 정부를 개혁한다는 것은 당시 교도 대중들의 의식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리한 발상이었다고 생각된다.

(3) 보은·금구집회 시기 대원군의 정변 기도

복합상소를 전후한 시기 대원군 측과 일부의 동학교도가 연계한 병란 기도는 한 달 정도 뒤인 1893년 3월의 보은·금구집회 기간 중에 재차 시도되었다. 3월 10일 최시형은 마침내 도탄에 빠진 교도들을 구하고 최제우의 신원을 얻기 위한 대규모 집회의 개최를 결정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보은집회였다. 보은 장내리에는 이미 수만 명의 교도들이 모여 있었고, 최시형이 도착한 날 보은 관아의 三門 밖에는 이미 동학교도들의 주장이 담긴 掛書가 나붙었다. 궤서에는 “癸巳 三月初十日 卯時 東學 倡義儒生等 百拜上書” 라고 부기되어 있었다. 이 방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 내용이 2월 10일 경 전라감사에게 올려진 글이나 같은 무렵 전라도 각 지 관아 및 3월 초 부산성문에 붙은 격문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제시된 요구조건이나 구호 면에서도 교조신원이나 동학의 금단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斥倭洋 구호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倭洋, 특히 왜적의 침입에 대해 임진왜란 당시의 원수를 상기하면서 자신들의 본의는 倭洋을 소파하는 데 있으며, 관리들에게도 忠義의 上吏들을 모아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지휘부를 스스로 倡義所라고 불렀다.

보은집회에 모인 교도 2만여 명은 인근 각 마을로 “놀라지 말 것이며”,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라”는 내용의 통문을 보내어 주민들을 위무하였다. 또 “왜양을 掃破하여 종사를 지킴으로써 국가에 크게 충성하고 큰 공을 세우자”, “하늘님이 진실로 더러운 요기를 싫어하여 無極의 조화를 주었으니 志士 男兒로서 節義를 세울 때이며”, “때가 왔다(時乎時乎)”고 주장하였다. 전열을 가다듬는 한편 집회에 참여한 동학교도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3월 26일에는 선무사 어윤중에게 자신들의 뜻을 적은 글 <文狀草件>을 올렸다. 그 내용 역시 자신들은 先王朝에서 化育한 赤子로서 三綱五倫과 華夷의 분별을 안다는 점, 자신들이 창의하여 왜양을 물리치자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죄라고 오로지 잡아 가두고 쓸어버리려고만 하는 지에 대한 반문, 왜양이 비록 강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죽음으로써 왜양을 물리치려 한다는 점, 이러한 뜻을 국왕에게 다시 알려 자신들이 義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면 해산하겠다는 점 등이다. <文狀草件>은 “倡義 儒生” 許延 李重昌 徐丙鶴 李熙人 宋秉熙 趙在夏 李根豊 등 7명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굳이 자신들이 유생임을 밝힌 점이 주목된다. 또한 동학교도들은 3월 26일 어윤중이 1차로 효유한 다음 다른 모든 깃발이 철거된 뒤에도 “斥倭洋倡義旗”만 남겨두어 자신들의 요구가 척왜양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동학교도 가운데 변혁지향적 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앙권력을 타도하는 데 있었다. 보은집회에 모인 교도들은 수삼일 후에는 서울로 올라갈 것이라고도 하였고, 3월 그믐 경에 해산하여 1대는 서울로 올라가고 1대는 동래로 내려가기로 되어 있다고도 하였다. 이에 대해 어윤중은 “만약 너희들에게 (국왕에게-필자) 상달할 사정이 있으면 文狀을 만들어 오면 마땅히 전달할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서쪽으로 올라가서 서울을 驚動시켜서는 안된다”라고 하며 교도들을 회유하였다.

또 금구집회의 동학교도들은 3월 25일에 전주감영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掛書를 전주성에 붙이기도 했고, 인천 제물포로 直走한다고 聲言하기도 하였다. 김윤식은 3월 28일자 일기에서 동학교도들이 끊임없이 서울로 올라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店舍마다 만원이어서 일반인들은 모두 노숙을 하는 형편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였다. 이미 복합상소 직전에 서병학과 서인주 등이 병대와 협동하여 정부의 奸黨을 소탕하고 조정을 크게 개혁하자고 한 데서도 분명히 드러난 바 있듯이 보은 금구집회에서도 상경하려는 움직임의 실제 목적은 중앙권력의 타도였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해 어윤중은 “동학의 무리는 이미 팔로에 만연하여 거의 수만이 넘는다. 겉으로는 洋夷를 가탁하고 안으로는 思亂을 품고 있다”라고 하였다. 어윤중은 동학교도들이 내부적으로는 ‘반봉건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척왜양은 단지 표면상 내건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윤중은 보은집회 시에 선무사로 내려와 동학교도들과 수차례나 만나 직접 대화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그는 교도들의 요구와 주장, 집회의 분위기 등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변혁지향적인 세력의 상경계획은 복합상소를 전후한 시기 경향 각지에서 전개된 척왜양 방문운동과 마찬가지로 대원군 측과 일정한 관련이 있었다. 189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농민군을 동원하기 위해 충청도에서 활동하던 대원군의 밀사들에게 대원군 측의 밀서를 전달했던 李秉輝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대감(대원군의 庶孫 李峻鎔-필자)은 본디 큰 뜻이 있어 지난 해 東徙가 報恩에 모였을 때 朴東鎭으로 하여금 그 명성과 위세를 과시하도록 하였으나, 모인 사람은 불과 수만 명에 지나지 않았고, 또 그에게는 이렇다 할 권세가 없어서 마침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복합상소 무렵부터 동학교도들을 동원하여 정변을 기도하고자 하였던 대원군이 보은집회 때에도 교도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보은금구집회 무렵에 변혁지향적 세력이 상경하려던 움직임이 대원군 측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자료를 통해 더욱 분명히 엿볼 수 있다. 천도교 인사인 차상찬은 1926년에 쓴 글에서 1893년 봄 전봉준이 하향할 때 대원군은 전봉준을 그의 별장인 石坡亭으로 초대하여 술을 대작하여 마신 다음 친필로 “江” 자를 써주며 “동학군이 만일 동작강까지만 깃발을 날린다면 나는 당장에 官兵과 대응하여 宮中 府中을 점령하고 친히 銅雀津까지 迎接하마” 라고 하였다 한다. 양자 사이의 밀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1898년에 체포된 최시형은 보은집회를 회고하며, 정부에서 자신들을 체포하기 위해 병대를 파견하였다는 소식이 들리자, 자신의 휘하 가운데 “열 명 정도가 斥倭의 깃발을 세워야 하고, 보은에서 모여 반란을 개시하고 한강을 따라 서울까지 가야 된다고 제의하였다” 고 하였다. 이 제의는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지만, 보은집회의 일부 세력이 한강까지 올라갈 것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은 대원군이 전봉준에게 한강까지 올라오라고 한 말과 연관 지어 볼 때 양자 사이에 모종의 밀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병란 기도 과정에서 대원군과 접촉한 것이 누구였는지, 몇 명이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빠르면 서장옥이 주도하고 전봉준이 呈訴 대표를 자임하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 1892년 11월의 제1차 삼례집회 무렵부터 1893년 2월 10일의 제2차 삼례집회 이전, 늦어도 복합상소 직전에는 전봉준, 서병학 혹은 서인주 등 동학교도 가운데 변혁지향적인 세력들과 대원군 측 사이에는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촉을 통한 양자간의 밀모 내용은 뜻을 같이하는 일군의 변혁지향적 인물들과 공유되었을 것이며, 그 결과 보은집회 단계에서는 최시형의 측근 가운데서도 10명 정도의 동조자가 나타났던 것이다.

정부 요로에 있는 민씨 척족 등 부패한 집권세력을 축출하고 정부를 개혁하겠다는 구상은 무장기포 당시 농민군 지도부가 가지고 있던 구상과 동일하다. 농민전쟁 시기의 봉기 목적이 이미 이 시기부터 구상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학교도와 대원군이 연계한 거병기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로는 교단 측이 병란을 기도한 세력들의 의도와 달리 척왜양 운동 자체에 반대하였거나 소극적이었다는 점, 또 보은집회의 경우 조기에 해산시키고 말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곧 아직까지 변혁지향적인 세력의 조직적 기반이 독자적 역량만으로는 동학교도들

을 동원한 병란 등의 거사를 도모하기에 취약하였음을 의미한다.

2. 제1차 농민전쟁의 전개와 대원군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뒤 수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요구를 제시하였다. 무장기포 당시의 포고문, 같은 무렵의 4대 名義, 백산대회의 격문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정의 개혁과 외세의 축출을 통한 輔國安民에 있음을 천명한 농민군은 무장고부 태인 원평 금구 부안 정읍 흥덕 고창 영광 함평 장성 정읍 등 각지를 석권하며 구체적인 폐정을 제시하며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4월 2일 부안에서는 장사에서 分錢收稅하는 일을 금지할 것 등 4개조를 요구하였고, 4월 4일 법성포에서는 전운영의 폐단 9개조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4월 8일 고창에서는 호적 등 帳籍을 열람하였으며, 4월 12일에는 영광에 들어가 불법적 수탈의 도구였던 호적대장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4월 16일에 함평으로 진격하여 관아를 점거한 농민군은 자신들의 목표가 “탐관오리를 징계하고 邑弊民瘼을 矯正함으로써 輔國安民하는” 데 있음을 밝힌 다음 逋吏들의 성명이 적힌 각 文簿를 거두어 오게 하여 폐정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민군의 수는 6, 7천명-1만여 명에 불과하였다. 무장기포시의 4천 명보다는 많아졌지만, 농민군의 다음 목표인 전주성을 공략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무장에서 약 4천명으로 기포한 농민군은 무장 고부 태인 등지를 중심으로 세물이를 하여 6, 7천명으로 세를 불린 다음, 4월 1일 전주 공격을 위해 4월 2일에는 금구까지 진격하였으나 監營의 포군 1만여 명이 농민군을 치러온다는 소문을 듣자 4월 3일 태인과 부안으로 후퇴한 바 있다.

농민전쟁 발발 후 거의 한달이 되도록 제시되지 않던 대원군의 監國 요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오랜 만 5일간이나 머물면서 진세를 펼치고 기예를 과시하기도 하며 전열을 재정비한 함평이었다. 4월 16일 영광에서 倡義所의 명의로 完營留陣所에 通文을 보냈다.

“금일 우리의 의거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탐관오리를 개과 혁신케 하고 國太公을 監國케 하여 위로는 중사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케 하며, 父子간의 윤리와 군신간의 의리를 온전케 함으로써 亂臣賊子가 자연히 사라져 감히 나라를 해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을 따름이다. 倡義所 甲午 4월 16일”

이어 4월 18일 함평에서 나주 公兪에게 보낸 통문과 4월 19일 招討使에게 보낸 呈文, 5월 4일 초토사에게 보낸 所誌와 그 무렵에 제시한 27개조의 폐정개혁안 등에서 대원군의 추대를 지속적으로 포함시켰다. 대원군의 감국요구가 포함된 4월 16일자 통문이 제시되기 직전까지 농민군의 수는 대략 6-7천명 내지 1만여 명이었으나, 불과 10여일 후인 4월 47일 전주성을 점령할 당시 농민군의 수는 2-3만여 명에 달하였다.

한편 대원군도 농민군에 가담한 비범한 인물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음을 암시한 바가 있어 주목된다. 농민전쟁이 발발한 지 40여일 후인 1894년 4월 30일 일본인 순사

渡邊應平과의 대담에서 대원군은 농민전쟁에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번 民擾는 동학당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방관의 폭정으로 고통을 당하여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봉기한 것으로 그 중에는 비범한 인물도 가담하고 있어 그 책략행위가 놀랄만한 일도 많다. 아마도 쉽사리 진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자료만으로 제1차 농민전쟁 시기의 전봉준과 대원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일본인의 관찰은 제1차 농민전쟁 당시 전봉준과 대원군의 관계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東徒가) 그들이 믿는 대원군과 미리 氣脈을 통하였느냐 여부는 의문이지만, 余明叔의 인물됨으로 미루어 보면 그의 처음 기포가 반드시 대원군을 기대하였기 때문은 아님이 명확하다. 다만 그의 智略이 풍부하고 東徒의 義氣 역시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원군이라는 木像을 대중의 眼前에 세움으로써 操縱의 便利로 삼으려 한 것 같다.”

전봉준과 대원군이 농민전쟁 이전에 미리 내통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대원군의 사주를 받았거나 대원군의 비호를 기대하여 농민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원군을 이용하려 하였던 것임을 보여준다.

대원군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 성향 면에서 전봉준과 합치되는 면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였다. 전봉준은 농민전쟁에 임할 때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란을 일으킨 다음 그 힘을 모아 전주감영을 점령하고, 나아가 중앙권력을 장악, 매관매작을 일삼는 민씨 척족세력을 타도하면 팔도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중들의 의식수준은 고을범위를 벗어나는 ‘叛亂’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봉준은 자신들은 탐관오리의 수탈을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났으며, 자신들이 무장한 것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였음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행동이 반란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은 京兵에 대한 공격도 극도로 자제하고 있었으며, 列縣을 돌아다닐 때도 자신들의 봉기는 오로지 탐관오리를 징치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직 반란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꺼리던 민중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지기반의 확대를 도모한 것이다.

이 점에서 대원군은 중요한 전술적 가치가 있었다. 대원군은 이미 실세한 정치가로 1885년 청나라에서 돌아온 후 운현궁에서 유포당하다시피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원군은 당시 대중들로부터 가장 호평을 받던 정치가였다. 일본공사 大鳥圭介도 “각종 탐정을 이용해서 탐지해 본 바, 일반적인 인기가 전적으로 대원군에게 쏠리고 있으며 대원군도 청운의 뜻을 품고 있는 모양이기에 (중략) 안경수와 유길준 등이 대궐과 대원군 저택 사이를 바삐 돌아다니면서 주선해서” 라고 하여 경복궁을 강점한 일본과 개화파가 대원군을 추대한 데에도 대원군이 가진 대중적 인기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또 이미 10여 년간 攝政을 한 경력이 있으며, 임오군란 시에도 일시적으로 섭정을 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험이 있는 등 대중적 信望을 한 몸에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 전봉준은 대원군을 내세움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이 결코 반란이 아님으로 강조할 수 있었다. 이점은 5월 4일 홍계훈에게 보낸 <彼徒訴志>에서 “國太公을 받들어 나라를 맡기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늘 어찌 不軌라 하느냐” 라고 한데서도 엿볼 수 있다.

전봉준은 대중들의 의식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을 반란의 대열에 동참시키고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폐정을 개혁하고 의세를 배척함으로써 ‘창생을 塗炭에서 구하고 국가를 반석에 두기’ 위한 거사를 실현하기 위해 대중적 인기가 쏠려 있던 정치가인 대원군이라는 ‘偶像’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이다.

3. 집강소 시기의 전봉준과 대원군

1893년 5월 8일 이른바 ‘全州和約’을 맺고 전주성에서 철수한 다음 전봉준이 초미의 관심을 보인 것은 청일군의 철병이었다. 여기에는 자신들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청·일군대의 철병은 커녕 오히려 청일군대가 농민전쟁의 진압에 개입을 하고, 나아가 조선이 청일간의 전장으로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5월 12일경 “농민군들은 남모르게 서북문을 빠져 나와 금구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다시 세력 확장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동료들과 약속하기를, ‘아직은 각처의 민을만한 곳에 몸을 숨기어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또 정부군과 청국군이 와서 추격을 하더라도 절대 싸우지 말고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라고 하였다” 고 한 일본인 정탐자의 보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일 양국의 군대는 철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6월 21일에는 일본군대가 경북공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폭거가 이루어졌고, 이틀 뒤에는 전봉준에게 ‘천추의 한’이 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6월 21일의 사건으로 민씨 척족 세력은 축출되었고, 농민군이 ‘모시고자’ 한 대원군이 집정하게 되었다. 이 점은 전봉준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7월 10일경 접견한 한 일본인과의 대담에서 전봉준은 당시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들의 起兵이 매개되어 금일 日淸의 兵爭이 조선에서 일어나기에 이른 것은 우리들이 千秋의 遺憾으로 여기는 바이다. 다행히 일본이 민씨들을 쫓아내고 대원군을 세웠으며, 폐정을 개혁하고 政法을 바로잡아 우리의 소망이 많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하고자 하는 바와 대원군이 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들은 아직 상세히 알 수 없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때문에 나는 힘써 동지들의 분격을 가라앉힘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동태를 알려고 한다.

또 전봉준은 체포된 뒤 이노우에(井上馨) 공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침 중앙정부의 奸妄을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던 차에 작년 6월(음력) 일본병이 경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함께 물리치려고 마침내 의병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의병을 일으키기 전에 나는 일단 일본군이 入韓한 본지를 확인하려고

한 통의 조회서를 일본공사관에 보냈지만 使者는 두려운 바가 있었는지 그 글을 남대문 밖의 酒家에 맡기고 돌아왔다. 당시 만일 그 글이 빨리 공사관에 도달했다면, 우리들의 운동도 이처럼 격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봉준이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 청일전쟁의 발발, 대원군의 집정 등 불과 3일 만에 발생한 일련의 중대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봉준은 일단 전라도 차원에서나마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개혁활동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중앙정국과 청일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자 하였다. 이어 7월 6일에는 이미 청일군대의 철수가 당면 과제라는 판단 하에 전라감사 김학진과 상호교감을 하고 있던 전봉준은 일단 ‘共守 州州 同赴國難’ 하자는 김학진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官民相和’를 맺었다.

한편 대원군은 6월 21일 집정한 직후부터 이미 농민군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려 계획하고 그를 위해 준비해 나갔다. ‘섭정’을 시작한 대원군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걸쳐 서장옥, 서병학, 장두재 등 주요한 동학교도들을 석방하였다. 이어 7월 말에는 평양에 주둔해 있는 청나라 장수 衛汝貴와 평안감사에게 밀서를 전달하여 일본 군대와 친일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청의 원병을 요청하였다. 또 자신의 손자 이준용을 비롯하여 박준양, 이태용 등 자파세력을 중용하는 한편 고종주, 박동진, 박세강, 정인덕 등 수하들을 主事 등 관직에 임명하였다. 7월 19일에는 이 가운데 박동진, 박세강, 서병학 등을 호서선무사 정경원에 팔려 보내 농민군들과 접촉하며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얼마나 많은 농민군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했다.

8월에 들어 청일간의 평양전투가 임박해지자 대원군은 드디어 각지에 파견되어 있던 밀사들에게 가급적 빨리 농민군을 동원하여 북상할 것을 재촉하였다. 평양의 청국 군대와 남북에서 합세하여 일본군과 친일세력을 축출하자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원군은 농민군의 주요 인물과도 직접적인 연계를 맺게 된다. 6월 26일 석방된 동학 접주 張斗在는 7월 초에 대원군을 직접 찾아가 청군과 합세하여 일본군을 물리치자고 말한 바 있다. 그것은 7월 9일자로 장두재가 김덕명, 김개남 및 손화중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확인된다.

“늦더위에 侍中 道體 만안하시기를 앞드려 빕니다. 전주성 전투와 某某處의 싸움에서 의로운 죽음을 당한 동지가 많았음을 듣고 가슴이 서늘하고 뼈가 아픔을 금할 수 없어서 떨어지는 눈물이 옷을 가득 적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쇠운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성공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저 먼 곳에서 우리의 소망을 정성들여 빌 뿐입니다. 誼弟가 이달 초 5일에 집에 돌아온 후 부모님께서도 전과 같이 편안하십니다. 그리고 一海 兄께서는 지난 22일 남은 사람들이 석방되었는데도 이날 신시쯤 左邊으로 移監되어 거의 死境에 이르렀으나 뜻밖에도 천은이 망극하여 지난 28일 신시에 방면되어 돌아오니 감사하여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편에 듣건대 倡義處에서 왜적으로 토벌코자 모두 모인다고 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21일 인시쯤에는 왕성을 함락하고 대궐을 침범한 왜적 몇 천 명이 三殿을 포위하여 사태가 위기에 처해 있었고, 각영문에 있는 병기와 식량을 모두 빼앗았으며, 대궐문과 4대문을 왜적이 지키고 또 수원성을 함락하고 청국병을 敗滅시켜 마치 무인지경과 같았으니 어찌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法所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오래도록 都會하지 않았다 하니 어찌 의리가 있다고 하

겠습니까. 이 또한 운수라고 하겠습니까? 호남 여러 곳에서 도회할 때 병기와 군마를 備得하여 행장을 모두 갖추고 錦營에 이르러 留陣하면서 경솔하게 상경하지 말고 某兄의 지휘를 기다려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내려갈 때 청국병과 합세하여 왜적을 모두 물리치겠다고 운현궁에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조처하시어 함께 봉기하여 속히 큰 공을 이루도록 엮드려 비웁니다. 비록 법소의 분부가 없더라도 상종하는 동료들이 며칠 있으면 몇 만 명이 湖中 도회에 相應相合하여 큰 공을 이룰 수 있도록 의논할 것을 기약했습니다. 염려마시고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빕니다.

갑오 7월 초9일 誼弟 張斗在(張喜川)

(위는 동학당 접주 장두재로부터 접주 김덕명, 김개남 및 손화중 앞으로 보낸 回章으로서 대원군의 뜻을 받아 청병과 합세하여 일본군을 토멸하기 위해 거병을 계획한 것임)

‘우리’라는 표현을 미루어 볼 때 서장옥과 함께 대원군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황현에 따르면 “어떤 소문에는 서장옥이 몰래 운현궁에 들어가 대원군의 밀서를 전해 받았는데, 그 내용이 ‘지난번의 고유는 실은 일본의 협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 삼가 끝이듣지 말고, 군사를 정돈하여 북쪽으로 올라와 함께 나라의 어려움을 타개하자’는 것이었다.” 라고 하여 서장옥과 대원군의 관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樞下記聞」, 3필).

이 편지는 농민군 지도부와 대원군 사이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이다. 그 내용의 요체는 이미 대원군과도 상의하였으니 빨리 기포하여 청국군대와 합세, 일본군을 물리치자는 것이었다. 김개남은 이 무렵부터 대원군세력과 일정한 연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월 20일 경부터 모이기 시작한 남원대회의 움직임도 시기적으로 김개남과 대원군측과 일정한 연계가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김개남은 체포된 뒤에도 이도제의 심문에 대해 “우리들이 한 일은 모두 대원군의 은밀한 지시에 의한 것이다. 지금 일이 실패한 것은 또한 하늘의 뜻일 뿐인데 어찌 국문한다고 야단이나” 고 한 바 있다.

이 시기 전봉준과 대원군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주목되는 사실은 8월 10일 전봉준의 처족 7촌이자 전주 大都所의 都執綱을 맡고 있던 宋熹玉이 善工主事로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송희옥이 서울로 올라가 주사직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농민군 지도부와 대원군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송희옥이 전봉준과 지근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대원군과 전봉준이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방증하는 자료이다. 대원군의 밀사라고 하는 자들이 왕래한 바 있었음은 전봉준도 시인하였으며, 얼굴도 모르는 자들이라 중대사를 상의할 수 없었기에 일절 만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봉준은 중앙정국의 동향과 청일전쟁의 추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초미의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원군측과도 일정한 접촉이 있었음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신문에는 전주화약 시기부터 농민군과 중앙정계가 연관되어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그 골자는 ‘농민군과 내통하고 있던 조정의 관료들이 농민군에게 계속하여 활동할 경우 청일군대의 진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조언하였고 농민군들도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로 해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 무렵 전봉준은 대원군과 각국 공사관 등에 사람을 파견하며 정국의 동

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일본공사관에도 ‘일본군이 人韓한 본지를 확인하려고 한 통의 조회서’ 를 보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전봉준은 대원군의 의도를 비롯한 중앙정국의 동향이나 청일전쟁의 추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대원군 등 중앙정계의 인물들이나 외국공사관 등과의 접촉을 가졌지만, 대원군의 농민군 동원기도나 ‘정변계획’ 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전봉준의 행동이 대원군이 추진하고자 한 계획과 크게 달랐다는 데서 알 수 있다.

7월 10일 전봉준은 “일본이 하고자 하는 바와 대원군이 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들은 아직 상세히 알 수 없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때문에 나는 힘써 동지들의 분격을 가라앉힘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동태를 알려고 한다” 라고 하였다. 장두재가 청국과 합세하여 일본군을 공격하자는 밀의를 대원군과 상의했음을 강조하면서 기포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에게 보낸 하루 뒤였다. 기포할 것을 촉구하는 장두재의 편지 내용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이때는 전봉준이 7월 6일 김학진과 만나 난국을 함께 극복하자는 ‘관민상화’ 를 막 결정한 직후이기도 했지만, 문맥상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이라는 침략행위와 함께 ‘섭정’ 을 맡은 대원군의 거취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봉준은 어디까지나 중앙정국의 동향과 청일전쟁의 추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았으므로 일단 정세변화를 주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장두재의 편지가 김개남 등에게 날아간 일주일 쯤 뒤에는 이 편지에 대응하는 듯한 통문을 각지에 보냈다.

방금 外寇가 범궐하였다. 국왕이 옥을 당했으니, 우리들은 마땅히 달려가 목숨을 걸고 의로써 싸워야 하나 저 도적들이 바야흐로 청나라와 전쟁 중이어서 그 예봉이 매우 날카로우므로 갑자기 맞서 싸웠다가는 그 화가 宗社에 미칠지도 모른다. 물러나 은둔하여 시세를 관망한 연후에 기세를 올려 계책을 취하는 것이 萬全之策이다. 바라건대 반드시 경내의 각 접주에게 통문을 돌려 서로 상의하여 각자 安業하고 경내에서 胥動하는 무리를 일절 금단하여 마을에서 횡행하며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를 切望한다. 이와 같이 申飭한 후에도 폐습을 고치지 못하면 해당 지역의 접주는 감영에 보고하여 엄하게 처단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그 접 예하의 접인 가운데 범금자가 있으면 마땅히 죄를 용서하지 말라.

‘외구의 범궐’ 과 국왕이 옥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으나, 적이 강한 만큼 경솔하게 행동하였다가는 화가 宗社에 미칠지도 모르니 당분간 자제하며 청일전쟁의 추이를 살펴보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마땅히 달려가 싸워야 할 것’ 이라는 표현에서 이 통문이 장두재의 편지와 관련하여 자칫 각지의 접주들이 동요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 6월 말부터 충청 전라도 곳곳에서 반왜봉기가 잇달아 일어났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전봉준은 그들은 자신들의 동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도용한 자들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전봉준의 입장은 빨라도 8월 25일까지는 지속되었다. 7월말에도 전봉준은 전주지방의 당면한 폐정을 개혁하기 위해 김학진을 통해 국

왕의 재가를 받아내고 있었다. 또 7월 26일 이후 민보군을 조직하고 김개남과 대적하고 있던 운봉 민보군의 우두머리 박봉양을 찾아가 양자를 화해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부임길에 농민군을 만나 곤욕을 치르던 전라좌수사 김철규의 연락을 받고 信標와 호위할 省察 4명을 보내어 그가 여수로 무사히 부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이어 김학진에게 8월 13일 전봉준은 부하 10여명을 거느리고 맨손으로 나주목사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나주는 목사 민종렬을 중심으로 농민군의 진입을 저지하였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농민군 집강소가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었다. 최경선 등이 이끄는 농민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친 적이 있지만 실패하였고, 농민군에게는 ‘등에 박힌 가시’ 같은 지역이었다. 이때 전봉준이 나주를 찾은 것도 이미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 사이에 이루어진 官民相和에 따라 상호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은 평양전투가 일본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예견되던 8월 25일경 김개남이 남원대회를 열어 관민상화에 입각한 ‘撫局’을 깨자 만류하러 달려갔다. 여기서 전봉준과 손화중, 김개남 사이에 정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전봉준이) ‘지금 시세를 보니 왜와 청이 싸워 한쪽이 이기게 되면 반드시 군사를 우리 쪽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무리가 비록 많으나 烏合之衆이어서 쉽게 무너져 소망하였던 것을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귀화한다는 명분으로 각자 사방으로 흩어져 서서히 그 상황변화를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니 개남이 대중은 한번 흩어지면 다시 모으기 어렵다 하여 듣지 않았다. 이어서 손화중이 도착하여 우리가 붕기한 지 이미 반년이 지나갔다. 비록 호남 일도가 호응하였다 하나 土族으로 有聲者나 재물을 가진 사람과 能文之士들은 추종하지 않았으며, 우리를 추종하여 접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개 어리석고 천하여 禍를 즐기거나 빼앗고 훔치는 일을 즐겨하는 무리들뿐이다. 세상인심의 향배를 가늠해 보면 일은 성사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사방으로 흩어져 온전히 살아남는 길을 도모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고 하였다. 개남은 이 말 또한 듣지 않았다.

8월 25일 무렵까지도 전봉준과 손화중은 재기포에 대해 반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청일전쟁의 결과 누가 이기든 자신들을 진압할 것이 분명하나, 현재 농민군의 역량으로는 거기에 맞서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 청일전쟁에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인지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전봉준은 이때까지도 청일전쟁의 동향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봉준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관민상화를 유지하며, 확실한 결말이 나지 않은 청일전쟁의 귀추를 살피자는 제안을 하였던 것이다.

전봉준이 ‘관민상화’에 의한 ‘撫局’을 유지하고자 한 의도는 무엇보다 중앙정국의 동향과 청일전쟁의 추이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전라도 지역에서나마 체계적인 폐정개혁활동을 추진해나가려는 데 있었다. 또 청일전쟁이 끝난 후 어느 나라든 농민군 진압에 개입할 경우 현실적인 농민군의 역량으로는 그에 맞서기 어려우며, 그럴 경우 자신들이 소망했던 바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관측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농민군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손화중의 견해와 종합해 볼 때 이 시기 전봉준의 입장은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士族이나 재산이 있는 계층과의 연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체계적인 개혁활동을 통해 농민군의 역량을 키워나가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8월 말까지도 전봉준의 정세판단은 대원군 측과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며, 7월 9일자로 김개남, 김덕명, 손화중에게 보내진 장두재의 편지나 대원군 측의 농민군 동원기도에도 불구하고 전봉준은 의연히 ‘관민상화’에 입각하여 집강소를 운영하고자 하였음을 반증한다. 청일 어느 나라든 승리하면 반드시 농민군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견한 점도 청과 합세하여 일본군을 물리치자는 대원군측의 태도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정세판단과 행동에서 대원군측과 일정한 차이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4. 제2차 농민전쟁의 발발과 대원군

전봉준이 재기포를 결심하는 것은 9월 초순이다. 8월 말까지만 하여도 김개남의 기포를 만류하던 전봉준은 재기포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전봉준에 대한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피고는 일본 군대가 대궐로 들어갔단 말을 듣고 필시 일본인이 我國을 병합코저 하는 것인 줄 알고 일본병을 쳐 물리치고 그 거류민을 국외로 구축할 마음으로 다시 기병을 도모하여 전주 근처 삼례역이 토지 광활하고 전라도 요충지지기로 동년 9월분에 태인을 發程하여 원평을 지나 삼례역에 이르러 그 곳에서 起兵하는 大都所로 삼고”

이와 같이 전봉준은 6월 21일에 있었던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을 ‘我國境土’에 대한 일본의 침략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임진왜란의 참화를 상기하며 국가의 존망, 생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금년 6월 이래 일본병이 그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에 온 것, 이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병탄하려고 하는 것일 것이라고 옛날 壬申(壬辰의 오기인듯함-필자)의 화란을 생각하여 국가가 멸망하면 생민이 어찌 하루라도 편할 수 있을까 하고 인민들이 의구심을 갖고서 나를 추대해서 수령으로 삼고 국가와 멸망을 함께 할 결심을 가지고 이 거사를 도모하였다.

전봉준은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 사실을 늦어도 7월 초에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봉준이 기포를 결심하는 것은 2개월 정도가 지난 9월 초순이다. 전봉준은 기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 : 이미 창의라 하였으면 마땅히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나

지 않고 왜 10월까지 기다렸는가

답 : 마침 그때 신병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불러일으키기가 어려웠으며, 또 곡식이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10월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마침 전봉준 자신에게 신병이 있었고, 또 농민군들을 한꺼번에 불러일으키기가 수월치 않았으며, 특히 군량에 필요한 곡식이 익기를 기다려 기포하느라고 늦었다는 것이다. 곡식이 익기를 기다려 재기포한다는 생각은 이미 경북궁침입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7월 10일자 대담내용, 7월 17일자 통문, 8월 25일 김개남과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본군의 경북궁 강점이라는 명백한 침략행위에도 불구하고 전봉준이 재봉기를 늦추고 있던 이유는 ①군량에 필요한 추곡이 익기를 기다린 점 ②민씨 정권의 교체와 대원군의 섭정이 일본군의 경북궁강점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과 관련하여 중앙정국의 동향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는 점 ③청일전쟁의 추이를 기다려 보자는 점 ④농민군의 현실적인 역량이 취약하였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8월 25일경까지도 이상과 같은 상황판단을 토대로 일본군의 경북궁 점령이라는 침략행위를 보고서도 정세를 관망하고 있던 전봉준은 불과 10여일 정도 뒤인 9월 초에 2차 전쟁을 결심하고 준비하게 된다.

그 배경으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7월 초순부터 反倭蜂起의 움직임이 곳곳의 농민군들에 의해 가시화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농민군들의 움직임으로부터 감지되는 반외의 열기 역시 전봉준의 재기포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반외열기만으로 전봉준이 지적한바 봉기를 연기한 이유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9월 초 전봉준에게 전달된 대원군의 꾀책이다. 9월 6일 宋熹玉은 전봉준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앞으로 더 일을 계획하고자 삼가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 어른들을 모시고 모두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接下는 전과 같이 지내오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엇그제 雲邊으로부터 효유문을 가지고 내려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의심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것이 중요한 일에 관계되기 때문에 우선 그 대책을 의논하고자 도회소를 철폐하고 龜村으로 옮겨왔습니다. 과연 어제 저녁 또 두 사람이 비밀리에 내려왔기에 상세히 그 전말을 알아본즉 과연 이는 개화편에 압도되어 먼저 효유문을 발하고 뒤이어 秘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두 사람을 곧 가두어 두고 이들을 엄중히 지키도록 하고 서로 말을 통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두었으니, 밤을 아랑곳하지 말고 올라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湖中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벌써 발각되어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대체로 속히 행하면 萬全策이 되고 늦으면 기밀이 발각되는 것이므로 이를 양찰하시고 대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천번 만번 빕니다. 호서지방에서는 초 10일에 대회를 갖고 한 쪽에서 올라가도록 명령하였다²⁾ 하

1) 「隨錄」에 따르면 9월 2일 대원군의 효유문을 가진 主事 2명이 전주에 있는 농민군 都所로 내려왔고, 전주에 있던 농민군 都執綱 宋熹玉은 9월 3일 낮에 그 휘하의 농민군들을 거느리고 전주성을 빠져 나갔으며, 主事 2명은 남원 등지의 농민군 聚會處를 향해 떠났다고 하였다(「隨錄」, 296쪽). 따라서 위의 편지에 나오는 엇그제(昨日)는 9월 2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므로 계속하여 뒤쫓아 간 다음에야 일이 완전하게 합치될 수 있습니다. 들뜨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라며 나머지는 아직 갖추어 올리지 못합니다.

甲午 9月 初6日 接弟 宋熹玉 再拜

(위는 全琫準의 친척이자 그의 부하인 宋熹玉으로부터 黨員 앞으로 보낸 서면으로서 이번에 君正으로부터 밀지가 있었으니 조속히 擧兵하자는 뜻을 기술했 것임-원 자료의 欄外註記)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바 ‘어제 저녁’에 송희옥을 찾아온 대원군의 밀사는 朴東鎭과 鄭寅德이었다. 또 거의 같은 무렵 김개남에게도 대원군의 밀지가 전달되었다. 9월 7일 이전 이준용이 보낸 前承旨 李建英이 남원에 도착하여 국태공의 명령이라고 김개남에게 ‘起兵赴京’ 할 것을 密諭하였다. 송희옥으로부터 대원군이 밀지를 보내온 사실을 전달받은 전봉준은 곧 삼례로 가서 송희옥과 함께 대원군이 보낸 두 사람의 밀사들을 만났으며, 이 무렵 전봉준은 역시 삼례에서 이견영도 만났다. 이때 전봉준은 앞의 박동진, 정인덕으로부터 농민군을 모아 빨리 올라오라는 내용의 밀지를 전해 들었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견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국왕의 밀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너희들은 선대 왕조로부터 교화하여 내려 온 백성들로서 선왕의 은덕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조정에 있는 자는 모두 저들에 아부하고 있어서 서로 은밀히 의논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어 하늘을 향하여 통곡할 따름이다. 방금 왜구들이 침범하여 화가 국가에 미치었는바 운명이 조석에 달렸다. 사태가 이에 이르렀으니 만약 너희들이 오지 않으면 박두하는 화와 근심을 어떻게 하랴. 이로써 교시하노라.

(위는 동학당 선동을 위하여 이들에게 발송한 국왕의 밀지임. 아마도 이것은 대원군의 조작에 불과할 것임-원 자료의 欄外註記)

전봉준은 공초에서 “대원군의 교시가 없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했을 뿐이며”, “재기한 것은 우리의 본심”이라고 주장하며 대원군과의 관계를 극구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의 밀지에 대해 비밀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다음과 같은 비밀 회람은 전봉준의 재기포가 대원군과 관계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대궐로부터 密敎가 있어서 召募使 李建永에게 보냈는데, 여기에 도착하여 함께 상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로 해서 密旨가 倭에게 누설되면 그 화가 玉體에 미칠 것이므로 신중히 비밀에 부치도록 할 것

義龍 月波 和中 兄宅 輪回

(이는 국왕의 밀지가 있었던 것을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당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회람문체인데 이 글씨는 전봉준의 필적임-원 자료의 欄外註記)

2) 9월 11일 호주대의소의 명의로 충청각지에 발포된 충청지역 농민군의 격문 내용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朝家로부터 밀교가 있었으며, 또 청국군이 우리나라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마당에 보국안민의 의기로 어찌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大阪朝日新聞」 1894년 12월 1일자,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3, 126쪽). 이는 북접의 기포가 대원군의 밀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봉준이 제2차 기포를 결심하게 된 데는 위에 언급한 대원군의 밀사가 전달한 북상요청이나 국왕의 밀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국왕의 밀지가 직접 전달되었다는 점은 전봉준으로 하여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군주가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 법”이라는 생각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섰다고 한 전봉준의 勤王主義的 의식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하여 전봉준의 제2차 기포가 대원군과의 사전모의나 밀지를 통해 북상하라고 한 대원군의 지시 때문은 아니었다. 대원군과 이준용의 계획은 “농민군이 재기하면 그 토벌을 핑계로 군사를 일으켜서 개화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잡으려던 것으로 재기병을 촉구하는 밀사를 보냈던 것”이었으며, 또 만일 일본군이 진압하러 내려가게 되면 즉각 해산하였다가 11, 12월경에 강이 결빙하기를 기다려 청국병이 오게 될 형편이 되면 협력하여 일병을 격퇴하고 정부를 갱신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8월 24 청일간의 평양전투에서 기대했던 청나라의 패배소식이 알려진 후 대원군 측의 일부 인사가 ‘정변계획’을 유보하자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대원군의 측근인 박동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대사는 시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날의 물망이 모두 老大監(대원군)을 따르고 하물며 또 동학당은 上奉國太公의 설로 창의한 자들이다. 만약 몇 십만 명을 이끌고 捲土重來한다면 실로 소위 人衆勝天인 바 비록 일본군이 움직인다 한들 어찌겠는가”

이는 전봉준과 대원군 사이에 사전 모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농민군이 폐정개혁을 요구하는 가운데 대원군의 감국도 요구하고 있었음을 주목한 대원군측이 농민군을 이용하여 일본군과 친일개화파를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하려 하였음을 시사해준다. 또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봉준은 대원군의 의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대원군에 대해서도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전봉준은 일본경찰의 취조에 답변하면서 자신이 가진 정치적 체제구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일본병을 물러나게 하고 惡奸의 관리를 축출해서 임금 곁을 깨끗이 한 후에는 몇 사람 柱石의 士를 내세워서 정치를 하게하고 우리들은 곧장 農村에 들어가 常職인 農業에 從事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國事를 들어 한 사람의 勢力家에게 맡기는 것은 크게 弊害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사람의 명사에게 協合해서 合議法에 의해서 정치를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

전봉준은 一人獨裁의 弊害에 대한 인식을 基盤으로 ‘몇 명의 柱石의 士’로 표현되는 名望이 있는 선비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합의법에 의해 서로 협의하여 정국을 운영하는 일종의 聯合政權과 類似한 체제구상이었다. 대원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문 : 대원군은 어떠한 사람인가

답 : 대원군은 오래 정치를 하고 威權이 매우 성했지만, 당시는 늙어서 정권을 잡

을 기력 없고, 원래 우리나라 정치를 그르친 것도 모두 대원군이기 때문에 인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문 : 士民은 대원군을 떠받쳐서 그에게 복종했다. 또한 대원군도 士民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때문에 士民에게 告示를 전한 것이 아닌가. 그러하거든 士民이 대원군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해서인가

답 : 士民은 어떤 일이라도 대원군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 아니다(예를 들면 양반은) 우리나라 종래부터 해온 兩班, 常人的 제도를 폐지한 것에는 服從 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다.

이러한 기록 역시 전봉준이 대원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거나, 일방적으로 그의 지시나 의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봉준의 재기포 결심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제2차 기포에 임할 때 가지고 있던 전봉준의 생각이다.

문 : 다시 기포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답 : 그 후에 들으니 貴國이 開化라 칭하고 처음부터 一言半辭도 民間에 傳布하지 않았고, 또 檄書도 없이 率兵하고 우리 都城에 들어와 夜半에 王宮을 破擊하여 主上을 驚動하였다 하기에 草野의 士民들이 忠君愛國之心으로 慷慨함을 이기지 못하여 義旅를 糾合하여 日人과 接戰하여 이 事實을 一次請問하고자 하였다.

위에 제시된 전봉준의 진술은 “방금 왜구들이 침범하여 화가 국가에 미치었는바 운명이 조석에 달렸다” 고 한 국왕의 밀지 내용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은 대원군 밀사와의 접촉을 통해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을 보고서도 재기포를 유보하였던 2)와 4)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전봉준은 대원군의 밀사를 통해 일본이 평양전투에 승리한 사실, 일본의 침략의도와 일본군이 진압하려 온다는 계획, 일본은 박영효를 내세워 개혁을 추진하려 하나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점 등 중앙정국의 동향과 청일전쟁의 추이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봉준은 농민군의 역량취약이라는 3)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따라서 농민군이 일본군의 상대가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국가가 멸망하면 생민이 어찌 하루라도 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가와 멸망을 함께할 결심”으로 기포하였던 것이다.

맺 음 말

전봉준과 대원군의 접촉은 이미 교조신원운동 시기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대원군은 자신의 정권장악을 위해 동학교도를 이용하려 하였으며, 전봉준 역시 대원군을 이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관련 자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폐정을 개혁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침으로써 보국안민을 이루려는 뜻을 품고 있던 전봉준이

사방을 돌며 동지들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 면에서 상통하는 바가 있던 대원군에게도 접근하였음을 보여준다. 대원군을 연합대상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던 전봉준 쪽에서 먼저 접근하여 의중을 탐지 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원군이 전봉준이나 동학교도와 연계한 이유는 동학교도들을 이용하여 “不軌를 도모하여 그의 孫 俊鎔을 추대” 하려는 데 있었다. 전봉준이 대원군을 접촉한 의도도 대원군의 활용하려는 데 있었다. 이돈화는 전봉준이 “3년간이나 서울에 머문 것은 서울의 군사적 형편과 정치적 허실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로 미루어보더라도 전봉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사할 뜻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 하였다, 또 “이때(1893년-필자) 대원군이 실의하고 있음을 보고 전봉준이 대원군을 달래어 정부개혁의 계책을 密約하고 돌아와 東亂을 일으켰다” 라고 하여 “異志를 품고 시국을 개혁코자하여 사방을 周遊하면서 동지를 규합하던” 전봉준이 대원군을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천도교창건사』).

농민전쟁 발발 이후 대원군은 농민전쟁에 대해 유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농민군에 가담한 비범한 인물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대원군은 농민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봉준이 대원군의 사주를 받았거나 대원군의 비호를 기대하여 농민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원군을 이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전봉준은 전국규모의 봉기를 구상하였으나, 당시 대중들의 의식수준은 고을범위를 벗어나는 ‘叛亂’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았다. 이 점에서 아직 농민군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꺼리던 민중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지기반의 확대하는 데 당시 농민들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자 국왕의 생부로서 이미 섭정의 경험이 있던 대원군은 매우 유용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존재였다. 4월 16일 이후 농민군의 요구조건 가운데 하나로 대원군의 감국이 제기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全明叔의 인물됨으로 미루어 보면 그의 처음 기포가 반드시 대원군을 기대하였기 때문은 아님이 명확하다. 다만 그의 智略이 풍부하고 東徒의 義氣 역시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원군이라는 木像을 대중의 眼前에 세움으로써 操縱의 便利로 삼으려 한 것 같다.” 는 일본측의 관점은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전주화약 이후 전봉준은 청일군대의 철병을 급선무로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농민군의 행동을 자제시키며 청일군의 동향을 지켜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사건이 발생하고, 이어 대원군의 집정, 청일전쟁의 발발 등 불과 3일 만에 일련의 중대사태가 일어났다. 전봉준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일단 전라도 차원에서나마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개혁 활동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중앙정국과 청일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자 하였다. 7월 6일에 전봉준이 ‘共守全州 同赴國難’ 하자는 김학진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官民相和’를 맺은 것은 그러한 의도에서였다.

한편 대원군은 6월 21일 집정한 직후부터 이미 농민군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를 위해 준비해 나갔다. 대원군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걸쳐 서장옥, 서병학, 장두재 등 주요한 동학교도들을 석방하였다. 이어 7월 말에는 평양에 주둔해 있는 청나라 장수 衛汝貴와 평안감사에게 밀서를 전달하여 일본 군대와 친일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청의 원병을 요청하였다. 7월 19일에는 자신의

수하들을 湖西宣撫使 정경원에 딸려 보내 농민군의 동태와 동원 가능한 농민군의 규모 등을 살피도록 하였다. 8월에 들어 청일간의 평양전투가 임박해지자 대원군은 드디어 각지에 파견되어 있던 밀사들에게 가급적 빨리 농민군을 동원하여 북상할 것을 재촉하였다.

농민군을 동원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대원군은 농민군의 주요 인물과도 직·간접적인 연계를 맺게 된다. 7월 초 무렵에는 석방한 장두재를 직접 만나 청군과 합세하여 일본군을 축출하자는 논의를 하였다. 장두재는 이러한 사실을 김개남, 손화중, 김덕명 등 주요 농민군 지도자들에게 알리며 농민군의 북상을 촉구한 바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8월 10일 전봉준의 처족 7촌이자 전주 大都所의 都執綱을 맡고 있던 宋熹玉이 善工主事로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송희옥이 전봉준과 지근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대원군과 전봉준이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방증하는 자료이다.

그러나 전봉준의 구상과 행동은 대원군의 의도와는 달랐다. 전봉준은 청·일간 전쟁이 끝난 후 어느 나라든 농민군을 진압하러 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럴 경우 현실적인 농민군의 역량으로는 그에 맞서기 어려우며, 결국 폐정을 개혁하고 외세를 배척함으로써 보국안민을 이룬다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봉준은 ‘관민상화’에 의한 ‘撫局’을 유지함으로써 관측의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고 농민군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士族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 등 다양한 계층과의 연합을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봉준이 대원군의 의도를 비롯한 중앙정국의 동향이나 청일전쟁의 추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중앙정계의 인물들이나 외국공사관 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대원군 측과도 모종의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봉준은 생각과 행동은 대원군의 농민군 동원기도나 ‘정변계획’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전봉준이 제2차 기포를 결심하게 된 데는 대원군의 보낸 밀사와의 접촉이나 국왕의 밀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하여 전봉준의 제2차 기포가 대원군과의 사전모의나 북상하라고 한 대원군의 지시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은 국왕의 밀지를 받고, 또 대원군 밀사와의 접촉을 통해 일본군의 일본의 침략의도와 일본군이 진압하러 온다는 계획, 일본은 박영효를 내세워 개혁을 추진하려 하나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점 등 중앙정국의 동향과 청일전쟁의 추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경복궁 강점사실을 알고 나서도 재기포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봉준은 농민군의 역량이 일본군에 맞서기에는 취약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국가가 멸망하면 생민이 어찌 하루라도 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가와 멸망을 함께할 결심”으로 기포하였던 것이다.

1894년 갑오개혁은 왜 농민혁명을 진압했는가?

왕 현 중 (연세대 원주캠퍼스 역사문화학과)

1. 1894년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1)

1894년 갑오개혁은 그야말로 부정적으로 폄하되었던 사건이었다. 갑오개혁은 흔히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는 용어로 불려 왔는데,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는 친일 매관정권이라고 보아 왔기 때문이다. 이 점은 당시 개혁관료들의 주관적인 의도나 지향과 관련 없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왔다. 과연 1894년 갑오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갑오정권은 일본에 의해 수립된 매관정권인가, 일본공사들에 의해 개혁은 휘둘러졌는가,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유길준, 박영효 등 갑오개혁의 개혁관료들은 아무런 준비나 근대 개혁이념 없이 참여했는가, 이들은 이듬해 8월 명성왕후의 암살사건에 왜 깊숙이 개입했는가.

지난 50년 동안 남쪽과 북쪽의 학자들 간에는 사실의 착오, 관점의 혼란, 평가의 상반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른바 근대개혁의 자율성과 타율성에 관한 논란은 21세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일본의 국제적 역할론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과연 험클어진 갑오개혁의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우리는 사실 그대로 복원하여야 한다는 실증주의적 태도로 갑오개혁에 접근해야 한다. 먼저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서울 한복판, 경복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물어보자.

2. 갑오개혁의 시작 :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의 왜곡과 진실

1894년 6월 21일 새벽 5시 서울에서는 일본군이 몰래 경복궁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일본군 측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상황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여단장 보병 21연대 제2대대와 공병 1소대를 왕궁 북방산지로 이동시켜 막영(幕營)하려고 하였으며, 인민의 소요를 피하기 위해 특히 23일 새벽 이전에 위의 여러 군대를 경성으로 투입하였는데, 진격 도중 왕궁 동쪽을 통과하려고 하자 왕궁 수비병과 그 부근에 주둔하던 한병(韓兵)이 돌연 우리 군대를 향해 사

1) 참고문헌 : 慎鏞廈, 『東學과 甲午農民戰爭』, 일조각, 1993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편, 『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 한울, 1993 ; 역사학연구소, 『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 거름, 1994 ; 허종호 외, 『갑오농민전쟁 100돌 기념논문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집문당, 1995), 1994 ; 왕현중, 「갑오정권의 개혁정책과 농민군 대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1995, 485~521쪽 ; 왕현중, 「갑오개혁의 쟁점과 역사적 교훈」 『내일을 여는 역사』 11호, 서해문집, 2003.2, 4~88쪽 ; 왕현중,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격해서 우리 군대 또한 급작스럽게 응사 방어하였다. 또한 이 규율 없는 한병을 경성 바깥으로 물리치지 않는다면, 언제 어떤 사변을 다시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마침내 왕궁으로 들어가 한병의 사격을 무릅쓰고 그들을 점차 북쪽 성 밖으로 내쫓고, 일시 그들을 대신해서 왕궁의 사방을 수비하였다(나카츠카 아키라,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2002, 29쪽).”

이 보고서는 일본 참모본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메이지 27년 일청전사』에 나오는 부분이다. 여기서 경복궁 점령사건은 일본군대의 이동 중 먼저 발포한 조선 병사와의 우발적인 충돌에서 시작되었고, 일본군은 어쩔 수 없이 응전하다 보니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군은 다행히 국왕을 보호하고 왕궁을 수비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경복궁을 도발하여 점령한 사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발적인 소규모 충돌사건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이해는 오늘날까지도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남아있다. 물론 최근 일본 국제관계사 연구에서도 종래와 같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과연 사건의 실상이 그러한가. 당시 한국에 나와 있던 프랑스 천주교 주교인 뮈텔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새벽 5시가 되기가 무섭게 프와넬 신부는 왜장터 부근에서 대규모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기마병들은 출발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일본군대가 대궐 뒤에 위치한 북한산으로 야영을 하러 가려고 대궐 앞을 지나는데, 이 때 조선군대쪽에서 그들에게 총을 쏘았으므로, 그에 대한 반격이 가해지고 대궐을 점령한 것이라도 하더라. 그야말로 가증스런 거짓말이다. 첫 총소리가 나기 10분 전부터 일본 병사들의 함성이 들렸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은 대규모 공세를 취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사대문 밖의 산 위에도 그들은 오늘 아침에 대궐을 향해 6문의 대포를 조준해 놓았다……. 그러니까 총격이 시작된 것은 두 번째 대궐 담에 이르러서였으며, 왕은 그 총격전마저도 막아보고자 했었던 것이다(『뮈텔 주교 일기 I (1890~1895)』, 천주교 명동교회편, 1986, 253쪽).”

당시 뮈텔 주교의 일기에서는 대규모 공세를 취할 일본군의 만반의 준비상황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병사들이 먼저 공세를 가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첫 총소리가 나기 10분전부터 일본 병사들의 함성이 들렸다”고 한 것이다. 이는 의도적인 도발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오토리 공사는 “이 때 조선군대쪽에서 그들에게 총을 쏘았으므로, 그에 대한 반격이 가해지고 대궐을 점령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당시 한국인의 기록에서도 구체적인 경과를 재확인할 수 있다. “21일 새벽에 일병 기척 명이 와서 경복궁을 포위한 바, 영추문 밖에 이르러 문이 열려 있지 않자 나무 사다리에 올라 궁의 담장을 넘어 들어와, 또한 동소문으로부터 불을 지르며 돌입하여 문을 열고 바로 시어소(時御所)인 집경당(緝敬堂)에 있던 전하와 폐하에게 들어 왔다. 각문을 둘러 파수하고 조신 및 액속도 아무로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신남영에 있던 기영(箕營)의 병정들이 바로 건춘문에 들어가 일병을 향하여 총

을 쓰거늘 안경수가 내부로부터 나와 급히 이를 중지시키니 기병이 분연히 군복을 벗고 나가서 귀거하더라” 라고 기술하고 있다(「갑오실기」 6월 21일조, 18쪽). 여기서도 일본군의 조직적인 기습공격으로 인하여 일거에 경복궁이 일본군에게 점령당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최근까지도 공식적으로 ‘가증스런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마침내 사건이 일어난 지 1백년만인 1994년 봄 이른바 「조선왕궁에 대한 위협적 운동 계획」이라는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오전 5시경) 영추문을 부순 후 카와치 중위의 2중대가 먼저 돌입하여 문을 지키고, 차례로 제7·제5중대가 진입하였으며, 제7중대는 합성을 지르며 곧바로 광화문으로 나아가 수비하는 조선병사를 쫓아내고 점령한 다음 안에서 문을 열었다……. 이때 제6중대는 예정대로 남대문으로 들어가 오전 4시 20분 건춘문에도착했는데 문밖에 있던 조선병사가 이들을 향해 총을 쏘아 즉각 응사했다. 5시 조금 지나 영추문으로 들어온 제7중대 1소대가 도착해 안에서 문을 열어 곧바로 문 안으로 진입하였다. 건춘문으로 들어온 제6중대는 다시 북방의 춘생문, 신무문, 순거문을 점령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병력을 나누어 조선병사를 추적하면서 왕궁 내부를 지나 북쪽으로 일제히 행진했다……. 제5중대가 지원하자 처음에 제6중대에 맞서 저항하던 조선병사는 속속 북쪽 왕궁 성벽을 넘어 백악방향으로 도망감으로써 양쪽 사격이 가까스로 멈추었다(오전 7시 반)(나카츠카, 위의 책, 71~82쪽).”

이 글은 『일청전사』 초안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제까지 일본군과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위의 작전 경과보고에서 ‘거짓된 발표’였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새삼스럽지도 않은 경복궁 점령의 실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 경복궁 점령사건의 정황은 1894년 정세의 일련의 연속성 속에 있었다. 우선 1894년 1월 고부봉기로부터 시작하여 농민들의 대반란이 시작되었다. 3월에는 갑신정변의 주도자 김옥균이 상해에서 암살되었으며, 3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농민군대는 충청, 전라도를 석권해 들어가 결국 전주를 점령했다. 이에 4월 말 정부군은 농민군 진압을 위해 출병하고, 이어 청과 일본이 한반도에 각기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다. 5월 8일 전주에서 농민군과 정부군이 극적으로 화해하여 내란의 정국은 일시 정지되었다. 5월 초 이후 조선에 진주한 청과 일본은 각기 이해득실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실시한다는 구실과 함께 청의 내정간섭을 배제하고 조선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외교적 명분을 내세우며 조선 문제에 간섭해 들어갔다. 물론 본래의 의도는 청과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한반도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그럴듯한 구실로도 개전의 명분을 획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자 일본은 6월 21일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한 것이다. 이어 민씨정권을 타도한 후 친일적인 개혁정부를 세웠다. 청과 전쟁을 도발하여 충청도 아산과

평안도 평양전투를 치르고, 나아가 요동지방을 거쳐 북경으로 쳐들어가는 청일전쟁의 도화선을 지핀 것이다.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다시 말하자면 경복궁 쿠데타는 일본의 대륙침략, 제국주의화의 기점이었다. 이 사건은 일제가 우발적인 충격사건으로 치장할 정도로 전쟁의 명분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억지와 거짓’으로 덧칠해 놓은 사건이었다.

3. 갑오개혁의 전개 : 군국기무처의 성립과 개혁 의안의 공포

군국기무처에서는 설립초기인 6월말부터 개혁의안을 공포하였다. 6월 28일 반상(班常)이라는 신분적 차별제도를 폐지하고 귀천에 구별 없이 인재를 채용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이어 공사노비제도의 폐지, 인신매매의 금지 등 사회신분제를 폐지하는 의안을 의결하였다. 7월 2일에는 칠반천인을 해방하며 양반의 상업경영의 자유화를 공포했다. 이어 7월 3일에는 과거제도의 폐지와 선거조례의 제정, 연좌법의 폐지를 선언하여 양반관료 이외의 능력 있는 인사의 권력참여를 허용할 것을 표명하였다. 7월 12일에 향회 설치의 건을 제정하여 지방민의 권력참여를 제도화시키려는 의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법제적 조치를 통해서 적어도 양반과 상천민의 신분적 차별을 두는 제도는 국가제도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종래 여러 가지 부세의 현물납과 봉건 재정 원칙을 개혁하여 각종 부세 명목의 간소화와 조세의 금납화를 추진하였다. 7월 10일 조세금납화 결의 의안을 통해 10월부터 실시를 예고하고 있었고, 공포는 신분제를 전면 폐지하는 가운데 모든 호에서 호세를 내도록 했으며 환곡제는 환곡의 폐단을 금지하고 사창제를 세우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신분과 지역에 따르는 부세불균을 제거하고 ‘균부균세(均賦均稅)’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갑오정권은 지방의 봉건적 수탈과 탐학한 지방관을 금지하고 다스릴 것을 선언하고 있었다.

군국기무처의 개혁 의안은 1차 농민전쟁에서 제기된 농민들의 사회개혁 및 삼정개혁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국기무처는 사회개혁안을 7월 1일부터 활판 인쇄하여 널리 지방에 유포하였다. 갑오정권이 초기개혁의 국면에서 사회의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즉각 공포하여 민중들에게 고지한 것에 비하여, 전봉준(全琫準) 등 농민군 지도부는 초기에는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농민군들은 내정개혁의 측면에서는 민씨정권의 붕괴와 대원군정권의 수립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갑오정권이 추진하는 내정개혁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군국기무처의 개혁의안은 농민군의 폐정개혁안과 마찬가지로 사회개혁의 내용을 원론적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이는 곧 ‘정책화’의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이었다. 7월 20일 갑오정권의 개혁관료들이 신관제의 부서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제기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도 아직 조세금납화 선언에 대응하여 결가책정과 징세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분제 혁파 의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당시 각 지방 도처에서 노비문서를 소각한다거나 양반층을 능욕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신분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양반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갑오정권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갑오정권은 8월 10일 해방된 노비와 양반 사이의 신분투쟁을 완화하기 위한 수정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갑오정권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조세 개혁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토지개혁의 요구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8월 26일 군국기무처에서 결정한 의안은 토지문제의 해결방향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이처럼 갑오정권의 정치개혁이 극히 부진했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회유와 선무공작은 더 이상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4. 갑오개혁정권의 탄압방침 : 왜 갑오정권은 농민군을 탄압하였는가?

1894년 8월 중순 이후 9월 중순에 이르는 한 달여 동안 대내외적인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다. 8월 17일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하자, 8월 19일 일본 무쓰(陸奥宗光) 외상은 오오토리(大鳥圭介) 공사에게 훈령하여, “평양전투의 청군 패주로 이 기회에 적절한 간섭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먼저 조선정부에 대한 일본의 세력 확장에 주의할 것과, 다음으로 제3국에 대한 조선의 외교 내치상의 중대한 사건은 공사의 동의 후 시행케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대조선 간섭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조선을 일본의 ‘사실상의 보호국화’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였다. 따라서 일본군은 계속해서 대청전쟁의 전선을 요동 만주지방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본의 보호국화정책을 반대하고 있었던 반일의병이나 농민군에 대한 진압을 서두르고 있었다.

한편 8월 중순 이후 농민군의 재봉기 움직임은 국왕과 갑오정권을 비롯한 집권관료세력 모두에게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갑오정권은 농민들이 정부의 개혁사업에 순응하고 따라오지 않는 한, 이제 다른 방침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갑오정권의 일각을 담당하고 있었던 대원군은 농민군 토벌을 완강히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농민군을 설득하기로 하였다. 대원군은 8월 24일 이후 전라경상·충청 등 삼남지방에 효유문을 보내면서 “조정에서 이미 삼도에 선유사를 파견하여 덕의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이 끝내 이를 듣지 않고 조정에 거역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난민의 죄목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대원군의 본래 의도는 1894년 9월 시점에서 농민군을 회유시켜 갑오정권에 협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농민군의 복상을 충동하고 이를 기화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원군은 각지에 소모사, 선무사라는 이름으로 동학도 진무를 가장하여 충청도의 양반토호와 전라도 농민군 지도자들에게 밀서(密書)를 보내 봉기하도록 촉구하였다. 전봉준은 8월 24일까지도 대원군은 본래의 공작과는 달리 겉으로는 동학효유문을 내려 갑오정권의 개혁정책의 유효성을 설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9월 7·8일경 전봉준을 비로소 대원군의 밀사와 접촉하여 대원군의 재봉기 촉구에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정국의 위기와 농민군의 재봉기 모의가 은연중에 진행되는 가운데 정권내의 주도권을 둘러싼 대원군 계열과 갑오개화파 계열의 갈등은 9월 3일 결정적으로 심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중앙정계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갑오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소문이 제출되었다. 농민군지도자들은 이제 9월 14일 삼례에서의 봉기를 시발로 해서 전국적인 규모에서 2차 농민전쟁을 준비했고, 그 시점에 갑오정권은 정식으로 농민군에 대한 진압방침을 천명하였다.

이 시기에 갑오정권이 스스로 농민군의 탄압방침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갑오정권이 독자적으로 농민군의 토벌에 나설 수 있는 별도의 군사동원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토벌군은 일본의 군사적 원조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일본제국주의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은 8월 중순이후 여러 차례 조희문을 보내 갑오정권으로 하여금 농민군의 진압을 요청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침략이 이전에 비해 더욱 노골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9월 중순 이후 농민군 진압의 주도권은 갑오정권이 아니라 사실상 일본에 넘어가 있었다. 9월 29일 새로 부임한 이노우에(井上馨) 주한일본공사는 일본의 보호국화를 수립하기 위해, 대원군계열 및 농민군 등의 반일세력을 거세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10월 12일 인천병참사령관 이토(伊藤祐義)는 동학군 진압을 위한 파견대장에게 내리는 훈령을 통해 “동학농민군의 근거를 찾아내어 초멸할 것, 우두머리로 인정되는 자는 체포하여 서울의 일본공사관으로 보낼 것, 동학당거물급 사이의 왕복문서 또는 정부내부의 관리나 지방관 또는 유력한 측과 동학당 간에 왕복한 문서를 수집할 것, 그리고 파견 조선군 각부대의 진퇴와 조달은 모두 일본 사관의 명령에 따르게 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실제 농민군에 대한 진압은 일본군의 지휘 하에 조선정부군 및 유생의 민보군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10월 13일에는 농민군 토벌 전담부대인 후비보병(後備步兵)독립 제19대대가 농민군 진압을 위한 초토화 작전에 들어갔다.

당시 갑오개혁과 농민군은 현실에서는 적대적 전선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이렇게 양자를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한 용인이 있었다. 즉 농민군이 일본에 대항하는 민족적 연대를 요청했을 때 갑오정권의 입장으로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개입에 의해서 갑오개혁정권이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1894년 9월의 시점에서 재강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갑오정권은 1894년 9월과 10월의 시점에서 이 시기 농민들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최소한의 법적인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당시 농민들의 공적 사적인 소송이나 각종 민원(民願)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정부는 행정기관의 역할분담뿐만 아니라 재판관계기관의 소송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알 수 있다. 갑오정권은 제반 법적·행정적 조치를 선행하여 준비함으로써 사실상 농민군과 개혁정부와의 정치적 협상에 착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했다. 양자는 서로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했다.

1894년 11월 초 공주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농민군의 혁명운동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이후 재기를 도모하던 농민군 지도자와 농민군들은 대부분 일본과 관군

및 민포군에 의해 붙잡혀 그대로 처형당했으며 일부만이 서울로 이송되어 심문과 재판관을 받았다. 당시 법관은 국가에서 금지하는 종규가 동학이었으며, 대소 관리를 임의로 죽이고 나라의 정사를 참람히 처단하였으며 양반과 부자를 모조리 짓밟았으며 종문서를 불 질러 강상의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정부를 부수고 새 나라를 도모코자 하였으니 곧 대역불궤(大逆不軌)의 법을 범한 것, 즉 반역죄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전봉준은 동학 포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동학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 탐학한 관리를 없애고 그릇된 정치를 바로잡는 것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와 토지사유화로 인해 발생한 귀천 빈부의 차별이 인도상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재판과정에서도 농민군의 개혁이념을 옹호하고 주장했으며, 봉기의 정당성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특히 “자국의 백성을 쳐 없애기 위하여 외적을 불러들였나니 네 죄가 가장 중대한지라, 도리어 나를 죄인이라 이르느냐”고 하여 일본군의 개입을 초래한 갑오정권의 죄를 단죄하였다.

1895년 3월 29일 오후 3시, 전봉준 등 21명의 농민군 지도자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었다. 이때 전봉준, 성두한, 최경선, 손화중, 김덕명 등에게 『대전회통』 형전의 ‘군복기마작변관문자부대시참(軍服馬作變官門者 不待施斬)’ 율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법률적용은 소위 내란죄(內亂罪)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이며, 2차 봉기의 전체 목적을 단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은 외세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운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도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대부분의 농민군이 아무 명분 없이 학살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호도하는 것이었다. 또한 판결과정에서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갑오정권이 근대적 사법제도에 의해 농민군지도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근대적 사법제도는 이미 3월 25일부로 공포되어 있었고, 이제 4월 1일부로 시행될 것이었다. 농민군들은 근대적 재판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했다.

5. 1894년 갑오개혁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21세기의 관점에 서서 갑오개혁을 평가할 시점에 와 있다. 1894년 동아시아 정치 지형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보호국화 강요,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조선과 일·청간 국제질서의 역전이 일어났다. 이런 변화의 정점에 갑오개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1894년 갑오개혁은 개혁관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타율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조선 왕조국가를 근대국가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사건이었다. ‘갑오경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근대개혁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갑오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갑오개혁은 객관적으로도 조선사회 발전에 긍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 성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근본적이었다. 개혁의 실제 내용은 철저히 전통파괴적이었다. 노비가 해방되고 신분제가 폐지되었으며, 양반의 지배 질서와 유교적 전통이 전복되었다. 갑오개혁은 사회의 모든 측면을 근대적인 체제로 전환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오개혁은 아래로부터의 변혁 욕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못했고, 주체적인 개혁과 독립된 근대 국민국가체제를 수립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갑오개혁은 근대국가의 제도화에 머물렀을 뿐 헌법을 비롯한 민법, 형법 등 근대법전을 제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법제화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측면은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에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했다. 이러한 처지에서 갑오정권은 일본 제국주의의 간섭과 보호국화 정책에 수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갑오개혁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리는 서구적 근대성의 잣대를 떠나 보다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사회 건설의 개혁 과정에서는 반드시 아래로부터의 혁명 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중의 참여를 통한 입헌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한, 앞으로 한반도에서 외세에 대항하는 주체적인 개혁과 민중적 사회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해결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1894년 농민전쟁의 의의와 영향

박 준 성 (역사학연구소)

1. 1894년 농민전쟁의 의의

1894년 농민전쟁은 이전에 일어났던 농민항쟁과 달리 전국에서 농민군이 봉기하여 중앙정부의 정부군 일본군과 전면전을 벌였던 농민전쟁이었다. 농민군은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농민들이 참가하여 연합부대를 형성하고 1년여 동안 치열하게 싸웠다. 그러나 농민군은 정부군 뿐 아니라 일본군과 싸워야 했으며, 후방에서는 보수 양반층들이 만든 민보군의 반격을 받아야 했다.

농민군의 투쟁은 실패했지만, 투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확보하고, 농민적 토지소유를 실현하고, 소상인과 빈농층을 보호하려 하였으며, 봉건적 신분제를 철폐하여 근대적 평등사회를 만들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 하였다. 투쟁의 과정에서 농민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의 이름 없던 민중이 처음으로 지방통치를 스스로 경험하면서 사회의 주인으로 자신들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었다. 위로는 갑오개혁을 추진하도록 강제하여 농민들의 요구대로 노비제도를 폐지하고 수취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얻었다. 밑으로부터 당시의 사회 모순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으로는 낡고 썩은 봉건질서를 무너뜨리고 밖으로는 일본을 비롯한 침략 외세를 물리치려 한 전국 규모의 반봉건·반침략 투쟁의 이념과 정신은 이후 대한제국기의 농민항쟁과 항일 의병전쟁,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으로 계승되었다.

누구나 평등하게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농민군의 꿈이 현실에서는 실패했지만 역사에서는 승리하여 근현대 변혁 운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2. 1894년 농민전쟁의 영향과 위치

1) 영학당과 활빈당 활동

1894년 일어났던 농민전쟁이 실패한 뒤 참가했던 농민군은 철저한 탄압을 피해 살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거나 숨어 지내야만 했다. 그러나 농민군의 반봉건 반침략 운동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농민군 가운데 일부는 1895년 의병에 가담하였으며 곳곳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동학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하거나 무기를 버리지 않고 농민무장대를 만들어 활동을 계속하였다.

농민군 잔여세력이 중심이 되어 벌인 대표적인 활동은 영학당 운동이었다. 영학

당은 탄압을 피해 동학 대신 영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전라도 고부 홍덕 무장 장성 영광 함평 일대에 세력을 넓혔다. 영학당은 1898년부터 미곡수출에 따른 물가폭등과 빈민층의 몰락을 문제 삼으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898년 12월 홍덕 관아를 점령하여 군수를 고을 밖으로 쫓아내었으며, 1899년 5월에는 고부관청을 습격하고 보국안민 척왜양을 외치며 홍덕 무장을 점령하였다. 영학당은 전라도 일대를 장악한 뒤 세를 모아 서울로 쳐들어 갈 계획이었다. 영학당은 정부군과 수성군 민병에 진압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동학 농민 운동의 이념을 계승한 반봉건 반침략 운동이었다.

농민무장집단에서 활동하던 세력 일부는 1900년 무렵 활빈당으로 들어가 반봉건·반외세 민중운동을 계속하였다.

2) 해방공간

○ 문학가 동맹이 1946년 10월 인민항쟁을 겪으면서 그 이전의 민중항쟁인 ‘동학농민란’과 민족독립운동(3·1운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10월 인민항쟁을 형상화할 것을 문학가동맹 소속 작가들에게 요구

○ 박헌영, 「동학농민란과 그 교훈」, 1947.4

조선해방사에 있어서 우리는 3대 투쟁을 들어 말할 수 있다. 동학농민폭동, 3·1운동, 10월 인민항쟁은 모두 우리가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 조선을 위한 인민운동이다...전봉준 지도하의 갑오년 민란은 우리나라에서 봉건전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운동이었다...동학농민전쟁과 3·1운동과 10월 인민항쟁에 흐르는 일관한 기본정신은 민주독립조선을 위한 투쟁이다.

3) 1960년대

○ 신동엽, 『금강』, 1967

내 여기서 / 불타며 승리했노라. / 살덩이를 여기 / 찢어 던지며
내 영혼은 여기서 / 승리했노라. / 만세, / 만세를 불렀노라.

노래했노라 / 우리의 형제들은.

다음날의 / 백화 요란한 / 하늘발 위해. / 우리의 목숨을 / 거름밭에 던졌노라
용감히 노래하며 던졌노라.

알맹이를 발라서, / 던졌노라.

4) 1970년대

○ 호남농민가

1. 녹두장군 말달리던 호남별판에 황토길 달리며 우리 자랐다
노령의 힘찬 산맥 정기 받아서 바위같이 굳세게 힘을 길렀다
2. 눈보라도 헤치고 쇠사슬 끊고 온누리를 달리는 우리 동지들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를 안고 얼싸안고 춤을 추자 만세 부르자
3. 우리들 가슴 속에 농민이 울고 우리들 머리 위엔 햇불이 탄다
농민아 농민아 우리 형제야 죽창들고 일어서자 징이 울렸다.

4) 1980년

○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1980년 연두기자회견문

동학혁명에서 3·1운동으로, 다시 4·19 학생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맥락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의 군정반대투쟁, 3선개헌반대투쟁, 반유신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강한 의지로 표현되었습니다.

○ YWCA 초청 김대중 연설문

- 고려의 항몽운동, 조선의 임진왜란, 한말의 동학농민혁명, 의병운동, 그리고 독립협회운동, 일제하의 3·1운동, 해방 후의 6·25 공산침략의 극복, 4·19 학생혁명, 그리고 유신체제 아래서의 반독재 민권투쟁과 부마사태 등이 민족혼이 역사적 소재를 밝히고 있다.

- 우리의 근대화의 길을 연 위대한 동학혁명! 독일 사람이 자랑하는 1530년의 뮌헨의 농민혁명보다 몇 배나 위대한 이 동학혁명! 진봉준 장군은 이 혁명을 통해서 노비해방과, 과부의 해방과, 토지개혁과, 탐관오리의 징계처분과, 민중의 직접 통치와, 반제국주의 투쟁과, 이러한 위대한 근대화와 반외세의 민주주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 1980년대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창립선언(1983.9.30)

우리는 동학농민전쟁 이래 면면히 지속되어 온 항일 민족해방 투쟁, 4·19민주혁명, 5월 민주항쟁의 반식민, 반봉건, 반독재 민족운동의 햇불을 이어 받고자 하며, 도도한 역사적 흐름으로서의 인간해방과 세계 인류의 평화와 진보를 위한 고난에 찬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자 하는 것이다.

○ 민주·통일민중운동선언(1985.5.10)

갑오농민전쟁, 3·1민족해방운동, 4·19민주민중혁명, 유신체제 아래서의 가열한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0년 5월의 장렬한 광주민중항쟁은 비록 외세와 반민족적인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일시적 좌절을 경험했으나 연면한 민족운동의 전통 속에서 민족의 염원을 확인 결집하고 있다.

○ 전국농민협회 창립선언(1987.2.26)

우리 농민은 옛날부터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부정부패가 만연될 때, 누구보다 자발적으로 앞장서 싸웠다. 나라를 망치는 왜놈과 양놈을 몰아내기 위해 분기했던 동학농민혁명과 일제치하에서 의병이 되어 민족해방에 몸 바친 농민조상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애국적 농민운동은 해방 후 조국의 분단과 대립 속에서도 그 전통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라를 구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곧 농민생존권을 찾는 길이라는 주체적인 농민운동의 역사적 전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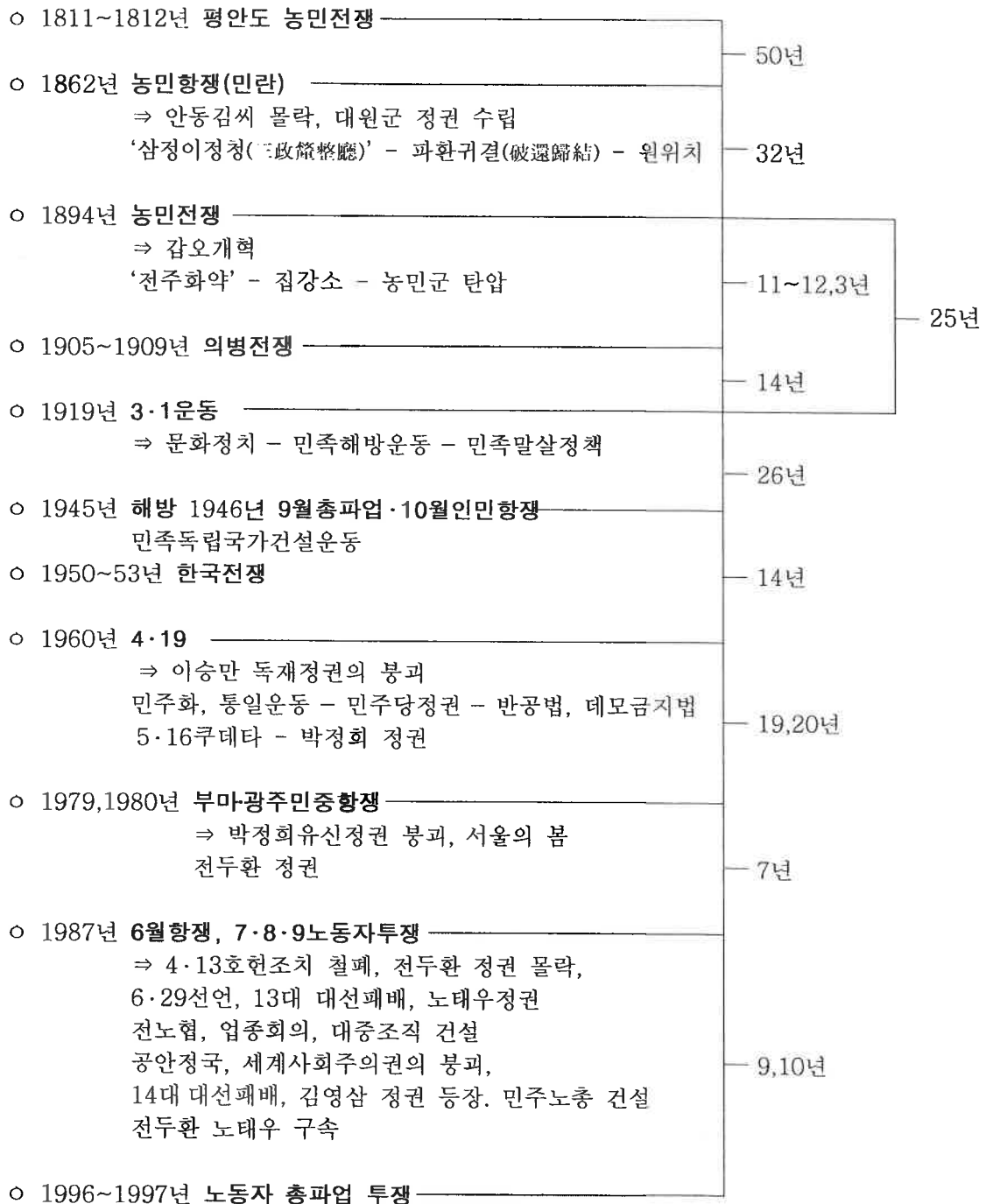
○ 전국농민운동연합 결성선언(1989.3.1)

저 갑오년의 농민전쟁과 3·1항일민중항쟁을 기폭제로 하여 끊임없이 계속된 반제반봉건투쟁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민족정기를 면면히 이어왔습니다.

○ 죽창가 (김남주)

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밭등에서 갈라진 녹두 꽃이 되자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하네 새가
아랫녘 웃녘에서 울어예는 파랑새가 되자하네
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하네 불이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하네 들불이
되자하네 되고자하네 다시 한 번 이 고을은 반란이 되자하네
청송녹죽 가슴에 꽃히는 죽창이 되자하네

3. 1894년 농민전쟁과 근현대 민중운동의 전개 특성



1) 전국적 민중운동의 계속성

19-20세기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바탕으로 생활상의 요

구를 실현하고 시대의 모순과 과제를 해결하려는 항쟁과 투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지주제와 신분제의 모순에서 파생한 삼정의 수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농민항쟁(민란)은 19세기 내내 계속되었다. 1862년에는 한 해에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72개 군현에서 농민항쟁이 폭발하였다. 농민들의 항쟁은 개항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개항이후 조선사회의 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갑신정변, 갑오개혁, 광무개혁, 문화계몽운동 같은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밑으로부터는 1894년 농민전쟁, 활빈당 투쟁, 항일의병전쟁 같은 민중들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조선사회 내부의 모순과 침략외세를 물리치려는 반봉건·반침략 농민전쟁은 1894년 고부농민항쟁, 제1차 농민전쟁, 집강소 체제, 제1차 농민전쟁의 단계를 거치면서 1년 내내 계속되었다.

일제 식민지 지배하 1910년대 무단통치와 경제수탈로 조선의 계급·민족 모순은 심화되어 갔고 여기에 저항하여 노동자, 농민 등 식민지 민중이 광범하게 참여한 3·1운동이 일어났다. 1919년 3·1운동은 그 뒤 민족해방운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해방 후 민중은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공화국을 만들어 자주적 민족국가를 세우려 했으나 미군정의 점령정책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1946년 전평의 지도하에 노동자 25~30만 명이 참가한 9월 총파업은 3·1운동 이후 가장 큰 대중투쟁인 10월인 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독점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은 3·15 부정선거를 계기가 되어 1960년 4월혁명으로 이어졌다. 4월 혁명은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중의 생존권 투쟁과 통일운동을 촉발시켰으나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미완의 혁명으로 막을 내렸다.

유신 정권과 민중의 정면대결은 1979년 10월 부산에서 시작하여 마산 창원으로 변진 부마민중항쟁으로 발전하였고, 지배층의 분열을 촉진시켜 유신체제 몰락의 계기가 되었다. 지배층과 민중의 대립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으로 다시 이어졌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으로 시작한 민중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된 힘은 전두환 군사독재 권력과 외세 의존적 독점자본주의 체제가 빚어낸 모순에 저항하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되었으며, 6월 항쟁의 연장선에서 80년대 노동운동의 성장을 반영하는 7·8·9 노동자 투쟁으로 이어졌다.

1996년 연말부터 1997년 초에 걸쳐 신자유주의적인 노동법 개악에 맞서 노동자들의 정치적 역량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총파업투쟁이 전개되었다.

2) 전민항쟁의 주기적 폭발성

근현대 민중의 대중투쟁은 지배층들의 체찍과 당근, 폭력적 탄압과 개량을 뚫고 1894년 농민전쟁부터 따진다면 한 세대 30년이 가기 전에 25년, 26년, 14년, 19·20년, 7년, 9·10년을 경과하면서 주기적으로 폭발되었다. 이는 구조적 모순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고 개량조차도 지속할 지배계급의 의지와 힘이 부족하여 민중

탄압과 폭력적 억압이 지속된 우리 근현대사의 구조를 반영한다. 동시에 모순이 심화되면서 기존 보수 정치 틀 내에서 수용하지 못한 민중의 이해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양상으로 전개된 것이다.

지배세력은 사회의 변혁과 역사의 발전을 위한 민중의 노력과 투쟁을 철저한 탄압과 교묘하고 기만적인 개량의 방식으로 저지하면서 자신들의 정치권력과 경제력의 독점을 고수하였다. 그러한 지배 세력의 속성은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되기 전에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3) 근현대 민중운동의 성과와 한계

<성과>

○ 1862년 농민항쟁 - 삼정이정청 - 안동김씨 세도정권 몰락 - 갑오농민전쟁 - 집강소 - 갑오개혁 - 근대적 민족의식 - 일제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저수지 - 3·1운동 - 문화정치 - 민족해방운동의 분화와 민족해방운동 - 노동운동의 성장과 발전 - ‘해방’ - 자주적 민족통일국가수립운동과 연결 - 공장관리운동 - 인민위원회 - 전평 - 9월 총파업 - 한국전쟁이후 단절 경험 - 4·19 - 이승만 독재정권 붕괴 - 60·70년대 민주화운동의 저수지 - 부마민중항쟁 - 유신체제 박정희독재정권 붕괴 - 광주민중항쟁 - 계급모순·민족모순에 대한 자각, 변혁운동 복원의 저수지 - 6월항쟁 - 6·29선언 - 4·13호헌조치 폐지 - 직선제 개헌 - 형식적 민주화의 부분적 성취 - 노동자 민중의 진출 계기 - 이후 전두환·노태우 감옥에 - 96·97 노개투 - 노동운동의 정치역량

○ 투쟁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의 경험과 성장

- 민중운동에 개별적으로 참여 경험 - 열린 공간 활용 노동운동 활성화
⇒ 운동 지속주체
- 1919년 3·1운동 - 33인을 비롯한 민족부르주아
⇒ 노동자, 민중 - 노동운동조직
- 1960년 4·19혁명 - 학생·시민 - 노동운동
- 1987년 6월항쟁 ⇒ 노동자대투쟁

<한계>

○ 지도부의 타협과 변질. 대중이 양면성. 민중운동의 지도부가 ‘변혁사상’의 원칙을 비타협적으로 견지하면서 진보적 계급의 이해와 투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진보적 이상을 위해 그의 생애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사회변혁의 지도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비타협적인 투쟁은 그 이후 투쟁의 불씨가 됨.

○ 한국전쟁 이후 민중운동, 노동운동의 구호와 목표가 ‘민주화’ 틀을 벗어나지

못함. 극우 지배세력의 분단을 이용한 극단의 반공적 지배체제. 노동자 민중배제의 보수정치만 허용. 진보정치세력 ‘빨갱이’로 탄압.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 발전 차단 ⇒ 독재정권에 대한 민주화. 자유주의적 보수 기득권 정치세력에게 자신의 운명을 위탁. 구조적 모순 해결을 위한 변혁적 계급운동으로의 발전 차단.

4. 1894년 농민전쟁 기념 역사 조형물의 변화

역사의 현장에 세워진 조형물은 그것에 쓰인 설명과 함께 조형물의 상(모양, 형상)도 역사의 상상력을 촉진하고 역사인식에 영향을 준다. 나아가 과거의 기억을 특정한 형상으로 고정시키기도 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 현장에는 전국 곳곳에 알림판이나 40여 개 가까운 기념 조형물이 많이 세워져 있다. 역사의 현장에 세워진 조형물도 재구성된 역사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현장에 세워진 기념 조형물은 설립 시기와 주체에 따라 설립 의도가 다르며, 조형물의 상도 바뀌어 왔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동학농민혁명’ 조형물 가운데 10년 단위로 1960년대 세워진 황토재 ‘갑오동학혁명기념탑’, 1970년대 우금티 ‘동학혁명군위령탑’, 1980년대 황토현 기념관 ‘전봉준장군동상’, 1990년대 고부 신중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2000년대 삼례 역사광장 ‘동학농민혁명 상징조형물’을 찾아가 보기로 하자. 이들 조형물은 시기별로 설립 공간, 주체, 의도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 조형물의 변화상을 통하여 1894년 농민전쟁이 어떻게 현대사로 재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조형물을 어떻게, 어떤 형상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1) 1963년 황토재 <갑오동학혁명기념탑>

황토재는 지금 탑이 세워져 있는 산등성이 꼭대기가 아니라 탑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이로 난 고개였다. 이 일대에서 농민군은 1894년 4월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전라 감영군과 보부상으로 이루어진 관군과 맞붙어 큰 승리를 거두었다

1963년 정부 주도로 8월 25일 전주에서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9월에 기공하여 그해 10월 3일 세운 탑이다. 이 탑은 농민군 투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최초의 조형물이며, 농민군 승리를 상징하는 대표 조형물이 되었다.

‘갑오동학혁명비’는 수직의 화강암 기둥 윗부분에 전서체로 ‘제폭구민 보국안민’ 여덟 글자를 새겼다. 양 옆 보조 석물에는 앞쪽에 비문과 농민군 부조를 새겼

고, 뒤쪽에 농민군 민요인 ‘새야 새야’와 ‘가보세’를 새겼다. 전체로 보아 중앙탑과 좌우 보조 석물 사이를 떼어 놓아 모양이 시원하고 수수하다. 그러나 보조 석물 좌우 대칭 중심에 자리잡은 중앙의 높고 육중한 화강암 수직 기둥은 권위적이고 위압스런 기념 조형탑의 전형을 보여준다. 전서로 새긴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保國安民)’ 구호는 가까이 갈수록 고개를 짓히고 올려다보아야 할 자리에 새겨져 있고, ‘보’자는 ‘보국안민’ 할 때 쓰는 ‘輔’가 아니라 ‘保’로 잘못 새겼다.

황토재 싸움은 농민군이 전라도 감영군과 싸워 승리한 역사의 현장이다. 그러한 기념 조형물 앞에 제단이 놓여 있는 것도 상징성이 떨어진다. 농민군은 사람을 위아래 양반 상놈으로 엄격하게 나누는 상하 수직의 신분 질서를 깨트리고 서로 대등한 수평의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 또한 농민전쟁은 기존의 질서와 지배의 균형을 깨고 세상을 바꾸려는 밑으로부터 일어난 투쟁이었다. 그렇다면 조형물도 좌우 대칭의 중심에 수직으로 우람하게 선 조형의 상보다 수평의 형상으로 농민군의 뜻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왼쪽 날개 돌에 새겨진 ‘갑오동학혁명기념탑명문’은 갑오혁명기념사업협회장 문학박사 김상기가 지었다. 내용은 갑오동학혁명이 ‘동학교문의 대혁명가 전봉준 선생의 영도아래에서’ 일어났으며 ‘국민생활의 근대화’를 촉진시켰다고 하여 전봉준 중심의 영웅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5.16군사쿠데타 이후 ‘근대화론’의 영향을 담고 있다. 또한 농민군이 내걸었던 ‘척양척왜’의 구호에서 ‘척양’은 빼고 ‘척왜’만 내세우고 있다.

1970년대 세워진 우금재 ‘동학혁명군위령탑’만큼 경직되지는 않았으나 조형의 형상이나 비문의 내용에서 다분히 국가주의적 권위가 풍겨나고 있다.

그래도 날개 돌 뒷면에 새긴 ‘새야 새야’는 그 앞에서 가사를 따라 노래를 부르고,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 되면 못가리”를 낭송하면서 농민전쟁의 역사를 되새겨 보게 한다.

2) 1973년 우금티 <동학혁명군위령탑>

공주에서 부여로 넘어가는 우금티에 1973년 11월 11일 ‘동학혁명군위령탑 건립 준비위원회’가 위령탑을 세웠다. 당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은 위령탑이 세워져 있는 지금의 고개 넘어 쪽이 아니라, 위령탑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에서 1894년 10월 23일부터 25일,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농민군은 수많은 목숨을 잃으면서 경군·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웠다.

비문의 형상은 황토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보다도 더 숨막힐 듯한 좌우 대칭의

화강암 이중 받침대 위에 육중한 수직의 기둥이 우뚝 솟은 모양이다. 이러한 탑의 형태는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킨다. 성기 모양으로 형상화된 남성중심주의가 국가주의 권위주의와 결합하여 은연중에 수직의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층 받침돌 중앙 손이 닿는 위치에 비문이 자리 잡고 있어 위령탑의 중심을 이룬다. 비문 내용에 탑 건립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있다.

「님들이 가신지 80년. 5·16혁명 이래의 신생조국이 새삼 동학혁명군의 순국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면서 빛나는 10월 유신의 한 돌을 보내게 된 만큼 우리 모두가 피어린 이 언덕에 잠든 그 님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이 탑을 세우노니 오가는 천만대의 후손들이여! 그 위대한 혁명정신을 영원무궁토록 이어받아 힘차게 선양하라…….」

‘동학혁명’을 끌어다 박정희 정권이 그 역사를 계승한 것처럼 합리화하고, 군사독재의 시작인 ‘5·16혁명’과 폭압적인 ‘10월유신’을 정당화하였다. ‘동학혁명군’의 혁명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곧 10월 유신에 대한 부정이며, 농민군의 저항정신을 순국정신으로 규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의식을 강조하였다. 희생당한 ‘동학혁명군’을 대상으로 탑을 세웠으며 목적은 유신체제에 국민들을 순응시키려는 것이었다.

농민군이 어떠한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여 싸웠는지, 무엇을 지향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반농민군의 무자비한 폭력과 학살도 드러나 있지 않다.

지금 위령탑 비문에 쓰여 있던 ‘5·16혁명’ ‘10월유신’ ‘박정희’ 글귀 부분은 알고 읽지 않으면 뭐라고 써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희미한 흔적만 남았다. 수많은 답사객들이 돌맹이로 수없이 쪼아 그렇게 되었다. 역사는 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돌로도 쓴다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돌맹이로 쓴 ‘새로운 역사’ 때문에 이 비문은 두고두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

3) 1987년, 황토현 전적기념관 <전봉준 장군 동상>

1983년에 전두환 대통령의 유시(諭示)로 ‘전봉준장군 유적정화사업’이 시작되었다. 전두환이 같은 천안 전(全)씨라 전봉준장군 유적지정화를 위선(爲先) 사업으로 설정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정권이 역사를 통제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더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지역 민간단체인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민주화의 봄’에 김대중 씨를 초청하여 강연을 했다는 것을 트집 잡아 강제 해체시켰다. 그리고 ‘1894년 농민전쟁’을 기념하는 지역 민간단체의 자율활동이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활성화되지 않도록 관주도로 유적정화사업을 벌여 저항과 변혁의 역사를 체제내화하려는 것이었다.

기념관 바깥 쪽 문을 넘어 들어가면 마당 왼쪽에 1987년 10월 1일자로 세운 ‘황토현전적지정화기념비’가 서 있다. ‘전두환 대통령의 유시(諭示)’로 역사 유적지를 정확하였다는 비문 꼬트머리의 이름 석 자는 돌로 쥘어져 있다. 비문이 깨어져 다시 세운 비문의 이름도 마찬가지로다.

박정희 이름은 1973년 우금티에 세워진 ‘동학혁명군위령탑’에 으깨져 있고, 전두환 이름은 ‘황토현전적지정화기념비’에서 쥘기고 있다. 노태우는 이름 석 자 새길 자신도 없었던지 그 이름이 새겨진 돌비석을 못 보겠다.

김영삼은 어떨까. 김영삼의 쥘어진 이름을 보려면 마석 모란공원으로 가면 찾을 수 있다. 마석 모란공원에는 1979년 YH 여성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 때 죽음을 당한 김정숙의 가묘와 묘비가 있다. 묘비 뒤에는 신민당사 농성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그때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이름도 새겨져 있다. 비를 세운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갔을 때는 그 이름이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아마 잘못 쓴 글씨를 지우는 ‘화이트’였던 것 같다. 그 뒤 김영삼 이름도 돌로 쥘어지기 시작했다.

사당의 형태를 모방하여 공간을 구분한 마당을 지나 중문을 넘으면 맨 뒤쪽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서 있다. 전봉준 장군 동상 머리는 맨상투다. ‘압송당하는 전봉준’으로 알려진 사진을 따라 그렇게 만들었을 터이다. 어떤 상황의 사진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그 사진은 잡혀 ‘죄수’가 되었을 때 찍혔기 때문에 맨상투다. 그런데 동상의 머리를 맨상투로 만들었으니 몸체는 격문을 들고 외치는 투쟁에 앞장선 농민군 지도자고 머리는 죄수가 된 꼴이다.

5.6미터 되는 높은 화강암 받침대 위에 청동으로 주조하여 만든 2.7미터 높이의 전봉준 동상은 오른 손을 불끈 쳐든 모습으로 우람하게 우뚝 서 있다. 동상 뒤쪽에 서 좌우로 날개처럼 동상을 감싸고 있는 농민군 부조는 높이가 동상 받침대와 비슷하다. 장군의 동상이 농민군 부조를 밟고 있는 꼴로 보인다. 전체로 보아 스스로가 농민이었으며 농촌 지식인으로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했고, 결국 사형을 당한 녹두 장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농민군 모습 어디에도 죽창과 농기구를 무기로 들고 목숨 걸고 싸움터로 나가는 비장한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

동상 받침대 뒤쪽에는 시행청이 ‘전라북도’ 이고, 조각한 사람이 김경승(金景承)이며, 1987년 10월 1일 완공했음을 알려주는 까만 표지판이 붙어 있다.

김경승은 1915년에 태어나 1992년에 죽었는데, 동상제작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1934년 일본 동경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한 뒤, 1937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하는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입선하였다. 1937년부터 1944년까지 연이어 선전에서 입선 특선을 하였고 추천 작가가 되기도 하였다. 해방 후 만들어진 조선미술건설본부에서 김경승은 형 인승과 함께 친일 작가로 분류되었으나 이화여대 홍익대 교수를 지내면서 각종 기념조형물 제작을 독차지하였고 오랫동안 국전심사 위

원에 심사위원장까지 거쳤다.

1982년 전두환 정권 때는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그의 경력에 걸맞게 그가 만든 동상의 주인공들도 손꼽히는 위인들이었다. 남산 공원의 김유신 장군상, 안중근 의사상, 김구 선생상, 도산공원의 안창호 선생상, 덕수궁의 세종대왕 동상,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부산 용두산 공원, 통영 남망산 공원의 이충무공 동상을 그가 만들었다. 그 뿐만 아니라 4월 혁명 때 무너진 이승만 동상,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 친일 행적이 있는 고려대 김성수 동상과 이화여대 김활란 동상, 인천 송도중학교의 윤치호 동상도 그가 만든 것들이다.

동상 만드는 재주는 뛰어났다고 하나, 그가 독차지하다시피하여 만든 동상들은 인물들의 행적과 관계없이 모두가 비슷비슷한 형상이다.

김경승에게는 엄혹한 우리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시대의 모순과 과제를 해결하려 온몸을 던져본 삶과 사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가까이 지냈던 흔적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에게는 1894년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웠던 농민군의 투쟁의지, 농민전쟁의 의미, 전봉준 장군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형상화 할 수 있는 실천과 경험이 없었다. 전두환 정권의 권력과 김경승의 권위는 쉽게 손잡을 수 있었으나, 그들에 의해 제작된 동상에는 역사는 사라지고 그들을 닮은 형체만 남아 있다.

4) 1994년, 고부 신중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전봉준 같은 농민군 지도자는 기록에도 남아 있고 문제가 많으나 옛집도 복원되고 동상이나 기념물도 세워졌다. 그러나 농민전쟁 뿐 아니라 어떤 역사도 지도자들만이 싸워 이룬 것이 아니다. 이름이 없던 것이 아니라 이름은 있으나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민중이 노동과 투쟁으로 이루어온 것이다.

1894년 농민전쟁 역사에서 그렇게 이름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간 농민군의 영혼과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려고 정읍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주축이 되어 1994년 9월에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을 세웠다. 사발통문이 발견된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녹두회관 앞에 세워졌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1893년 ‘혁명모의’를 했던 주산마을을 들리려면 고생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했다. 대형버스를 타고 외길을 들어가다 작은 차라도 마주치면 한없이 ‘빠구, 오라이’를 해대야만 했다. 농민전쟁 100주년 즈음에 2차선으로 포장되었던가. 이제는 주산마을 가기가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

고부관아가 있던 고부초등학교를 둘러보고 정읍을 향해 1.9Km쯤 가다 입석리에서 오른쪽 중앙교회 가는 길을 따라 2.3Km 더 가면 주산마을이다. 마을 입구 왼쪽에

1969년 사발통문 작성자 후손들이 세운 ‘동학혁명모의탑’이 있다. 마을 안쪽으로 이전했다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 세우는 과정에 전에 없던 무궁화 모양이 새겨진 계단이 한층 더 생겼다. 그렇지 않아도 불품없던 모양의 모의탑에 꼴불견이 되어버렸다.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은 관 주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뜻있는 지역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세운 것이다. 여기 세워진 조형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 있지 않다.

가운데 주탑은 ‘無名東學農民軍慰靈塔’이라고 이름을 새긴 받침대 위 네모난 화강암 판에 쓰러진 동료를 일으켜 감싸 안고 죽창 들고 외치는 농민군 모습을 알게 파서 새겼다. 그림의 이미지는 80년대 민중판화와 걸개그림을 많이 따왔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이 본격화되기 바로 전, 6월 9일 최루탄 맞아 피 흘리며 쓰러진 이한열 학생을 일으켜 안은 동료가 전두환 정권을 향해 분노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진, 그것을 걸개그림으로 만들어 6월 항쟁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은 최병수의 ‘한열이를 살려내라’가 연상된다.

토막토막 따로 세운 1~2미터 크기의 32개 보조탑에는 ‘밥이 하늘이다’를 상징하는 밥그릇, 무명농민군의 얼굴, 농민들이 무기로 썼던 농기구를 새겼다. 화강암 돌기둥 위, 아래, 중간에 새긴 농민군 머리는 표정과 거칠기를 달리하여 삶과 죽음을 표현하였다.

1894년 농민전쟁 역사기행을 하다보면 어두워질 무렵 이곳을 찾게 되는데, ‘위령탑’이니까 그 앞에서 고개 숙여 농민군의 영혼을 위로하는 묵념을 하고 역사기행을 마무리하곤 한다. 땅거미가 깔리고 어둠의 자락이 서서히 펼쳐지는 시간, 역사기행에 참가한 사람들은 착잡한 기분에 잠긴 채 멀찍이 서서 조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가까이 가 보라고 하면 “잔디가 깔렸잖아요” 한다. ‘잔디를 밟지 마시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 경고에 익숙해져 밟기가 겁난 듯한 대답이다.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은 주탑을 중심으로 보조탑들 사이사이에 공간을 둔 것은 그 사이로 가까이 다가가 돌아다니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안아도 보고 손으로 쓰다듬어 보라고 그런 것이다. 멀리 밀어내어 쳐다보기만 하는 먼 역사가 아니라 조형물로 끌어 당겨 가까운 역사로 느낄 수 있게 한 배려이다.

그런데 주탑의 액자 틀 같은 직사각형 선이 답답하고, 보조탑 어느 기둥에도 농민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모습은 없다. 모두 어른 남자 머리뿐이다. 남성중심, 어른 중심의 시각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오른쪽 한 귀퉁이에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건립기념비’가 외따로 세워져 있다.

비문은 “구월봉기는 일본군의 궁성침입으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자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한 민족적인 거사였으며 나아가 민족의 自衛를 위한 민중의 항쟁이었다. 甲午先烈들은 그들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限을 품은 채 匪徒의 누명을 쓰고 방방곡곡 전쟁터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처절하게 쓰러져 갔다.” 는 내용으로 반침략의 성격과 일본군에 의한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다.

9월 봉기 이후의 2차 농민전쟁 또한 반봉건적 성격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농민군을 탄압하고 학살한 반농민군 세력에는 일본군뿐만 아니라 정부군과 각 지방의 보수 민보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은 빼 놓은 것이다.

부족한 점은 있으나, ‘1894년 농민전쟁’ 역사 조형물이 1963년 황토현에 세워진 ‘갑오동학혁명기념탑’에서 시작하여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했다. 또 다시 새롭게 만든다면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나은 형상으로 역사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5) 2003년 삼례 역사광장 ‘동학농민혁명 상징 조형물’

전라북도 완주군이 전라북도비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지원금으로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완주군 무화체육시설지구 안에 조성한 역사광장에 동학농민혁명 상징 조형물 3점과 동학농민혁명봉기비 1동, 동학농민혁명부조물 5점, 동학농민혁명 표지 명문석 4점이 세워져 있다.

광장 입구 오른쪽에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이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고 그 뒤쪽으로 2004년 10월에 세운 ‘동학농민군 출진상’ 서 있다. 뒷말에 있는 설명문 내용이다. “1894년 10월의 삼례농민봉기는 국권수호를 위하여 일어난 반일항전의 출진이었다. 일본군의 국권침탈 만행에 분연히 떨쳐 일어난 10만여 동학농민의병은 주적을 관군에서 일본군으로 돌리고 오직 애국단심, 구국의 일념으로 서울에 입성하여 일본군을 격멸하고자 이곳 삼례에서 북진을 시작하였다. 2004. 10. 10”

‘반일항전’ 만을 강조하여 농민전쟁이 가지고 있는 ‘반봉건·반침략’ 투쟁의 정신을 반감시키고 있다.

흰색 화강암에 농민군이 출진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농민군 출진상을 부조로 조각하여 앞뒤에서 그 뜻을 새겨 볼 수 있게 하였다.

광장 중앙 뒤쪽으로 ‘추념의 장’ 조형물이 있다. “이름없이 쓰러져간 농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념하며 자아 존재와 역사와 우주, 즉 ‘나’ ‘동학농민군상’ ‘하늘’ 이 거울에 중첩 반추되는 영상 속에서 하나 되는 체험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핵심인 인내천 사상을 인과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유의 장으로서 경건의 덩 ‘으로 조형된 것이다.” 이상세계에서 서로 일체화로 이루어진 동학농민군들의 역동적 모습을 표현하여 현실에서 이르지 못한 그들이 한을 달래는 의미와 함께, 독립적 공간을 형상화하면서도 동시에 대기와 빛과 시야가 통과되어 주변환경

과 유기적 일체 공간을 이루는 투조구조는 산화한 농민군들의 영령들에게 부여하는 완전한 자유의 상징 “이라는 설명이다.

‘내’가 ‘동학농민군’과 함께 한다는 일체감을 조성하는 조형물로서 뜻이 크다. ‘나’ ‘동학농민군상’ ‘하늘’이 반추되는 ‘거울’ 깨져 산만한 느낌을 준다.

‘추념의 장’ 왼쪽에 있는 ‘대동의 장’은 동학농민봉기 삼례집회 당시의 농민 군중의 운집의 터를 재현한 것으로 높은 ‘쇠스랑’을 움켜쥔 거대한 팔뚝과 돌을 쌓아 놓은 조형물 ‘힘 - 하나되어’가 있다. “민초 농민들의 뜻이 하나로 결집된 의지의 기치, 또는 이상이 꽃대, 힘을 상징”하며 “누구든 소망을 담은 돌을 없애 놓는 행위를 통한 무한다수 공동제작의 개념, 참여의식의 발현에 의한 지속적인 확산과 계승을 의도”하고 있다.

‘무한다수’ 조형물에 끌어들여 참여 의식을 높인다는 조형의 발상을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쇠스랑’ 끝 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뒤 흔드는 것 같은 조형의 상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위태롭게 보인다.

입구 왼편에 있는 ‘동학농민혁명봉기비’는 2003년 10월 1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에서 세운 비다. 앞면에는 흰 화강암 기둥에 이름만 새기고 아래 받침돌에 ‘척왜양창의’를 한글로 새겼다. 뒷면에 삼례봉기의 뜻을 새긴 비문이 있고, 아래 받침돌에는 ‘예외없이’ 운조지부의 조직체계에 따른 명단이 새겨져 있다.

이들 조형물에 대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기념시설 실태 조사서>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정신을 잘 표현해 냈으며, 조형물과 조경의 조화 등이 잘 이루어져 삼례봉기의 체험적 공간을 훌륭히 구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다른 지역의 기념비 및 조형물이 상당히 권위적이고 위압적이어서 동학농민혁명이 추구했던 이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으나, 이곳의 기념비 및 조형물은 한글만을 사용하여 내용을 충분히 잘 전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보는 사람의 눈높이를 잘 맞추고 있음” “다른 지역 기념시설 조성의 모범으로 삼을 만 함”이라는 평을 실고 있다.

전체로 보아 권위적이고 위압적 조형의 형상을 벗어나고, 제작과정과 역사 광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참여의식들 불러 넣어 준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형물들이 분산되어 있고, 동선 배치도 확실하지 않아 통일성이 떨어진 다. 주변환경과 조화하면서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호남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이 상 식 (전남대 명예교수)

1. 머리말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짓밟히고 수탈당하면서 소외당하던 농민대중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반봉건의 민주화와 반외세의 자주독립을 쟁취하려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비록 외세와 결탁한 위정자들에 의해서 혁명은 좌절되었으나, 한국근대사의 서막이요, 이후의 민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으로 역사발전을 주도했다.

수천 년 동안 탄압받고 착취당하던 호남의 농민들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그들을 짓누르던 기득권세력을 타도하고 호시탐탐 정치적·경제적 침략을 노리던 일본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는데 앞장섰다. 1862년의 임술농민항쟁에서도 전국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던 호남의 농민대중은 동학의 평등사상, 민족사상 그리고 개벽(開闢)사상에 공감하여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어 3차의 시위(示威)운동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드디어는 고부의 농민봉기와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했던 것이다. 호남의 농민들은 혁명대열에 앞장서서 관군을 격파하고 모든 고을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갔으며 9월의 재봉기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구국의 대열에 앞장섰다가 혁명이 일본군의 신무기 때문에 좌절되자 최후까지 항쟁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당하였다. 호남의 농민들은 한말에는 의병의 중심이 되었고 일제시대에는 항일독립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했으며 해방이후의 반독재, 반분단활동에도 선두에 서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켰던 것이다.

2.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호남

오랫동안 무지렁이처럼 짓눌렸던 호남의 농민들은 19세기 후반부터 역사의 주체로서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1862년의 임술농민항쟁에서 그 참모습을 보여주었다. 진주, 함평, 익산 등 전국의 70여개 고을에서 농민들이 봉기했는데 그 가운데 38개 지역이 호남이었으니, 호남의 농민들이 가혹한 수탈을 당했으며,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죽음을 무릅쓴 항쟁을 전개한 것이다. 동학의 평등사상과 민족주의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자는 개벽사상이 전파되자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호남의 동학농민들은 집단시위를 전개하여 그들의 의지를 표출했다. 1892년 11월에 열린 삼례집회는 호남의 동학농민들이 수천 명이나 모여서 전라감사를 상대로 수탈금지와 교조의 억울한 처형을 탄원했는데 겁에 질린 감사는 수탈금지만을 약속했다. 역적으로 몰려 죽을 줄 알았던 호남의 동학농민들은 뜻밖의 성공을 거두자 다음해인 1893년 2월에는 서울로 달려가 대궐 앞에서 교조의 원통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울며 호소하는 한편 의

국민들을 배척하는 벽보(斥倭洋掛書)를 붙였다. 그리고 3월에는 충청도 보은에서 수만 명의 동학농민이 외세를 배척하는 집단시위를 벌였는데, 그 가운데 51%가 호남인이었으며, 최후까지 남은 시위농민들의 70%가 호남출신이었고 가장 열렬하게 시위를 전개한 사람들이 호남인들이었다. 보은집회에 발맞추어 금구, 원평에서는 만여명의 호남동학농민들이 모여서 서울로 진출하기를 기다렸으나, 보은집회가 해산되자 따라서 뜻을 거둔 일도 있었다. 그리하여 다음에 변란이 일어난다면 그곳은 호남지방일 것이라는 공론이 돌기까지 했다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인 전봉준은 1855년에 고창읍 당촌에서 전창혁의 아들로 태어나 완주군 봉동리, 금구, 원평, 태인을 옮겨 다니면서 살다가 38세에 이평면 조소리에서 훈장을 하면서 많은 동지들을 사귀었다. 김개남, 최경선, 김덕명, 손화중 등을 만나 시국을 의논했고 큰 뜻을 세웠는데 아버지가 고부군수 조병갑의 착취에 저항하다가 숨진 후 더욱 혁명의지를 다졌다. 탐관오리들의 상징인 고부군수 조병갑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착취를 일삼자 1893년 11월에 고부 죽산리에 전봉준, 최경선 등 20여명이 모여 혁명을 모의하여 사발통문(沙鉢通文)을 작성했는데 이들은 고부군수 조병갑을 효수하고 전주를 점령한 후 서울로 진격하자고 다짐했다. 그런데 군수 조병갑의 임기가 끝나버리자 봉기를 보류했는데 탐관오리인 군수는 뇌물을 바치고 유임운동을 펼쳐 1894년 1월 9일에 유임되었다.

이에 거사를 보류했던 전봉준 등 고부농민들은 1894년 1월 10일 밤에 배들평을 중심으로 10여 부락의 농악을 동원하여 농민들을 동원하니 수천 명이 모였다. 혁명을 준비해 오던 전봉준은 말목(馬項)장터에 모인 수천 명의 농민대중에게 군수 조병갑의 포악한 정치를 일일이 들어 설명하고 제폭구민(除暴救民)을 역설한 후 군중을 두 길로 나누어 횃불을 앞세우고 죽창으로 무장하면서 고부관아로 진격했다. 이때 조병갑은 이미 도망쳤고 흥분한 농민들은 감옥을 부수고 억울한 죄인들을 석방하였으며 군기고의 총기로 무장을 갖추었다. 그리고 일부는 원망의 대상이었던 만석보(萬石淤)를 헐고 쌓아두었던 수세미(水稅米)를 농민들에게 돌려주었으며 일부는 백산(白山)으로 물러가 성을 쌓으니 고부 땅은 이제 새 세상이 되었다.

이에 전라감사 김문현은 고부의 농민봉기를 무마하기 위해 관리를 파견하여 동정을 살피는 한편 군수 조병갑을 파직시키고 관아의 관속배들을 취조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앙에서는 김문현을 감봉처분하고 조병갑을 체포하게 하였으며 그 후임으로 용안현감인 박원명을 임명하여 민심을 수습하게 하고 장흥부사 이용태를 안핵사(按覈使)로 삼아 대책을 세우게 했다. 한편 고부군수로 부임한 박원명은 원래 광주출신으로 전라도 사정에 밝은 사람이었다. 그는 광주에서 대대로 살아온 명망가출신이며 임기웅변에 있어서도 능력이 있었고 백성들의 사정에도 밝은 인물이었다. 군수 박원명은 부임 즉시 크게 음식상을 차려 난민들을 초청하여 타이르기를 “조정에서 농민봉기자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했으니 모두 돌아가 편히 농사짓고 살라”고 하자 난민들은 모두 흩어졌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민봉기자들은 해산했지만 전봉준 등은 백산에 머무르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던 중 안핵사로 임명된 장흥부사 이용태가 고부의 농민봉기에 겁을 먹고 부임을 늦추다가 역졸 8백 명을 거느리고 뒤늦게 부임하여 군수 박원명을 위협하고 책망하면서 농민봉기 주도자들을 수색하고 백성들을 탄압하며 착취하

고 강간과 수탈이 극심했다. 이용태는 농민들을 잡아들이며 그들의 집을 불태워버렸고 본인이 없는 경우는 그 처자까지 체포하여 살육을 자행했다. 이에 고부의 농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대항했지만 날이 갈수록 탄압과 수탈이 심해졌으며 고부는 물론 부안, 고창, 무장까지 횡포가 심각했다.

이때 혁명가 전봉준은 김개남과 같이 호남에서 동학접주로 명성이 높던 손화중을 찾아가 설득하여 동학농민 수천 명과 함께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봉기하였다.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은 4천여 명의 농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나라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자는 창의문(倡義文)을 발표하고 전라도 각 고을에 통문을 보내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대의를 위해 일어날 것을 호소하였다. 1894년 3월 21일 밤에 창의문을 발표한 전봉준, 손화중 등은 무장에서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을 거느리고 고부를 습격하여, 안해사 이용태를 도망치게 한 후 군기고를 접수하여 무기를 소지하고 억울한 죄수들을 풀어주고 하룻밤을 지낸 후 3월 22일에 백산으로 옮겼다. 무장봉기와 고부점령의 소식을 듣고 전라도 각지에서 구름처럼 동학농민군들이 각 고을의 두령들을 따라 백산으로 모여들었다.

백산에 집결한 동학농민군들은 전봉준을 호남창의대장에 추대하고 손화중, 김개남은 총령관, 최경선, 오시영을 영술장이 되어 전열을 정비했다. 뒤따라 호남의 33개 고을에서 두령들의 인솔 하에 백산에 모인 동학농민군은 만여 명에 달했다. 전봉준 등은 봉기의 본뜻과 동참을 알리는 격문을 발송하고 이어서 4개 강령을 발표하여 창의의 본질과 행동방향을 명확히 밝혀 혁명의지를 천명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이나 생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一曰 不殺人 不殺物)

둘째, 충과 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二曰 忠孝雙全 濟世安民)

셋째, 왜와 서양오랑캐를 축멸하여 우리 도를 맑게 한다.

(三曰 逐滅倭夷 澄清聖道)

넷째, 군사를 몰고 서울에 쳐들어가 권신과 귀족들을 모두 죽인다.

(四曰 驅兵入京 盡滅權貴)

동학농민군은 외세를 몰아내어 자주독립을 달성하고 서울에 쳐들어가 권신과 귀족들을 모조리 죽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밝혀 혁명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로부터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한 의거나 봉기가 아니라 혁명의 깃발을 들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3. 혁명의 진행과 호남

호남의 전역이 소란스러웠고 33개 고을에서 동학농민군이 백산으로 향하여 기세

를 펼치자 전라감사 김문현은 이를 정부에 보고하고 우선 전라도 영군을 동원하여 이를 토벌하게 했는데 동학농민군은 3월 29일 태인을 공격하여 점령한 후 무기를 접수하고 다음날 오전에 금구, 원평으로 진입해 있었다. 동학농민군은 감영군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관군을 유인하면서 황토재에 이르러 진을 치고 관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감사 김문현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중앙정부에서는 3월 29일에 장위영 정령관 홍계훈을 전라병사로 임명했다가 4월 2일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삼아 충청, 전라도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경군(京軍) 800명에 대포를 주어 출동시켰다. 또한 전라감영 우영관 이경호를 별장으로 특별 임명하여 영병 700명과 토병 560명 그리고 보부상 1,000여명을 이끌고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게 했다.

이경호의 전라감영군은 동학농민군의 뒤를 쫓아 황토재를 향하여 밤을 틈타 공격을 기했으나 미리 대비하고 있던 동학농민군의 작전에 말려들어 관군은 대패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고 영관 이경호도 전사했다. 동학농민군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으며 이제까지 싸움다운 싸움을 한번도 해보지 못한 처지라 비록 전라감영군이지만 황토현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런데 황토현 싸움이 있던 날이 바로 양호초토사 홍계훈이 거느린 경군이 임피에서 노숙하고 전주에 입성한 날이었다. 홍계훈의 경군 선발대는 2대로 나누어 한양호와 창룡호에 각 1대씩 분승하여 4월 5일 군산항에 도착하였고 홍계훈 자신은 경군 3대와 함께 중국 배인 평원호에 탑승하여 4월 6일 군산항에 도착했다. 홍계훈의 경군은 원래 장위영의 군대로서 조선최고의 정예부대였는데 황토현의 패전소식을 듣고 전주에 도착해보니 그 수가 크게 줄어 800명에서 470명밖에 되지 못했다.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적은 병력을 가지고 사기충천한 만여 명의 농민군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경군대장 홍계훈은 중앙에 증원군을 요청해놓고 전주에 머물면서 감영군을 괴롭히고 잔치판을 벌여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4월 7일 전라감영군을 황토현에서 대파한 동학농민군은 곧바로 전주로 향하지 않고 남진하여 정읍을 점령하고 흥덕, 고창을 점령한 후 혁명을 일으켰던 무장으로 진격하여 옥에 갇힌 동학교도들을 석방한 후 토호들인 좌수나 아전 등을 치죄하였다. 그리고 영광을 점령한 후 법성포에 입항해 있는 한양호에 뛰어들어 배를 파괴하고 배안에 있던 일본인을 혼내주며 세미를 운반하는 관리들을 체포하였다. 영광에서 4일간 머물던 동학농민군은 전주에서 잔치를 벌인 영군이나 감영의 관리들을 숙청한 후 중앙군의 증파와 정부의 독촉에 못 이겨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로 출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함평을 거쳐 장성으로 향하였다. 영광에 도착한 홍계훈은 중앙에서 증파된 8백여 명과 합세하여 동학농민군을 추격했는데 선발대 이학승등이 인솔한 300명의 경군은 대포와 신무기로 무장하고 함평을 거쳐 장성에 진격했다.

4월 23일 이학승의 경군선발대가 황룡강가에 이르러 정세를 살펴보니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강 건너 황룡장터에서 점심을 먹고 있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대포를 쏘아 약간의 동학농민군을 살상했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미리 준비한 장태를 굴리면서 일제히 공격하니 경군은 중과부적이라 후퇴하다가 대관 이학승과 5명의 경군이 살해당하여 도망치고 말았으니 이것을 장성황룡싸움이라 한다. 오합지졸에 불과한 동학농민군은 최정예부대인 경군을 격파하여 대포 2문과 100여정의 총을 빼앗고

선봉장 이학승 등을 죽였으니 그 의미는 컸던 것이다.

황토현에서 영군을 격파했고 황룡에서 신무기로 무장한 최정예부대마저 격파한 동학동민군은 이제 혁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전라도의 수도인 전주로 직행하여 전주를 무혈점령하다시피 쉽게 점령하여 사기충천했다.

장성황룡에서 전주에 머물고 있던 홍계훈의 경군을 유인하여 격파한 동학농민군은 곧바로 전주로 향하여 4월 27일에 텅 빈 전주를 점령한 후 선화당에 지휘본부를 정하고 경군의 추격을 대비했다. 뒤따라 진군한 홍계훈은 성밖에 이르러 대포를 쏘고 공격했으나 두 차례의 격전을 치룬 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씨조선의 태생지요 전라도의 수부인 전주가 점령당하고 머지않아 서울로 진격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조정의 위정자들이나 장안의 백성들은 크게 동요했다. 조정에서는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기로 하는 한편 동학농민군과의 휴전을 서둘러 김학진을 전라감사로 임명하여 빨리 전주로 향하게 했다. 이때 실학자 김성규는 김학진과 전봉준의 휴전회담을 성사시켜 동학농민군이 전주에서 철수하는 대신 전라도 전역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해 동학농민군의 혁명과업을 추진하게 했다.

감사 김학진은 전봉준을 전주에 초청하여 관과 민이 서로 화합하기로 하는 한편 동학동민군은 전라도 전역에 농민통치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해 폐정(弊政)을 개혁하고 평등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동학농민의 혁명정권인 집강소를 나주성만을 제외하고(나주에도 읍성밖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전 지역에 설치되어 폐정개혁 12개조를 비롯하여 혁명과업을 과감하게 실천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빈부나 귀천, 양반이나 백성 그리고 천민들까지 평등을 누리는 세상, 착취와 탄압이 없으며 농토를 골고루 경작하는 균등한 세상, 억울한 일이나 부채를 탕감하여 부담이 없는 세상이 전라도 전부와 경상도 일부 그리고 충청도 일부에까지 집강소의 혁명정권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가진 자나 양반들에게는 막된 세상, 기가 막힌 세상이었는지 모르지만 수탈당하고 차별받으면서 탄압당하는 농민이나 천민들에게는 태평성대라 노래 부르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농민들의 통치기관이요 혁명정권인 집강소는 책임자인 집강이 수령을 대신하여 고을을 책임지고 다스리며, 서기는 문서작성 및 검열과 집강의 비서 역을 맡았고, 성찰은 치안과 경지 순찰을 맡았으며, 집사는 집강소의 행정과 공사를 관장하는 행정요원이었고, 동몽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기관사이의 연락을 맡거나 집강소 간부의 호위도 담당했다.

그런데 동학농민군의 혁명정권은 일정한 지휘계통이나 통솔체계가 수립되지 않아 유력자들이 각자의 고을에 할거하여 세력을 형성하였으니, 전봉준은 금구, 원평에 체류하면서 전라우도를 지휘했고 김개남은 남원에서 전라좌도를 장악했으며 그 밖의 김덕명, 손화중, 최경선도 각각 지방에 자리 잡아 자기의 관할지역을 통치했다. 따라서 동학의 실력자들은 어떤 원칙이나 정책을 세우지 못했고 실력자의 주장이나 취향에 따라 행정이나 실행이 좌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학혁명정권은 반봉건의 민주화정책이나 반외세의 자주독립을 지향하여 수천 년간 지탱해 오던 구질서는 붕괴되어 평등세상과 농민중심의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라도 적역과 동학농민의 세력이 컸던 경상도 일부와 충청도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 가진 자는 불안했고 농민대중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동학농민군의 재봉기와 혁명의 좌절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전역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중앙에서는 위정자들이 불러들인 외국세력들 간에 치열한 싸움판을 벌이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의 전주점령에 놀라 왕과 집권자들이 불러온 청나라군사와 이를 구실로 대규모의 병력을 서울에 진입시킨 일본군의 노골적인 침략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갑신정변 후 청일 간에 맺은 텐진 조약 이후 조선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든 청나라는 조선정부의 구원병요청이 있자 즉시 병력을 출동해 충청도지역으로 진출시켰고 이에 발맞추어 일본은 청보다 4배나 많은 군대를 서울에 진입시켰다. 조선정부나 열강들의 양군철수요구가 있었으나 일본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선왕궁을 점령한 후 청과 전쟁을 선포하였고 그들이 내세운 정권을 시켜 본격적 침략을 서둘렀다.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일본은 조선의 침략에 박차를 가하자 동학농민군은 일본침략을 저지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재봉기를 서둘렀다.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신병을 요양 중이던 전봉준은 일본의 야만적 침략을 좌시할 수 없어 9월 하순에 재봉기의 격문을 전라도 각지에 보내 삼례에 모이게 했다. 일본군의 침략이 점차 노골화되자 집강소를 통해 준비를 해온 동학농민군은 각각 두령들의 인솔 하에 삼례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1차봉기 때 비협조적이면서 심지어 적대적이었던 교단중심의 북접까지 합세하여 봉기에 나섰으니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있었던 것이다. 북접이 가세한 것은 교단의 지도층들이 봉건세력과 일본세력으로부터 무자비한 수탈과 탄압을 받은 하급간부나 하층신도 층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북접은 손병희의 인솔로 논산에 집결하여 남접의 전봉준군과 합세하니 그 수가 수십만이었다. 남접과 북접의 동학농민군들이 논산에 본부를 두고 전봉준을 양호창의영수(兩湖倡義領袖)로 추대하여 전열을 정비한 후 북으로 서울을 향하여 진격했다. 동학농민군은 공주로 향하면서 10월16일에 전봉준의 명의로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충의를 다하여 구국항왜의 전선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집권관료들은 자신들의 시한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동학농민군의 충정어린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일본침략군의 앞잡이가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본군의 지휘를 받는 총복이 되었고 명령을 따르는 하수인이 되었다.

서울의 길목이요, 충청도의 수부며, 천혜의 요새인 공주를 점령하기 위해 남북접이 연합한 동학농민군은 공주로 육박하기 시작했다. 공주싸움이 정부군과 동학농민군의 운명을 좌우하는 싸움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반외세의 자주독립과 반봉건의 민주화를 이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자들의 요람이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수령인 것이다. 그런데 공주혈전을 전개하는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이 주축이 된 방어군의 병력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남북접의 2만여명과 일본군 2천명 및 정부군, 지방군을 모두 합해 만여 명으로 볼 수 있다.

공주공방전의 시작은 이인싸움이었는데 동학농민군이 약간 우세했으나 이어서 전개된 대교싸움, 효포싸움, 능치싸움에서는 동학농민군이 불리했다. 그런데 공주혈전의 결정타는 우금치싸움이었고 이 싸움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호남군 1만여명이 사력을 다해 공격했으나 처절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기관총 등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이 주축이 된 이 싸움에서 동학농민군의 주력인 전봉준부대는 2차접전후 만 명의 군병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3천이었고 그 후 또다시 2차접전의 결과 남은 병력은 500명에 불과했다.

우금치싸움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한 동학농민군은 후퇴하기 시작해 11월12일 노성으로 밀려와 마지막으로 관군과 백성들에게 척왜척화(斥倭斥華)하여 조국을 살리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미 일본군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관군과 이를 독려하여 전쟁을 주도하는 일본군의 무자비한 살육과 약탈은 그칠 줄 몰랐다. 우금치패전에 이어 노성에서도 일본군과 관군에 쫓긴 동학농민군은 논산을 거쳐 전주에 들어와 며칠을 머물다가 금구, 원평으로 후퇴하여 이곳에서 대반전을 준비했다. 패잔병과 새로 가담한 농민군 만여 명으로 방어전을 전개했으나 일본군과 관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11월 25일 원평싸움에서 패전한 동학농민군은 마지막으로 태인에서 5.6천명을 모아 반격을 시도해 보았으나 이미 사기가 떨어진 동학농민군이 숫자만 가지고 신무기로 무장했고 사기충천한 일본군과 관군을 대적할 수 없었다.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은 태인싸움을 마지막으로 재기불능임을 알고 노령에서 후일을 기약하며 해산했는데 북쪽은 담양, 순창을 거쳐 임실에서 최시형을 만나 진안, 장수, 무주를 거쳐 영동으로 피하여 강원도로 숨어 교단의 명맥을 유지했다. 또한 전봉준은 노령에서 장성의 입암산성을 거쳐 백양사에 들렀다가 김개남을 찾아가려고 순창에 들려 동지 김정천을 찾았으나 고발되어 체포당했다.

그런데 2차봉기 때 북상하지 않고 전봉준의 명으로 호남에 남아 일본군의 해상진입에 대비했던 손화중, 최경선 등과 전남의 동학농민군들은 나주를 공격하여 실패한 후 광주로 들어와 동학농민군의 해산소식을 듣고 12월 1일에 군은 파하였다. 그런데 최경선은 군을 이끌고 남평을 점령했다가 화순으로 퇴각했는데 벽송리에서 관군의 공격을 받아 체포되었다. 그러나 장흥의 이방언은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을 거느리고 장흥의 벽사역을 점령한 후 수만 명으로 세가 늘어나 장흥, 강진, 병영을 점령했다가 일시 퇴각했다. 이들은 12월 15일 수만 명으로 다시 장흥을 공격했다가 패배하고 17일에 최후의 격전을 치루고 이방언은 체포되었다.

장흥의 패전을 최후로 동학농민군들은 일본군과 관군의 무자비한 살육을 당했거나 이를 면한 사람들은 산간이나 섬으로 숨어살았는데 특히 생명을 걸고 바다를 건넌 동학농민군의 잔존세력들은 섬을 근거로 한말의병에 참여했거나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농민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했다.

5. 동학농민혁명의 계승, 발전과 호남

호남인이 주도하여 수백만이 참여했고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동학농민혁명은 비록 기득권자들과 결탁한 일본군의 신무기 때문에 좌절되었지만, 그 정신은 계승되고 발전되어 이후의 민족운동과 민주운동에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한말의 의병항쟁이나 일제시대의 독립투쟁 그리고 분단이후의 민주화운동이나 반분단활동에 호남인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면서 노골적인 침략에 나섰던 일본침략자들은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중국을 굴복시키고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을 도발하여 승리한 후 미국과 영국의 양해아래 조선을 독점적으로 침략하였다. 이에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가장 격렬하게 최후까지 투쟁한 것은 의병항쟁이었다.

한말의 의병항쟁은 3차에 걸쳐 전개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격렬했고 중심이 된 것은 3차의병이었다. 3차의병은 1907년 고종의 퇴위와 군대해산 이후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1909년에 그 극성을 이루었다. 1909년의 의병항쟁에서 호남지방은 전체 의병의 60.1%를 차지했으며 일제침략자들은 호남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남한대토벌 작전을 전개해 무자비한 살육을 자행했다. 그리고 한일합방을 서둘렀으니 호남인들은 최후까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투쟁해 동학농민혁명의 반외세사상을 계승했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반외세 자주독립정신은 일제침략자들이 한국을 통치하였던 일제 시대에도 끊임없이 항일독립투쟁으로 계승,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독립항쟁에 호남인들이 항상 앞장섰던 것이다. 한말의병의 연장선이었던 독립의군부사건의 총책임자와 그 예하조직들이 2차의병 때 최익현과 같이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임병찬과 그 추종세력이었고 1919년의 31운동에서도 호남인들은 적극 가담했다.

일제시대의 농민들의 애국투쟁인 소작쟁의가 호남에서 시작되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었으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암태도소작쟁의와 하의도소작쟁의였다.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되자 일본군과 관군에 많은 사람들이 살육되었고, 이를 피해 바다를 건너 도서지방에 정착한 농민군들이나 그들의 후예들이 한말의병으로 연결되었고 일제시대의 소작쟁의나 독립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 또한 1929년 11월에 시작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54,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194개교가 가담하여 3.1운동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이었다. 이것은 동학농민혁명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한말의병을 잔인하게 짓누른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의식 있는 학생들의 당연한 투쟁이었으며 수탈당하고 탄압받던 농민대중의 한을 대변한 것이었다. 동학농민혁명정신인 반외세의 자주독립과 반봉건의 민주화는 해방이후의 분단과 독재에 항쟁하는 민주운동과 통일운동으로 계승, 발전되었다. 해방과 함께 외세에 의해서 강요된 분단 상황에서 역대의 위정자들은 독재 권력을 자행하면서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삼아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영구화하려 했다.

남한의 상황만을 보더라도 이승만 독재 권력을 타도한 4·19혁명이나 5·16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과 그것을 계승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 호남인이었고 동학농민혁명정신의 반봉건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또한 1961년 5·16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고도성장정책과 반공강화정책 드리고 지역차별을 교묘히 이용한 영구집권을 노리다가 1979년 10·26으로 그 종말을 고하자 피해자인 호남인들의 환호가 넘쳤으며 광주의 80년 5·18민중항쟁으로 폭발한 것이다. 탱크와 기관총의 살상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투쟁을 계속한 결과 19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졌고 드디어는 6·29선언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이것은 호남인의 정의감이 승리한 것이며 동학농민혁명의 민주화정신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니 한국의 근·현대사는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되어 1980년 광주민중항쟁으로 꽃을 피운 것이다.

6. 맺 는 말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호남인이 주도하여 호남전역은 물론 전국을 뒤흔든 근대사의 서막이요 민족운동과 민주운동의 원동력으로 역사발전을 이끌었다. 그것은 비록 일본군의 신무기와 이에 결탁한 기득권세력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좌절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았다. 그 주역인 호남인들과 그 무대인 호남지방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농민군이나 그 가족들은 죽거나 숨어살았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정신은 계승되고 발전되어 한말의병의 주역이 호남인들이었으며, 일제시대의 항일독립투쟁에서도 호남의 농민들과 학생들은 항상 앞장섰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강요된 분단 상황에서도 호남인들은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운동과 독재를 타도하려는 민주화투쟁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러한 투쟁들이 결실을 맺어 2004년 2월에 동학농민혁명이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하여 반역자로 몰리어 죽거나 숨어살았던 농민군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고, 그 후손들도 숨을 죽인 채 불안에 떨다가 떳떳하게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1894년에 호남의 농민대중이 주동하였던 동학농민혁명은 당시에는 실패했으나, 이제는 성공한 혁명이 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이 명예회복 됨으로 많은 동학농민군과 그 유족들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로 인정받게 되었음은 바로 반역의 땅이라 낙인찍혔던 호남지방과 호남인들이 역사발전을 이끈 주역으로 자랑스럽게 자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선운사 미륵비결과 동학농민전쟁의 전개

송기숙 (소설가)

북한의 핵실험 뒤, 부시가 대북 압박정책을 강화하자 이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자 노정권 초기에 안기부 차장을 역임했던 상지대 서동만 교수는 미국의 성동격서(磬東擊西) 전략이라고 가볍게 통론했다. 동쪽에서 바람을 잡고 공격은 서쪽에 한다는 말인데, 미국은 어차피 북한을 무너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것처럼 큰소리를 치면서 실제로는 남한에 더 압박을 가해서, 남한이 자주 노선을 취하려 하거나 한미동맹관계를 좀 더 대등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해온 행태로 보아, 미국은 북을 무너뜨리면 좋고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로 일본의 우경화를 촉진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제대국을 자기들 지배 아래 꼭 묶어두는 데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태도에 분단문제 전문가이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백낙청 씨도 미국의 태도를 서 교수와 똑같이 보고 있었다. 국민들이 모두 조마조마하고 있던 판이라 전문가들의 이런 통찰은 새삼스럽게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다. 두 교수는 분단문제의 탁월한 전문가로 백낙청 교수는 진작부터 분단체제론을 제창했고, 근래는 저서『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을 내기도 했다. 이 책의 제목은 ‘한반도 통일은 이미 진즉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한반도 통일은 베트남처럼 무력통일도 안되고, 독일식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무력충돌이 있었던 예멘 식도 취할 수 없으므로, 한국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1차적 단계로 국가연합 남북연합 비슷한 느슨한 단계를 거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햇볕정책을 펴고 클린턴정부가 포용정책을 할 때는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풀려나갔으나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클린턴정책을 취소하고 대북압박정책으로 선회하자 판세는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다. 남한 정부는 이만저만 곤혹스럽지 않았겠지만 그동안 전과 다름없이 북한에 의연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음직스런 태도였다. 특히 다행한 것은 부시정부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하면서 대외정책에 유연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정책에 강경몰이를 해온 럽스펠드를 선거가 끝나자마자 내보내는 것은 앞으로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으나 두고 볼 일이다.

성동격서니 햇볕정책이니 포용정책이니, 이런 전술적인 말들이 나오자 나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사회상이 떠올랐다. 농민전쟁이 일어나기 2,3년 전에도 ‘남해바다에서 진인(眞人)이 나왔다’ 느니, 말이 간밤에 하늘로 울며 날아갔느니 갖가지 괴상스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으며, 갖가지 참언(讖言)이 나돌았다. 참언은 뜬소문과는 달리 앞날의 길흉화복에 대하여 상당히 설득력이 느껴지는 말들이

다. 그 무렵 나돌았던 참언은 ‘갑오갑자미(甲午甲子尾)’ ‘삼부지(三不知：無穀豐年一不知 無文多上二不知 無君太平三不知)’ ‘천리연송일조진백(千里連松一朝盡白)’ 따위, 아리송한 말들이었다. 일테면 ‘갑오갑자미’란 갑오년이 갑자년의 꼬리가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두 고개를 저었다.

이런 참언과 함께 『아기장수 우투리』며 『선운사 미륵비결』같은 설화도 이씨 조선이 망할 때가 되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참언과 함께 앉으면 그런 설화도 예사로 생각하지 않았다.

아기장수 설화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었다. 특히 남원 동부지역 지리산에서 채집된 아기장수 설화는 아기장수가 ‘우투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그가 자라서는 지리산 산신령의 보호를 받으며 바위 속에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성계가 임금이 되려고 백두산·묘향산·구월산 등 명산의 산신령에게 제를 지내며 허락을 받고, 마지막으로 지리산 산신령님께 제를 지내다가, 지리산 산신령은 우투리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우투리를 찾아 죽여 버리고 그가 임금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기장수가 어느 집에서 태어날 때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가장 이상한 일은 태를 가위나 칼로 잘라도 잘라지지 않고 도끼나 작두로 잘라지지 않았다. 태가 그렇게 잘라지지 않았던 것은 아기장수가 이미 자기의 운명이 흰히 보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보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웃집 할미가 억새 잎을 꺾어다 날선 가장자리로 슬슬 문지르자 태가 잘라졌다. 양반들은 일반 백성들을 민초(民草) 곧 풀이라 하는데, 자기들은 풀 위에 군림하는 나무 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억새는 풀 가운데서 가장 크게 자라기 때문에 풀의 대표라 할 수 있으므로, 억새로 태를 끊는다는 것은 풀의 대표 곧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어서 나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다.

소금장사가 도깨비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이성계한테 일러바치는데 다른 설화에서는 이런 역할을 붓 장수가 하기도 한다. 소금 장사나 붓 장사는 직접 생산자가 아닌데다 상인 일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설화를 구술한 민초들은 그들을 자기들 적대세력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설화의 논리상 아기장수는 실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성공했다면 조선왕조는 이미 그 장수한테 망해서 새로운 나라가 섰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약점을 보완한 설화가 선운사 미륵비결 설화이다.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사 도솔암 곁에는 아득히 쳐다보이는 바위가 있다. 그 바위 앞쪽 절벽은 칼로 잘라 놓은 것처럼 편편한데 거기에 가느다란 선으로 바위를 쪼아 미륵을 그려 냈다. 그 미륵의 배꼽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회로 막아냈는데, 거기에는 3천여 년 전에 선운사를 세웠던 검당선사가 비결을 하나 넣어 냈다는 것이다. 그 비결은 예사 비결이 아니고 그 비결이 세상에 나오면 조선왕조가 망한다는 비결이었는데, 그 배꼽에는 그 비결과 함께 벼락살을 함께 봉해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비결을 꺼내기만 하면 벼락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다. 옛날에 전라감사 이서구가 그 비결을 꺼내려다가 벼락을 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 그대로 봉해두었는데 그 뒤로는 누구도 거기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와서 배꼽을 쳐다보며 그 비결을 꺼낼 방법이 없을까 고개

를 가웃거리다가 돌아갔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농민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892년에 그 비결을 무장현 동학접주 손화중을 비롯한 동학접주들이 꺼낸다는 소문이 퍼졌다. 무장현은 선운사가 있는 현이다. 느닷없는 소문에 누구보다 놀란 것은 손화중을 비롯한 동학 접주들이었다. 그 소문이 무장현 현감 귀에 들어가면 대번에 역적죄로 목이 날아갈 판이었다. 궁지에 몰린 손화중을 비롯한 동학두령은 이판사판 그 비결을 꺼내자고 하여 그 비결을 꺼냈다. 그러나 벼락이 치지 않았다. 우두머리들은 그 비결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는 무슨 글이 쓰여 있는지는 철저히 함구했다. 그러나 이씨왕조가 망한다는 비결을 꺼냈다는 소문이 나자 세상이 발각 뒤집혔다.

아기장수가 바위 속에서 군사들을 조련시켜 이 세상에 나와 못된 왕조를 뒤엎는다는 것은 설화적 차원의 비현실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런 바위 속에 아기장수가 아니라 비결을 숨겨놓고 그 비결을 손에 넣으면 그 사람은 바로 아기장수가 자란 영웅이 되는 구조이다. 그 사람이 바로 손화중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정말 세상이 뒤집히듯 들떠버렸다. 며칠 사이에 손화중의 집에 새로 입도한 사람만도 1만 명이 넘었다.

경남 서부지역 동학농민운동

김 준 형 (경상대 사회교육과 교수)

1. 배경

* 개항 이후 외세의 경제적 침략과 정부, 관리의 부세수탈의 강화, 심한 가뭄 등으로 고통

* 농민항쟁 전개

: 1월부터 7, 8월에 걸쳐 경상도 전체에 걸쳐 여러 고을에서 일어남

사천에서는 1월 16·17일 민인 수백명이 고을 폐단의 교정을 이유로 근남면에서 집회하고 읍촌의 향리 집을 방화. 감영에서는 군교를 파견하여 일을 수습하려 했으나 2월 3일 다시 민인들이 봉기하여 관정에 돌입하고 책실을 방축. 고성부사 오홍묵(吳弘默)이 조사관으로 파견되어 난 수습

김해에서도 3월 말에 민란이 일어남

이후 민란이 뜸하다가 7, 8, 9월에 들어서 영남의 각 고을에서 다시 민란이 격화(영해·영덕·경주·영일·영천·고령·고성·하동·산청·울산·언양·금해·기장·의령·진해·신녕·밀양)
→ ‘도내에서 민요가 발생한 읍이 60여 곳에 이른다(경상감사).’ 감영과 각 고을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임

* 진주 덕산을 중심으로 경남 서부지역 동학조직의 확산과 활발한 활동

1893년의 보은집회에 하동·진주접(接) 소속 동학도도 참여

덕산 일대는 서부 경남지역 동학도들의 중심지(대차례(大次禮))

→ 덕산은 1862년 진주 농민항쟁 때 첫 봉기지의 역할을 했고, 1870년 이필제가 진주작변(晉州作變)을 계획할 때도 중요한 거점

백락도(白樂道: 道弘)를 정점으로 하고 손웅구(孫雄狗)·고만준(高萬俊)·임정룡(林正龍)·임말룡(林末龍) 등을 통해 다른 고을로 동학조직이 확산

덕산의 백낙도를 위시한 핵심 세력은 4월 13일 영장 박희방(朴熙房)의 토포활동에 의해 거의 처형당하거나 수감되면서 위축(대차례 등지의 동학도 5백여 명을 300여 명의 군사로 기습. 백낙도 세력도 조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을 장악하려는 변란의 계획을 세웠던 무리로 인식)

그 후 동학도들의 활동은 다소 위축, 6월 26일경 남원의 동학군이 운봉(雲峰)을

거쳐 함양을 공략하고 이어 안의에 진입. 현감 조원식(趙元植)의 모의로 이들을 기습하여 섬멸

하동읍내에도 도소(都所)가 만들어져 공개적인 활동. 7월 초 이채연(李采淵)이 하동으로 부임해 와서 민포(民砲)를 끌어들이며 동학도를 몰아냄

2. 경남 서부지역 동학군 봉기

- * 제1차 봉기 : 호남지역에만 국한. 5월 7일 전주화약 체결 이후 소강상태
- * 6월말 일본의 불법적인 궁성점령과 청일전쟁 개시
- * 척왜양(斥倭洋)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제2차 봉기
: 호남·호서에서는 9월 중순 이후
- * 9월 1일 하동 공격이 시작됨과 동시에 진주를 중심으로 동학도들의 대집회가 시작

9월 1일 광양으로 쫓겨 갔던 하동지역 동학도가 광양순천포(包)의 동학도와 함께 섬진강을 건너 하동을 공격. 하동의 민포가 주축이 되어 통영으로부터 대완포(大腕砲)를 가져와 강변에 설치하고 관아의 뒷산 안봉(鞍峰)에서 진을 치고 이에 대비. 섬진강 건너편의 동학군은 두 길로 나누어 공격. 1,2일 전투에서 읍내를 점령한 동학군은 읍내에 도소(都所)를 설치. 5,6일 머무른 이후 총대장 김인배(金仁培)를 따라 진주로 향함

비슷한 시기에 진주 등지에서도 동학군 봉기의 움직임. 이미 9월 1일부터 진주·단성 등에서 동학도들의 취회가 시작. 이 집회에서 동학도들은 「진주초차괘榜(晉州初次掛榜)」을 내걸어, 8일 각리(面)마다 13명씩 광탄진(廣灘津)에 모일 것을 요구. 이후 약속한 8일, 진주 73개 면의 주민들이 각 면마다 100명씩 죽창을 들고 일제히 읍내 시장가에 모여들. 이 때 진주읍내에 충경대도소(忠慶大都所)가 설치. 여기에서 각리에 「재차사통(再次私通)」을 발하여 각 리,동의 이임·동장들은 자기 지역의 민폐를 교정할 것과 大洞50, 中洞30, 小洞20명씩 9월 11일 오전 대우치(大牛峙)로 모일 것을 요구. 이와 동시에 충경대도소에서 동학도괘榜(東學徒掛榜)을 내걸어, 왜적의 침입을 징벌하고자, 동학도에 호의적인 지금의 병사가 갈리고 친왜 병사가 부임할 것이니 이를 막고자, 집회. 사사로이 토색하는 자는 대도소로 신고할 것

남해 : 9월 11일 호남 동도 19명이 돌입해서 이청을 장악하고 수감된 동학도를 석방. 읍폐를 교정한다 해서 무리들을 모으고 읍촌에 출몰하여 작폐가 심. 16일에는 동학도 200여명이 진주에서 모인다고 하면서 곤양 등지로

사천 : 9월 13일 동도 수십명이 조사할 일이 있다고 해서 호장이방을 끌고 갔으며, 그 무리 수백명이 동헌에 침입하여 본관을 협박하고 군고를 파괴하여 무기를 탈취, 전표를 탈취해 갔다가 17일 반환. 18일에는 호남 동도 100여명이 돌입하여 작청에서 유숙하고, 19일 남해로 산거하였다. 20일에도 각처 동도 800여명이 각각 총검을 들고 읍저에 납입하여 관속들을 위협하고 하리의 집을 방화한다든지,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마의복 등의 재물을 약탈하였다. 그리고는 22일 고성으로 떠났다고 한다.

고성 : 동도 600여명이 읍내로 진입하여 포랑미를 임의로 빼내 인근 마을에 나누어 주고 취반하게 한다든지, 부랑배들을 동학도로 끌어들이고 부민들을 붙잡아와 토색을 하면서 읍저에 머뭇. 16일에도 동학군 천여명이 읍내로

곤양 : 9월 15일 하동 동도 수천명이 다솔사에서 집회하였고, 광양·순천 동도 수천명이 곤양 읍성으로 들어왔다가 조총 20자루를 탈취하고 진주로

이외에도 단성, 의령, 초계 등지에서 동학군 활동

- * 9월 17일에는 동도 수천명이 하동으로부터 진주로 들어와 각 공해에 접소를 설치하였고 이어서 18일에는 영호대접주 김인배가 천여명을 이끌고 입성. 이때 동학군은 몇 개의 부대로 나뉘어 인솔되고 있었고 각 지역의 포 단위로 배치. 병사와 목사가 여러 번 동학군들을 효유해서, 그들은 며칠간의 대회를 마친 후 19일 퇴거하기 시작. 그 중 일부는 소촌역, 대여촌리의 용심동 등으로 가서 타격을 가함
 - * 이 이후 경남서부 각 지역으로 흩어져 활동(진주 동학군이 고성·사천·곤양·단성·합천 등에서 활동. 의령 신반의 동학군들은 초계에까지도 넘어가 활동)
 - * 조정과 감영에서는 이 소식을 접하고 대구관관 지석영(池錫永)을 토포사로 내정하여, 일부 군병을 이끌고 진주·하동 등지로 가서 일본군과 협동해서 동학군을 토벌하도록 함
 - * 일본 측에서도 동학군의 하동점령 직후 일본군에 의한 동학군 섬멸을 논의(동학도가 조선 인민 중 가장 완강한 인민---일본의 용이한 침략을 위해서는 동학세력의 기반을 이번 기회에 파괴. 이번 파병이 조선 각지 요소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 * 9월 25일(양10.23) 부산에서는 감리서 서기 2명과 서예(署隸) 15명, 막정(幕丁) 153명 및 일본군 3개 소대 150명을 파견. 배편으로 마산포에 도착한 후 두 길로 나누어 등판(藤坂)소위가 이끄는 부대가 먼저 29일 하동으로 진출
- 29일 하동 광평동에서 하동에 남아 있던 동학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졌고, 동학군은 섬진강 건너편으로 패주. 일본군은 강 건너 동학군을 추적하다가 하동

으로. 이어 후속부대와 합류한 일본군은 30일에도 섬진강 건너편에 동학군이 출몰하자 그 뒤를 추적, 철수

10월 7일에는 제4중대장 영목(鈴木)대위가 서부경남 지역에 파견된 일본군을 총지휘하기 위해 곤양에 도착. 대구에서 파견된 관군과 일본군의 합류

* 서부경남 지역 동학군의 주력이 크게 꺾였던 전투는 곤양의 김오산 전투와 진주의 고승산성 전투

* 일본군은 10월 10일 곤양 안심동 남쪽 금오산에 있던 동학군 400여명을 두 부대로 나누어 공격, 많은 동학군을 생포하고 70여명을 사살

* 12일 일본군은 진주 백곡리에 동학군이 모여 진격하려 한다는 소식에 수곡리로 이동. 집현산 아래 및 단성 북쪽10리에 있는 정정, 원본정 등에 동학군 4500명이 모여 모두 진주성을 향해 진격하려 한다는 급보를 받고 진주성으로 이동

* 13일 단성지방의 동학군들이 진주를 공격하려고 수곡촌으로 진군해온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군은 다음날인 14일 수곡촌으로. 수곡촌 산야에 깔려 있던 동학군들은 일부는 고승산성으로 퇴거해 방어준비를 했고, 일부는 북쪽으로 퇴거. 일본군의 공격이 있자 산성의 동학군들은 산꼭대기 누벽에 의지해서 완강히 저항했고, 북쪽으로 퇴거했던 동학군이 일본군의 우측을 공격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황했고 부상자도 3명이나 생겼지만, 무기나 전투기술 면에서 월등한 일본군은 곧 산을 점령. 산꼭대기의 방어 진지가 무너지자 동학군들은 서북 덕산 방면으로 후퇴했고, 일본군 한 소대가 이를 추적하다 철수

이날 전투에서 동학군은 많은 사상자. 일본군이 수거한 동학군 사체만 186구였고 부근 주민의 소문에 의하면 그 이외에 퇴주하면서 수십명의 폐사된 자가 있었음. 생포 2명, 총·칼·화약·승마·화폐·쌀 등 많은 노획물이 있었음

이후 19일 일본군과 관군은 하동에 다시 호남의 동학군이 내습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동으로 진격, 20일-21일에 걸쳐 섬진강 건너 응치 등에 출몰하는 동학군 토벌

* 관군과 일본군의 계속되는 토벌 활동으로 동학군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어 가자, 일부 읍에서는 관에서나 민포조직에 의해서 방위조직을 갖추고 동학군 진압에 나서기 시작

* 일부 동학군은 지리산곡을 근거지로 해서 사천·남해·단성·적량 등의 무기를 탈취하는 등, 서부 경남 곳곳에 출몰, 활동. 1896년 초에도 노응규(盧應奎) 등 보수유생층이 주도하는 의병활동에도 참여. 그 세력은 1900년경까지도 다른 지역과 마

찬가지로 ‘동학당(東學黨)’, ‘영학당(英學黨)’ 이란 이름으로 의병투쟁과 관련하여 활동

3. 의 의

- * 진주농민항쟁을 이은 근대화, 자주화 운동
- *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국권수호운동
- * 진주는 이후 농민운동, 형평운동, 소년운동의 선구적 역할

4. 남은 문제

- * 참여인물의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口傳에 의한 것만으로는 문제)
- * 경상도지역도 중요(‘국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음)
- * 다른 고을에서의 봉기는?

1. 박희방의 첩보

첩보합니다. 비류들을 토벌하는 일로 금월(4월) 12일 행군하게 된 연유를 營將은 이미 치보하였거니와, 동일 (진주)진영에서 서쪽으로 70리 정도 떨어진 덕산장터에 도착하고 이어 여기에 진을 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군을 동원해 (동학의) 소굴을 직접 공격하고자 矢川里(일명 新川) 지리산 밑의 塘洞 어구에 들어간 즉, 비류 5백여 명이 大次禮 등지에 모여 있는데, 서로 6,7리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고한 바를 정탐해 보니 이 곳은 험한 곳에 처해 있고 지리산 절정의 바로 밑에 있어 겨우 비탈길 하나만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軍旗가 열을 지을 수 없고 말이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한 갈래의 길이 있는데 동북쪽으로부터 고개를 넘으면 당류들의 소굴의 뒤가 됩니다. 몰래 강한 병사들을 다그쳐 뽑은 후 먼저 넘어가 대비하지 못한 후방을 습격하고 영장은 진을 친 동구에서 불을 질러 산을 태우고 골짜기 길을 미혹하게 하면서 잠복하였더니 산위에 있던 비류 25명이 먼저 잡혀 문초한 즉, 대차례에 모인 무리들이 뒤에는 교졸과 포군들이 매우 갑자기 들이닥치고 앞으로는 영장의 火攻이 역시 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형세상 양쪽으로 대적할 수 없어서 일시에 해산하였습니다. 그런데 白道弘은 그 무리 백여 명을 이끌고 몰래 大谷 立聲洞으로 들어갔고 또 한 무리 백여명은 몰래 盜藏洞으로 갔으며, 그 나머지 무리는 사방으로 흩어져 잠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일 酉時 경에 포군 50명과 교졸 20명을 보내어 쫓아가 잡도록 하였습니다. 24일 새벽에 동 백도홍은 지력이 궁해지고 다하여 양동의 무리들을 해산시켜 각자 살길을 찾도록 하고 그의 심복인 白溶洙 등 3,4인과 함께 立聲洞을 빠져나가 한쪽 편인 長坂墟를 넘다가 본진 軍官 黃潤에게 잡혀 묶이는 바가 되어 진을 친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백용수는 전날 보고한 바에 白兪知라 이른 사람인데 동시에 붙잡혔습니다. 그를 따르던 두 사람도 모두 붙잡혔고 이외에 도산한 비류들은 령을 내려 효유하고 조만간에 사도를 버리고 정도로 돌아가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 민업에 힘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은 여러 사람 중 두목 백도홍은 우병영에 보고하여 당일 한 가지 율령으로 시행하고 이외 제 사람은 본진에서 도곤 30도로 다스리고 바로 칼을 썬워 가두었습니다. 가둔 무리들을 적은 책자와 각 아문에서 출동하였던 하인들의 성명을 적은 책자를 만들어서 올려 보내오니(『凱歌錄』 권2 牒報(營將朴公熙房 甲午四月日))

2. 황성신문의 동학도 기사

晉州等地에서 民衆이 嘯聚하여 或稱東學하며 或稱英學하여 州里가 騷擾하다고 巷說이 狼藉하더니 昨日에 慶南觀察使 李根鎔氏가 內部에 電告하기를 各郡境內에 前日 東徒의 漏網餘黨이 往往嘯聚하기로 廣派吏目하여 別機情探한즉 果若所聞이라 不可無陰雨之備故로 業已報告하였거니와 現今 東徒가 日益滋漫하여 民情이 日益騷擾하오니 轉飭固城地方隊하여 兵丁一中隊를 派駐本府하여 鎮靖人心케 함을 請하였다더라(『皇城新聞』, 1900년 2월 21일자: ‘慶南東徒’).

시민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역사특강

2006년 12월 20일 인쇄
2006년 12월 26일 발행

펴 낸 곳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82-4 원일빌딩 602호
전화 (02) 737-1894
팩스 (02) 732-1894
홈페이지 www.parangsae21.or.kr
